

CONSIDER THE COST

비용을 고 려해 보십 시오

COST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메시지의 기초를 나타내는 간단한 약어입니다.

C - 창조(성경적 창조);

O - 원죄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

S -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과의 분리; 그리고

t -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

러스 밀러는 지난 26년 동안 창조론과 진화론 분야에서 가르치는 데 헌신해 왔습니다. 교회에서 대학, 그랜드 캐니언 투어에 이르기까지,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글자 한 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글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고민하는 수많은 질문에 답하며 다음을 밝혀줍니다:

- ☐ 실증 과학과 역사적 과학의 차이.
- ☐ 미시적 진화 대 거시적 진화.
- ☐ 죽음이 존재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 ☐ 자연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품질 관리(QA) 프로그램.
- ☐ 전 지구적 대홍수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

- 미국의 기독교적 유산.
-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가르침.
-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지, 그 밖의 많은 내용들.

(러스 밀러가 논리적이고 명료한 문체로 서술함)



비용을 고려해 보십시오

창조, 진화 및 과학 사역단, 애리조나주 캠프 베르데
www.CreationMinistries.Org

© 저작권 2026. 모든 권리 보유. 초판 2026년 2월
미국에서 인쇄됨.

ISBN: 979-8-196-82866-9
표지 삽화 및 디자인: 러스 밀러.

이 책의 판매로 발생한 순수익 전액은 비종파적 사역 단체인 창조·진화·과학 사역
(Creation, Evolution & Science Ministries)에 기부됩니다.

참고: 모든 성경 인용문은 킹 제임스 성경(King James Version)에서 발췌하였으며, 밑줄
이나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저자가 강조한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작권은 러셀 D. 밀러(Russell D. Miller)와 '창조, 진화 및 과학 사역(Creation,
Evolution & Science Ministries, CESM)'에 있습니다. 교실 수업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삽화와
정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재출판이나 재판매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저자의 ‘ ’에 대한 참고 사항

러셀 밀러(RUSS MILLER)

대학 강당에서 다윈주의의 수많은 허구를 폭로한 후, 저는 한 시간 동안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하는 대신 기독교인들에 대해 비열한 말을 했고, 강당은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라앉자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무슬림이나 힌두교도, 혹은 뉴에이지 신봉자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면, 그는 이 대학에서 쫓겨났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인에 대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게 재미있다고 생각했죠. 왜 그럴까요?” 완전한 침묵이 이어지자, 저는 덧붙였습니다.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기독교가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이미 모든 비신자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그들을 공격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이시기에, 여러분은 이 세속적인 캠퍼스에서 기독교인들만 공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늘 떨어지는 소리라도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는 세속적 세계관과 대립하는데, 특히 수십억 년의 역사와 다윈주의적 신념을 모두 무너뜨리는 대홍수 문제에서 그러합니다. 이로 인해 ‘모든 것에 대한 관용’을 주창하는 세속주의자들은 눈에 띄는 예외를 두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이를 ‘ABC 관용(Anything But Christianity)’이라고 부릅니다.

세속주의자들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성경의 기초에 대한 믿음을 훼손함으로써,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창세기가 신화라고 믿게만 만들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과는 다른 예수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거나, 단순히 그분을 전 세계에서 숭배되는 수천 명의 거짓 신들 중 하나로 치부하며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우리 행성과 우주에 대해 세속적인 설명만을 듣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과 모순되는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결과, 수십억 년이라는 개념과 다윈주의적 신념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흔들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경고하듯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따르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누구도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

오래된 지구 이론 중 하나를 받아들인 기독교인들은 그와 관련된 심각한 성경적 모순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큼니다. 이 글은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정의할 것입니다: 운영 과학(신자의 진정한 친구)과 관측되지 않은 역사 과학; 성경적으로 올바른 미시진화(적응/변이)와 다윈주의적 거시진화; 오래된 지구 신념이 어떻게 아담 이전에 죽음을 두는지; 그리고 세속주의자들이 왜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해야만 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2).

이 글을 다듬는 데 있어 저의 소망은 창조론과 진화론 분야의 핵심 쟁점들을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요점을 잘 짚어내는 방식으로 다루는, 포괄적인 단일 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찾고 있는 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를 기도합니다.

목차

저자의 말.....	3
목차.....	5
서론.....	8

제1부

과학 및 성경적 세계관과 비교한 주요 ‘오래된 지구’ 신념들

• 제1장~제8장 소개	11
제1장	
진정한 과학: 신자의 진정한 친구.....	15
제2장	
지질 시대 척도.....	19
제3장	
방사성 연대 측정법.....	27
제4장	
지구의 황폐화: 세인트 헬렌스 산.....	36
제5장	
그랜드 캐니언과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43
제6장	
판게아, 대륙 이동설, 그리고 빙하기.....	55

제7장

공룡	63
----------	----

제8장

법칙과 논리: 빅뱅과 별빛	68
----------------------	----

제2부

오래된 지구 신념이 낳은 최악의 결과

* 제9~14장: 다윈주의의 주요 교리

제9~17장 소개	76
-----------------	----

제9장 - 다윈주의:

생명의 기원	79
--------------	----

제10장 - 다윈주의:

진화: 미시적 대 거시적	86
---------------------	----

제11장 - 다윈주의:

자연 선택: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	92
---------------------	----

제12장 - 다윈주의:

유사성과 화석 기록	104
------------------	-----

제13장 - 다윈주의:

공룡에서 새로,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116
---------------------------	-----

제14장 - 다윈주의:

허위 지식의 난무	125
-----------------	-----

제15장

악한 열매의 난무.....	137
----------------	-----

제16장

미국 기독교 유산의 상실	147
---------------------	-----

제17장

궁극적인 악의 열매: 거짓:	
그리스도, 선지자, 교사들	168

제3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

18~22장 소개.....	184
----------------	-----

제18장

전 지구적 대홍수를 상상해 보라	186
-------------------------	-----

제19장

인류원리와 인류	199
----------------	-----

제20장

성경적 지능적 설계.....	206
-----------------	-----

제21장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221
-------------------------	-----

제22장

창조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229
----------------------	-----

부록 1 – 참고문헌.....	232
부록 2 – 용어 해설	242
부록 3 – 시각 자료:	
성경의 그리스도와 ‘오래된 지구’의 그리스도들 비교	246
색인	247
저자 소개	250



서론

성경의 첫 문장은 명료하고 간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땅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완전한 판단에 따라, 6일 만에 완성된 그분의 창조물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라, 매우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었더라**”(창세기 1:31). 원래의 창조 세계에는 죽음이 없었으며,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거닐었습니다.

그러나 그 완전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제가 ‘**COST**’라고 부르는 개념을 통해 밝혀줍니다.

이 약어는 창세기 1장과 3장에 기록된 복음 메시지의 기초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을 배웁니다:

창세물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타락하여, 그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적 희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대립하는 두 세계관 간의 전쟁에 휘말려 있는 가운데, 이러한 성경적 토대가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음을 목격합니다. **COST**에 기반한 성경적 관점은

인간의 죄가 죽음을 불러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수십억 년의 시간이 다윈주의적 진화로 이어진다는 세속적 관점: 즉, 오랜 세월 동안의 죽음과 자연적 과정이 인간을 만들어냈다는 주장이다.

『아메리칸 애시스트(American Atheist)』의 편집장 프랭크 진들러(Frank Zindler)는 “만약... 원죄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으며 ...그러면 예수님은... 실업자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¹ 진들러 씨는 아담 이전에 죽음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복음 메시지의 기초를 무너뜨린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철학 교수인 마이클 루즈는 “진화는 그 실천자들에게 의해... 의미와 도덕성을 갖춘,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대안으로 홍보되고 있다...”고 언급했다.²⁹³

한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오래된 지구’ 철학 중 하나와 타협하는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그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무의식적으로 세속적 관점을 하나님의 말씀에 강요하고 있다.

이 전쟁은 에덴 동산(창세기 3장)에서 시작되었으며, **유다의 사자가** 돌아와 자신의 피조물을 되찾을 때(요한계시록 19장) 끝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더 심해지는 반기독교적 편견, 도덕적 붕괴, 혼란에 빠진 사회, 사라져 가는 자유, 전염병, 전쟁 등을 목격하는 이유입니다. 문제들이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믿음을 위해 싸우라고** 명령받았습니다(유다서 3절).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요 문제를 인식하고, 핵심 쟁점을 파악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다윈주의 진화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시간관을 주요 문제로** 지목할 것이다.

약 225년 전에 고안된 ‘오래된 지구’ 이론은 전 지구적 대홍수가 결코 일어

나지 않았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약 170년 전에 고안된 다윈주의 진화론은

오래된 지구론적 서사들. 이로 인해 전 지구적 대홍수는 핵심 쟁점이 됩니다. 수십억년설과 *다윈주의 진화론*이라는 두 철학은 지난 약 100년 동안 마치 과학인 양 가르쳐져 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아담 이전에 이미 죽음**이 존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담의 죄가 죽음을 가져왔으며 우리를 창조주로부터 분리시켰다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 결과, 전 세계 인구의 상당수는 “**누구든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들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라**”(골로새서 2:8)고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들에서 저는 관찰 가능한 사실과 성경, 논리를 세속적 세계관과 성경적 세계관의 기초적 신념들과 비교하며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 포기하지 말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더 많이 읽을수록, 진정한 과학이 믿는 이의 진정한 친구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진리라는 확신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진리는 믿는 이의 편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로마서 8:31)

“제 12살짜리 아들이 친구들과 놀고 있을 때, 아이들을 불러들여 ‘다윈주의의 10대 사기’에 관한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을 했지만, 영상이 재생되자 아이들은 꼭 빠져들며 놀라워했습니다! 며칠 동안이나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 토니

“아들과 저는 대학 행사에 참석했는데, 그곳에서 선생님께서 대학생, 교수, 그리고 야유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강당에서 강연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다윈주의를 옹호하려는 그들의 주장을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반박하셨고, 그들은 곧 조롱해졌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들의 믿음을 확고히 해주셨고, 저는 영원히 감사드립니다.” 애리조나주 신디



I 편

과학적 사실과 성경적 세계관과 비교 한 대표적인 ‘오래된 지구’ 신념들

제1장~8장 개요

* ‘네페쉬(Nephesh)’의 삶을 정의함

중요한 질문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을 허용하실 수 있었는가?”입니다. 성경적인 답은 창세기 1장과 3장에 마련된 복음의 기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이러한 기초를

‘**COST**’라고 부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Creation)가 아담의 원죄(Original sin)로 인해 타락하여(Original sin)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Separated)시켰고(이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 t.

반면, 아담 이전에 죽음이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관측 불가능한 ‘오래된 지구’ 이론들은 세속적 세계관(다윈주의, 자연주의, 인본주의 등)의 토대가 되며, 오늘날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년이며,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죽음이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가르침들이 과연 관측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과학적 사실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편향된 역사적 서사에 불과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21절에서 경고하듯이,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경건하지 못하고 헛된 수다와 거짓으로 불리는 지식의 반대를 피하라. 어떤 이들은 이를 표방하다가 믿음에서 벗어나 잘못을 범하였느니라.”**

이 중대한 문제를 온전히 이해하려면, 성경적 의미에서 어떤 ‘죽음’이 논의되고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스트롱 성경 사전(Strong’s Concordance)에 따르면,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는 생명체, 주로 사람을 가리키며 의식을 내포합니다. ‘네페쉬’는 살아 있는 동물을 지칭할 때 ‘**차이야**’와 결합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단어들은 인류를 가리킬 때는 ‘**살아 있는 영혼**’으로, 척추동물(등뼈가 있는 생물)을 가리킬 때는 ‘**살아 있는 피조물**’로 번역됩니다. ‘네페쉬 차이야’는 창세기 6장과 7장에서 노아의 방주에 실린 동물들을 묘사할 때도 사용됩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네페쉬)은 피에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네페쉬’의 생명을 척추동물의 몸속을 순환하는 붉은 액체인 피와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에서 인간과 척추동물은 ‘네페쉬’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죽음이 죄에 대한 형벌이었으므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는 ‘네페쉬’의 생명이 죽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네페쉬 차이야’인 동물의 피를 흘리는 것은 죄를 일시적으로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는, 그분을 주님이자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죄를 영원히 씻어 주셨습니다. 반대로, 식물이나 무척추동물처럼 피가 없는 것은 ‘네페쉬’ 생명이 아니므로 대속물로 죽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신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주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주 예수님께서 곧 이를 가장 위대한

승리로 바꾸신 것 다음으로, 우주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간은 에덴 동산에서 ‘네페쉬 하야’인, 아마도 어린 양의 첫 번째 죽음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일시적으로 덮어주기 위해 첫 번째 죽음을 마련하셨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적이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으로 멸망할 적이 될 것이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반역이 초래한 이러한 결과를 보고 끔찍한 공포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멸망할 적은 사망이라”**(고린도전서 15:26).

네페쉬 생명의 죽음을 인류의 출현 이전으로 치부하는 믿음은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죽음을 부정하며, 성경의 기초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약화시킵니다. 이러한 믿음이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제시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어 많은 이들이 주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지구의 나이를 수천년으로 믿든 수십억년으로 믿든, 그들이 관찰할 수 있는 증거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지구의 나이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시기에 대한 개인의 믿음은, 누구의 서술을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입니다. 비록 세속주의자들이 과학 및 교육 기관을 장악하고 있지만, 관찰에 기반한 과학은 진리로 이끌 것이며, 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세속적 지질학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의 대부분은 성경에 기반한 지질학 수업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주된 차이점은 지질학적 지형이 형성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즉,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그리고 균일하게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1년 동안 지속된 전 지구적 대홍수 기간 동안 빠르게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차이점입니다.

이 글 전반에 걸쳐 증명하겠지만, 진정한 과학은 신자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여 진정한 ‘실증 과학’과 과학으로 위장한 편향된

역사적 서술을 분별해야 합니다. 이 글은 그 차이를 명확히 정의할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진리를 추구하는 이들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에 연료를 더해 줄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어졌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요한복음 1:1-14).

먼저 ‘운동 과학’과 ‘역사 과학’의 차이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눈이 뜨이는 경험이며, 많은 이들에게는 세계관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년 전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는데, 그 덕분에 제가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제 인생이 바뀌었죠.” 오리건주(OR)의 팀

“제 친구가 교육위원회 위원입니다. 1년 전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그녀는 창조론자가 되었고, 이제는 다윈주의를 축소하는 교과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스콘신주(WI)의 폴

“기독교 라디오 방송에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셨을 때 가족 몇 명을 데리고 가도록 했더니, 그 후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애리조나주 브랜디



1

진정한 과학: 믿는 이의 진정한 친구

“터전이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리요?” (시편 11:3).

저는 우리가 그 기초를 다시 세우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러스 밀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성경과 과학이 상충한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한 훌륭한 출발점은 **현대 과학 분야의 80% 이상이 기독교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과학적 방법론의 아버지*인 프랜시스 베이컨부터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인 아이작 뉴턴에 이르기까지, 전지전능하신 성경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현대 과학의 이러한 기독교 선구자들은, 하나님께서 창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정하신 원리 중 일부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 법칙들을 활용하여 문명을 발전시키고 지구를 관리하는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과학과 서구 문명을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늘날 과학으로 가르쳐지는 내용과 종종 상충할까요? 지난 175년 동안 과학 연구 분야가 자연주의를 믿는 세속주의자들(인본주의자, 다윈주의자, 무신론자)에 의해 장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연주의는

오직 물질만이 존재하며, 인간의 영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는 부정하는 철학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이제 과학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물질만이 중요하며 자연주의에 기반한 과학만이 알 수 있는 것의 유일한 기초라고 믿으면서, 자연에 대한 모든 초자연적 또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거부합니다. 따라서 제가 다음에 설명할 내용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과학과 과학적 사실로 위장한 세속적 편향의 서사 사이의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다행히도, 신자의 진정한 친구인 ‘운영 과학’과 종종 과학이라고 할 수조차 없는 ‘역사 과학’을 비교해 보면 이를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운영 과학은 관찰 가능한 증거를 반복적으로 실험하여 도출된 지식입니다. 과정의 시작, 진행 중, 그리고 끝 단계의 조건을 관찰함으로써, 운영 과학은 라디오부터 페니실린, 우주 왕복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방식에 셀 수 없이 많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운영 과학’의 정의를 모르더라도, 과학 서적이나 학술지의 기사를 읽거나 “*한 과학자가 말했다*”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바로 이것이 운영 과학이라고 가정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과학으로 제시되는 것의 상당 부분은 ‘역사 과학’이며,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은 오해하게 됩니다.

역사 과학은 관찰할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관찰할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해 ‘역사적 서사’라고 알려진 설명을 제공합니다. 역사과학에는 법의학과 고고학의 진지한 노력도 포함됩니다. 역사과학이 비판을 받는 부분은 바로 우리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서사를 *다윈주의 진화로 이어지는 수 십억 년이라는* 믿음에 맞추도록 강요하는 세속적 편향 때문입니다. 이러한 편향에는 균일성 신념, 즉 현재의 과정이

. 오늘날 과학으로 가르쳐지는 내용의 상당 부분은 세속적 편향에 물든 이야기, 즉 서사일 뿐이며, 이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우리가 과학이라고 배우는 내용 사이에 논란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거의 항상 역사적 서사와 관련된 것이지, 운영 과학과는 무관합니다.

실증적 결과와 역사적 결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예로, 자동차에서 오일을 빼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정비사가 오일 플러그를 제거하고 오일이 아래의 오일 팬으로 쏟아지는 것을 관찰한다면, 운영 과학은 오일 팬이 오일로 가득 차는 데 2분이 걸린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10분 후에 현장에 도착했다면, 이미 오일로 가득 찬 팬을 볼 수 있을 것이며, 며칠 동안 팬을 지켜보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차에서 오일 한 방울이 팬으로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균일성 원리에 근거하여, 역사적 과학은 그 받침대를 기름으로 채우는 데 2,000년이 걸렸다고 결론지을 것입니다. 관찰 가능한 운영 과학과, 과학인 척하는 관찰 불가능한 역사적 서사 사이의 모순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에 과학으로 제시되는 것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항상 역사적 서사와의 모순이지, 운영 과학과는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상충되는 것을 보거나 들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누군가 이것을 관찰했는가, 아니면 누군가가 일어났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것에 대한 관찰되지 않은 편향된 설명인가? 좋은 원칙은, 이야기가 수백만 년 전부터 시작된다면, 그것은 사실상 ‘옛날’에’라는 말로 시작되는, 관찰되지 않은 세속적 편향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임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듯이, 그리고 이 책 전반에 걸쳐 밝혀 나갈 것처럼, 진정한 과학은 신자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이: “**오 디모데여,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경건하지 못하고 헛된 수다와 거짓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대를 피하라.**” 이를 자처하는 자들 중 어떤 이들은

믿음에서 길을 잃은 자들도 있습니다(디모데전서 6:20-21). 믿음에서 길을 잃었다니?

스트롱 사전(Strong's Lexicon)에 따르면, ‘과학(science)’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그노시스(gnosis, 지식)’를 번역한 것입니다. 바울은 영지주의자들이 거짓말과 허위 지식을 동원하여 유일한 참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을 훼손하던 시기에 디모데전서를 썼습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자들은 관찰할 수 없는 ‘일률적인 과정’, ‘수십억 년에 걸친 시간’, ‘다윈주의적 진화론’과 같은 기초 철학을 바탕으로 한 편향된 서사를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많은 이들이 믿음에 있어 그릇된 길로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실증 과학’과 마치 과학인 양 가르쳐지는 역사적 서사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은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일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곧, “상상하는 모든 것과 하나님의 지식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지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것”**(고린도후서 10:5)입니다.

이 믿음을 강화해 주는 글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용어를 더 정의해 두겠습니다. 바로 ‘오캄의 면도날’입니다. 이는 가장 단순한 해답, 즉 가정을 가장 적게 전제하는 해답이 대개 더 복잡한 설명보다 낫다는 원칙입니다. 저는 현대 ‘오래된 지구’ 신념의 기초가 되는 서사인 ‘지질학적 시간 척도’부터 시작하여, 다음 장들 전반에 걸쳐 오캄의 면도날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89세인 제 아버지는 은퇴한 지질학자이자 열렬한 다윈주의자로, 성경이 말하는 어떤 내용도, 특히 전 지구적 대홍수에 관한 내용은 결코 받아들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설득해 (COST)를 읽게 했더니, 그 후로 아버지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습니다.” 뉴멕시코주 제니퍼



2

지질학적 시간 척도

“사실 시간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입니다...그토록 긴 시간이 주어지면, ‘불가능한’ 일은 가능해지고, 가능한 일은 개연성이 높아지며, 개연성이 높은 일은 사실상 확실해집니다. 우리는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시간 그 자체가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² 조지

월드,

전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노벨상 수상자

1800년대 중반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의 나이가 불과 수천 년에 불과하며 전 지구적 대홍수를 겪었다는 성경적 견해에 동의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구가 수십억년이나 되었으며 전 지구적 대홍수를 겪지 않았다는 세속적 관점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변화는 관찰 가능하고 실증적인 과학 때문이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는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가르쳐지고 있는 역사적 서사들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내가 ‘오래된 지구 신념의 여섯 기둥’이라고 부르는 것 중 세 가지, 즉 균일설, 전 지구적 대홍수가 결코 없었다는 믿음, 그리고 지질 연대표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나머지 세 기둥인 방사성 연대 측정법, 그랜드 캐니언, 공룡에 대해서는 다음 장들에서 다룰 것이다.

우리 행성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800년대 초의 연구자들(여러 기독교인을 포함)은 ‘지질 기둥’이라고도
불리는 지질 연대표³를 개발했다.

찰스 라이엘은 1830년에 출간된 저서 『지질학의 원리』를 통해 지질 연대
표를 대중화했다. 이 연대표는 12개의 주요 지층으로 구성된 도표이다. 각 지
층에는 이름이 붙여졌고, 지표 화석이 지정되었으며, 고대 연대가 부여되었
다.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는 이 체계가 최첨단 무기가 소총이었고 현대적인
교통수단이 마차였던 시대에 고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의
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 사람들은 암석층에 부여한 연대를 어떻게 도출해
냈는가?” 이에 대한 타당한 답변은 단 하나뿐이다. 그들은 두 가지 신념에 근
거하여 연대를 지어낸 것이다. 첫째, 암석층이 그들이 관찰할 수 있는 것과 동
일한 속도로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믿음이다.

이 관찰되지 않은 믿음은 ‘균일설’로 알려져 있으며, ‘현재가 과거를 이해하
는 열쇠’라는 주장이다. 둘째, 전 지구적 대홍수는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지구의 층리를 순식간에 형성
하여 지질 연대를 무너뜨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1장에서 물었던 것처럼,
팬에 기름을 채우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

놀랍게도, 1,900여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은 말세에 의심하는 자들이 모든 것
이 변함없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며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부정할 것이라고 예
언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3:3-6: “**먼저 이것을 아십시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그가 오시겠다는 약속은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것입니다.**” “**조상들이 잠든 이후로 모든 것이 창세 때부
터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옛날에 하늘이 생
겨났고, 땅이 물 속에서 물 위에 떠 있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
다. 그로 인해**

물에 잠겨 멸망하였으니... 와! 이것이 바로 자연주의, 다윈주의, 인본주의를 포함한 세속적 세계관의 토대인 ‘오래된 지구’ 신념이 근거로 삼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표 화석은 지질 연대표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는 특정 암석층이 서서히 형성되는 동안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물과 동물의 화석입니다. 지층 형성 기간 동안 멸종되었기 때문에, 그 화석이 발견된 멸종층보다 위에 있는 더 젊은 지층에서는 그 유해가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표 화석이 발견될 때마다, 그 유해가 포함된 지층의 모든 것에는 해당 특정 화석에 할당된 연대가 부여됩니다. 다시 말해, 암석층의 연대는 그 안에서 발견된 지표 화석에 부여된 연대에서 파생되는 반면, 지표 화석의 연대는 그것이 발견된 암석층에 따라 결정된다.⁴ 이는 전형적인 순환 논증이다.

합리적인 의문이 하나 있다. 지질 연대표를 고안한 사람들은 다양한 암석층이 형성되는 과정을 직접 관찰하지도 못했으면서, 어떤 식물과 동물이 그 과정에서 멸종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들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오늘날 ‘오래된 지구’ 신념의 토대가 된 이 지질 연대표의 지표 화석들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면서 ‘오래된 지구’ 신봉자들에게 엄청난 당혹감을 안겨주고 있다! 사실, 멸종된 것으로 여겨졌던 수많은 식물과 동물들이 오늘날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고 있어, 이를 위한 과학적 분류 체계까지 마련되었다.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이들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라자루스 택슨 ⁵(Lazarus Taxon 5)’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들은 결코 멸종된 적이 없으며, 라자루스 택슨은 지질 연대의 기초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층에는 어떤

식물과 동물이 멸종된 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포함하여, 관찰되지 않은 수많은 가정에 근거해 지층에 엄청난 연대가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표 화석으로 사용되었던 많은 식물과 동물이 멸종되지 않았으며 오늘날에도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질 연대표를 무효화시키며, ‘라자루스 택슨’은 관찰에 기반한 진정한 과학이 ‘수백만년’이라는 관찰되지 않은 서사에 대해 제시하는 최악의 소식조차 아닙니다.

만약 지구의 층상 암석층이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되었다면, 지각의 어느 정도가 지질 연대표의 12개 주요 층으로 구성되어야 할까요? 저는 지각의 95%에서 99%가 각 층을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해당 지표 화석과 함께 올바른 순서로 배열된 층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러나 ‘오래된 지구’를 신봉하는 이들에 따르면, 그토록 자랑하는 ‘기둥(Column)’의 순서는 지각의 고작 0.5%에서만 존재한다고 한다! 즉, 이 오래된 지구 연대 측정 체계를 믿는 연구자들조차도 지구 표면의 99.5%에서는 그 순서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리고 제가 아는 한, 그 악명 높은 ‘지질 연대표’가 존재한다고 주장되는 지구 표면의 고작 0.5%조차도, 그 악명 높은 지표 화석들이 올바른 순서로 배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지질 연대표’가 자연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일까요?⁶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저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납득시킬 만한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말해야겠습니다. 저는 교과서와 박물관 전시물에서만 그것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을 포함한 세속적인 세상은 이 편향된 역사적 서사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 디모데여,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되... 거짓으로 일컬어지는 과학의 반대론들을 피하라. 어떤 이들은 이를 표방하다가 믿음에 있어 길을 잃었느니라(디모데전서 6:20-21).

점점 더 많아지는 관측 가능한 과학적 발견들은 현재가 과거의 열쇠가 아님을 드러내고 있다

. 층상 지층, 협곡 및 기타 지질학적 과정의 급속한 형성은 대재앙적 사건 동안 여러 차례 관찰되어 왔다. 사실, 다양한 크기의 입자들이 화산 활동이나 거대한 물의 흐름에 의해 이동될 때마다, 이들은 입자 크기, 무게, 밀도에 따라 빠르게 층상 지층으로 분리된다. 더 큰 입자들은 지층의 바닥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더 작은 입자들은 대개 위쪽에 자리 잡게 된다. 하버드 대학의 지질학자 앨런 조플링(Alan Jopling)은 “... *현장 관찰과 실험 모두를 통해, 퇴적물로 구성된 층상 구조가 일반적으로 수초 또는 수 분 내에 물의 흐름에 의해 퇴적된다는 사실적 증거가 있다*” 고 밝혔다.⁷

1980년 5월 18일 워싱턴주 세인트 헬렌스 산의 분화와 그 여파로 발생한 지질학적 사건들은 연구자들에게 과학적으로 관찰된 수많은 지질학적 과정을 제공했다. 제4장에서는 세인트 헬렌스 산에 대해 다루겠다. 지금은 단지, 이러한 관측된 사건들이 지층이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다는, 한 번도 관측된 적 없는 주장과는 대조적으로, 단시간 내에 급속히 형성될 수 있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드러냈다는 점만 지적하고자 한다.⁸ 다시 물겠다. 팬에 기름을 채우는 데 얼마나 걸렸는가?

퇴적암 층은 지구 지각의 약 78%를 차지하며, 이 중 67%는 이암입니다. 세속적 교육을 받은 지질학자들은 이 **이암들을** 전 지구적 대홍수에 반하는 증거로 삼아, 대홍수 동안 지구가 겪었을 급격한 물의 흐름이 이전에 퇴적된 층들을 모두 교란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잘못된 가정에 근거하여, 세속 지질학은 점토 입자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잔잔한 수역의 바닥에 서서히 그리고 균일하게 가라앉아 이암을 형성했다고 가르쳐 왔다.

다시 한번, 우리는 가정에 기반한 관측되지 않은 서술이 과학적 사실인 양 포장되어 전달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러나 2007년, 이러한 ‘오래된 지구’에 대한 주장들은 운영과학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과학에 의해 반박되었습니다. 인디애나 대학교의 연구진은 일련의 실험을 통해 이암 지층의 축적 과정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염수와 담수 흐름 속에서 여러 종류의 진흙을 테스트한 결과, 이암 지층이 빠르게 흐르는 물속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이 밝혀졌습니다!¹⁰

창세기 1~3장에 나오는 **성경적 관점**은, 아담의 원죄가 세상을 타락시키기 전까지 하나님의 원래 창조물이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그 후, 인간의 지속적인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약 4,500년 전 노아 시대에 전 지구적 대홍수를 통해 당신의 창조물을 멸망시키셨습니다. **물이 땅 위에 심히 넘쳐흐른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덮였습니다. 물이 15 규빗이나 더 높아져 산들까지 덮였다**(창세기 7:19-20).

온 천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들이 물에 잠겼던 1년 동안의 대홍수 이후의 흔적은 상당히 의미심장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지구의 외각 지각은 주로 퇴적암 층으로 이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퇴적암 층의 퇴적물들은 이를 퇴적시킨 흐르는 물에 의해 입자 크기, 무게, 밀도에 따라 분리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퇴적층 사이에 상당한 규모의 용암 흐름이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나아가 그 층들에는 썩어 없어지거나 박테리아, 벌레, 기타 청소동물에게 먹힐 시간조차 없이 순식간에 매몰된 식물과 생물의 화석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관찰할 수 있을까요? 지구의 외각 지각은 평균 1마일 두께의 퇴적암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퇴적암을 구성하는 퇴적물들은 이를 퇴적시킨 흐르는 물에 의해 입자 크기, 무게, 밀도에 따라 분리되었습니다.

이 층들 사이에는 용암류가 끼어 있으며, 너무 빨리 매몰되어 썩어 없어지거나 청소동물에게 먹힐 시간이 없었던 수십억 개의 식물과 생물 화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매몰되어 썩어 없어지거나 청소동물에게 먹힐 시간이 없었던 식물과 생물의 화석이 수십억 개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캄의 면도날**(가정을 가장 적게 하는 설명이 더 복잡한 설명보다 낫다는 원칙).

세속적인 교과서들은 암석층에서 발견되는 화석과 석화된 통나무가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는, 관찰된 바 없는 이야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급속 화석화의 많은 사례가 관찰되었습니다.¹¹ 울타리 기둥, 모자, 물레방아 등이 70년도 채 되지 않아 돌로 변한 것으로 알려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화석이 되려면 박테리아, 벌레, 곤충 또는 다른 동물이 이를 먹어치우거나 산소나 화학 물질로 인해 부패해 버리기 전에 신속하게 매몰되어야 한다. 매몰되면 지하수에 의해 용해되어 운반된 방해석(탄산칼슘)이나 실리카(이산화규소)와 같은 광물이 뼈, 이빨, 식물 조직을 서서히 대체합니다. 이로 인해 광물이 대체한 뼈, 이빨, 식물의 형태를 닮은 화석이 남게 됩니다.¹²

대부분의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년*이라고 믿으며, 대홍수를 부정합니다. 이는 그들이 세속 학교에서 다음과 같이 배웠기 때문입니다. “*사실 시간은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시간 그 자체가 기적을 행한다*”¹³ 전 지구적 대홍수는 퇴적층이 어떻게 빠르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며, 지질 연대표와 그 안에 담긴 오래된 지구 이론을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진실 때문에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전 지구적 대홍수를 맹렬히 부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년이라는 시간이* 사라진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과학 교육을 대체한 세속적 세뇌와, 과학적 연구를 훼손하는 세속적 위협의 결과이다. 예를 들어, 1999년에는 물고기가 진화하기 5억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에서 길이 1인치짜리 물고기 화석이 발견되었다!

이 화석은 다윈주의 생물학, 현대 지질학(대홍수 부인), 그리고 지질 연대표의 역사적 서사를 뒤흔들었다. 세속 과학자들의 반응에 대해 중국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불평했다. “중국에서는 다윈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우리 정부는 비판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정부를 비판할 수는 있지만 다윈은 비판할 수 없다.”¹⁴

지구의 연대에 관해 말할 때, 현재는 결코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된 적이 없다. 오히려 노아 시대에 일어난 대홍수가 지구의 지질학과 우리 행성의 연대를 이해하는 열쇠이다. 18장에서 소개될 대홍수의 시각화는 관측 가능한 사실과 부합하는 성경적 관점을 통해 우리 행성의 많은 지질학적 특징을 설명해 줄 것이다.

전 지구적 대홍수는 지질 연대표를 무효화하며, 다음 장에서 밝히겠지만, 그 악명 높은 지질 연대표야말로 방사성 연대 측정 기법이 제시하는 연대들이 선별되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지질학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에 대한 귀하의 발표는 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 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애리조나주(AZ)의 돈



3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

“(기독교에 대한) 혁명은 지구가 6,000년 전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오래되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눈사태를 일으킨 눈덩이와 같았습니다.”¹⁵

전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 에른스트 마이어

제가 노던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몇 차례 강의를 한 후, 한 교수가 저와 성경적 창조론을 공격하는 정식 인정 과정을 개설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기독교 대학 교수였고, 자신은 고등학교 시절 기독교 동아리 회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대학에 진학한 후, 지구가 46억 년되었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오래된 지구론은 아담 이전에 죽음이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성경적 토대, 즉 ‘**COST**’를 훼손합니다. COST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이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창조주와 **분리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다는 교리입니다. 따라서, 인류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고 보는 오래된 지구론을 받아들이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리게 됩니다. 이 교수는 수백만 명의 희생자 중 한 명이다.

세속 언론, 학교, 과학계 주류가 부추기는 대중의 인식은,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철통같은 증거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방사성(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 기법은 내가 ‘오래된 지구 신념의 여섯 기둥’이라 부르는 것 중 또 하나를 구성한다. 긴 세월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믿음을 뒤엎는 혁명을 촉발한 눈덩이와 같으므로, 이 장에서는 이러한 기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 신뢰성을 평가하며, 46억 년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밝혀볼 것이다. 세속적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방사성 원소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된다는 것은 관찰 가능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방사성 물질은 모원소이며, 이가 붕괴되면서 소위 딸원소라고 불리는 물질을 생성합니다.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사용되는 원소 조합은 약 50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칼륨-아르곤, 루비듐-스트론튬, 우라늄-납, 토륨-납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 암석 내 모원소와 딸원소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도 갖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원소인 우라늄-238은 딸원소인 납-206으로 붕괴됩니다. 현재 모원소가 딸원소로 붕괴되는 알려진 속도와 암석 내 모원소 및 딸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결과를 바탕으로, 암석의 대략적인 연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히 말해, 다양한 방사성 연대 측정 기법은 현재의 딸 원소 양이 형성되는 데 걸린 시간을 나타냅니다. **이는 시간의 측정이 아니라 방사성 붕괴의 측정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연대 측정법들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각 방법에서는 연대 측정을 받는 암석의 연대를 산출하기 위해

가정이라 불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야만 연대가 측정되는 암석의 나이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추측들은 다양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제공하는 연대의 타당성을 훼손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신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라늄-납 연대 측정법이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 하나이므로, 이 논의에서는 이를 예로 들겠습니다. 이러한 연대 측정 기법들은 주로 화성암에 사용됩니다.

우라늄-238이 납-206으로 붕괴된다는 것은 관찰 가능한 사실이다.¹⁶ 또한, 연대 측정을 받는 암석 내 모원소와 딸원소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 게다가 오늘날 우라늄-238이 납-206으로 붕괴되는 속도는 관측 가능한 과학적 방법을 통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과학은 한계에 부딪히고**, 관측되지 않은 가정들이 개입하여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훼손한다.

예를 들어, 관찰되지 않은 가정 중 하나는 암석이 형성될 당시에는 딸 원소(이 예에서는 납)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암석에 부여된 연대는 딸 원소가 형성되는 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만약 처음부터 암석에 납이 존재했다면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는 암석의 실제 연대보다 수 *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 더 오래된 것으로 나올 것이다.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추측들이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를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할까요? 지난 60년 동안 가장 널리 사용된 방법은 칼륨-아르곤 연대 측정법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연구소들은 딸 핵종인 아르곤이 새로 형성된 암석에도 종종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암석에 부여된 연대는 딸 물질이 형성되는 데 걸린 시간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연대 측정법은 두 세대에 걸쳐 지구가 *수십억 년*이나 되었으며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에 이미 죽음이 존재했다고 믿게 만드는 데 이용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검증되지 않은 가정은 오염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모원소와 딸원소는 열, 압력, 수분, 지진 등의 영향으로 암석에 추가되거나 손실될 수 있다. 어떠한 오염이라도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를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어긋나게 만들 수 있다.

모든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관찰되지 않은 추측은, 오늘날 관측되는 다양한 모원소의 붕괴 속도가 항상 동일했다는 믿음(균일성)입니다. 일부 연구에서 이 추측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붕괴 속도가 균일했다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이 틀렸다면,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제시하는 연대는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이나* 어긋나게 됩니다.

두 가지 추가적인 가정은, 지구의 층리를 빠르게 형성한 전 지구적 대홍수가 결코 없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법에는 몇 가지 과학적 사실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방사성 연대 측정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점은 그것이 비과학적이고, 신뢰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편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사성 연대 측정 기법이 여러 가지 관찰할 수 없는 가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서로 다른 동위원소 측정법이 특정 암석에 대해 종종 매우 광범위한 연대 범위를 제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놀랍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랜드 캐년의 카르데나스 현무암 용암은 칼륨-아르곤 연대 측정법으로는 5,100만 년으로 측정된 반면, 사마륨-네오디뮴 연대 측정법으로는 17억 년으로 측정되었습니다.¹⁷ 이러한 엄청난 불일치는 흔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표된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가, 제가 이전 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미** 여러 차례 반박된 **‘지질학적 시간 척도’**와 일치하는 **연대**가 도출되면 그 결과가 선택되는 이유입니다.¹⁸

방사성 연대 측정 기법으로 산출된 연대가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는 데 기반을 둔 ‘지질 연대표’와 일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면, 전 지구적 대홍수가 세계관 전쟁의 핵심 축인 이유를 깨닫게 될 것이다.²⁶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은 방사성 연대 측정 기법이 지각의 암석층과 같은 퇴적암이나 그 안에 포함된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방사성 연대 측정 기법은 주로 화성암에 사용된다.

퇴적암 층은 그 안에 포함된 화석을 통해 연대가 측정되며, 화석은 어떤 층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따라 연대가 측정되는데, 이 모든 과정은 지질 연대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²⁵ 예를 들어, 1972년에 다윈주의자들이 멸종된 인류 종으로 간주하는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의 두개골이 이미 2억 3천만 년 전으로 연대가 측정된 지층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지질 연대표와 다윈주의적 신념 모두를 뒤흔들 수 있었기 때문에, 해당 지층의 연대는 180만 년으로 수정되었고, 그 두개골은 하등한 유인원 형태로 재분류되었다. 이는 오래된 지구 신념의 근원이 되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질 연대표에 부합시키기 위해 행해진 조치였다.

세속주의자들이 언론과 과학 및 교육 기관을 장악하고 있지만,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과학은 신자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를 발휘하여, 관찰에 기반한 과학과, 과학적 사실인 양 제시되는 관찰되지 않은 그릇된 주장 및 무분별한 추측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지식)의 반대론들을** 피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를 표방하다가 믿음에 있어 잘못을 범했습니다**(디모데전서 6:20-21).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방사성 연대 측정법은 인류의 잘못된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어 타락해 있으며(베드로후서 3:3-6을 성취함), 지각의 퇴적층은 하나님의 전 지구적 대홍수 심판 동안 물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하나님의 지혜는 다시 한번 인간의 제한된 지식을 능가합니다. **오캄의 면도날**.

탄소 연대 측정법은 가장 잘 알려진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이다. 탄소 연대 측정법에서는 유기물 잔해, 즉 식물이나 동물의 유해에 포함된 탄소-14의 양을 측정합니다. C-14는 우주선이 대기권에 진입하여 고속 중성자를 생성할 때 지구 대기권에서 생성됩니다. 이 중성자들은 질소-14 원자와 충돌하여 N-14를 방사성 C-14 원자로 변화시킵니다.²⁰

광합성 과정에서 식물은 미량의 C-14를 포함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합니다. 한편, 동물은 먹이를 섭취하거나 호흡을 할 때 C-14를 흡수합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죽으면 C-14 흡수가 중단되고, C-14는 점차 N-14로 다시 붕괴됩니다. 오늘날 C-14의 붕괴 속도는 이미 확립되어 있으며, 우리는 유기 유해에 포함된 C-14의 양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 과정은 복잡하지만, 이번 논의를 위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유해에 포함된 C-14가 적을수록 그 유해의 연대는 더 오래된 것으로 측정된다(다시 말해, 이는 시간의 측정이 아니라 방사성 붕괴의 측정이다).

표면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근거 없는 가정들이 탄소 연대 측정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기술자들은 검사 대상인 유기 잔해가 오랫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으면서도 C-14의 증가나 손실로 인해 오염된 적이 전혀 없었다고 가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분, 열, 압력 및 기타 조건들은 각각 오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유기 물질에 부여되는 연대는

그 안에 발견된 C-14의 양에 기초하기 때문에, 오염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면 탄소 연대 측정 절차의 신뢰성이 훼손된다.

탄소 연대 측정의 또 다른 잘못된 가정은 오늘날 대기 중 C-14 생성 속도가 항상 동일했다는 것(균일성)이다. 만약 이 가정이 틀렸다면, 모든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완전히 부정확해지며, 1850년대 이후 지구의 자기장이 6% 이상 약화되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다(다시 한번, 현재가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의 자기장이 오늘날보다 더 강했음을 의미합니다. 더 강한 자기장은 많은 우주선이 대기권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했을 것이며, 이로 인해 과거의 C-14 생성량과 총량이 감소했을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은 오늘날의 후손들보다 더 적은 양의 C-14를 섭취했을 것이며, 체내의 C-14 비율도 더 낮았을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에 살았던 생명체들은 실제 나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것으로 탄소 연대 측정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탄소 연대 측정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나무 나이테 연대 측정법(연륜학)이 종종 활용된다. 이 경우, 인정받는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탄소 연대 측정법보다는 나무 나이테를 세는 데서 비롯된다. 그러나 과학적 연구를 통한 해에 여러 개의 나이테가 형성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듯이, 나무 나이테 연대 측정법에도 자체적인 문제가 있다! ²⁴ 세상에!

많은 연구자들은 2,500년 미만의 유기물 유적에 대해서는 탄소 연대 측정이 잘 작동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아마도 알려진 역사적 사건에 맞춰 연대를 보정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탄소 연대 측정 결과는 탄소 연대 측정 방법보다는 역사적 기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한편, 탄소 연대 측정법은 성경적 세계관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탄소 연대 측정 장비를 운영하는 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측정 가능한 양의 C-14가 10만 년도 채 되지 않아 감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붕괴된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층, 석탄층 및 기타 유기물 시료에서 C-14가 발견되었습니다.²¹ 세속주의자들은 이들이 수백만 년전의 것이라고 말하지만, 증거는 10만 년도 채 되지 않은 창조를 뒷받침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세속 지질학자들이 약 5억 7천만 년 전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상당한 양의 화석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하층 지층인 캄브리아기 지층에서도 여전히 측정 가능한 양의 C-14가 검출된다는 점이다. 이는 캄브리아기 지층의 나이가 10만 년 미만임을 의미한다!²²

더 놀라운 사실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화석이 포함된 모든 지층에 C-14가 함유되어 있으며, 최상부 지층부터 캄브리아기 지층에 이르기까지 그 양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C-14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되므로, 이 발견은 이러한 모든 지층이 동일한 대재앙적 사건 동안 형성되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²³

지질 연대표에 따르면 수백만 년전의 물질에서 C-14가 검출된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해당 물질이 C-14로 오염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방사성 연대 측정 결과는 오염이 결코 발생하지 않았다는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이는 매우 위선적인 주장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래된 지구 연대 측정법과 관련된 온갖 엉터리 주장들을 고려할 때,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46억년이라는 지구의 연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놀랍게도, 이 수치는 **운석의 연대 측정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¹⁹ 그런데 그 운석들이 언제, 어디서 형성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세상에나!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전 지구적 대홍수가 수천 년 전에 지구의 퇴적암 층을 형성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물에 의해 운반된 퇴적물 전반은 물론, 석유, 천연가스, 석탄 매장지에서도 C-14의 양이 비슷한 범위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관찰된 결과도 정확히 그렇습니다! 진정한 과학은 신자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오캄의 면도날.

아무도 오랜 세월에 걸쳐 무언가가 형성되는 것을 관찰한 적은 없지만, 층상 지층, 협곡, 미래의 석탄층 등은 단 몇 분 만에 형성되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이 *이 눈사태를 촉발한 ‘눈덩이’의 잔여물을 모두* 녹여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참고: 1975년부터 2005년까지, 탄소 연대 측정 전문가로 여겨지던 프랑크푸르트 대학교의 한 교수가 36,000년 전으로 추정되는 가장 오래된 인류 유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수백만 명을 오도한 끝에, 그는 탄소 연대 측정 장비를 다루는 법조차 몰랐으며, 단지 연대를 지어냈다는 사실이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그가 사용한 유골 중 하나는 1750년에 사망한 남성의 것이었습니다!²⁷ 그러니 거짓 지식에 주의하십시오! (디모데전서 6:20-21).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제 믿음을 흔들었던 유일한 것은 성경과 학교에서 배운 진화론 및 수백만 년에 대한 내용을 조화시키려 애쓰는 것이었습니다. 당신만큼 정직하고 간결하게 진리를 보여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당신의 영상들이 제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해주었습니다!” 오리건 주(OR)의 메리



4

지상의 황폐함: 세인트 헬렌스 산 (Mount St.)

오라,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라, 그가 땅에 어떤 황폐함을 일으키셨는지.

시편 46:8

세인트 헬렌스 산은 1980년 5월 18일에 분화하여, 역사상 가장 **과학적으로 관측된 대재앙적 지질학적 사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비교적 작은 화산의 분화와 그 후 이어진 사건들은 지질학적 지형이 단 몇 분 또는 몇 시간 만에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28, 29} 이러한 관측된 사건들은 지난 150년 동안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져 온, 관측되지 않은 세속 지질학의 서술과 정면으로 상충된다. 다음은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과학적으로 관측된** 지질학적 사건에 대한 성경적 설명과 세속적 설명의 비교이다.

지층으로 이루어진 퇴적암 층은 지구 지각의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세속적 관점**은 지층이 전 지구적 대홍수 기간 동안 빠르게 형성된 것이 아니라, 관측된 적이 없는 수백만년에 걸쳐 느리고 균일하게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는 베드로후서 3:3-6에 나오는 마지막 날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2장 참조). **성경적 관점**은 노아 시대에 일어난 1년 동안의 전 지구적 대홍수가

지구의 원래 지각을 침식하고, 퇴적물을 입자 크기, 무게, 밀도에 따라 분리시킨 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층상 구조를 형성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인트 헬렌스 산을 통해 연구자들은 미세하게 층을 이룬 퇴적층이 불과 몇 분 또는 몇 시간 만에 형성되는 *세 가지 다른* 방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³⁰ 첫째, 시속 200마일 이상의 속도로 화산 분화구에서 쏟아져 나온 유출물에 의해 두께 25피트의 미세하게 층을 이룬 퇴적층이 불과 몇 분 만에 형성되었다. 둘째,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공기 낙하 퇴적물이 몇 분에서 며칠 사이에 일부는 수백 피트 깊이에 달하는 미세 층리층을 형성했다. 그 후, 분화 초기에 형성된 흙 댐이 무너져 진흙물이 틈새를 통해 쏟아져 나오면서 진흙 흐름이 몇 시간 만에 지층을 형성했다.

이후 연구들은 “*이암은 일반적으로 가정되던 것보다 더 격렬한 조건에서 퇴적될 수 있으며, 이는 많은 지질 기록에 대한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고 결론지었다.³¹

석탄층은 종종 암석층에 의해 분리된 상태로 발견된다. 이것이 바로 석탄이 종종 노천 채굴 방식으로 채굴되는 이유이다.³² **세속적** 관점에 따르면, 석탄층은 늪에 이탄이 서서히 축적되면서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형성되었다. 그 후 해당 지역이 서서히 융기하면서 늪의 물이 배수되었고, 이탄이 노출된 채 그 위에 퇴적층이 서서히 형성되었다. 그 후 *수백만 년에* 걸쳐 그 지역이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암석층 위에 또 다른 늪이 형성되었다. 세속주의자들은 이러한 과정이 *수억 년* 동안 계속되어 암석층으로 분리된 석탄맥이 남게 되었다고 믿는다. 석탄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대홍수 기간 동안 막대한 양의 식물이 뿌리째 뽑혀 지름 1,500마일 이상의 거대한 유기물 파편 뗏목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나무 줄기들은 서로 마찰하며 껍질과 가지, 잎사귀 및 기타 식물들을 으깨면서

뗏목이 떠내려가는 동안 나무 줄기들은 서로 마찰하며 껍질, 가지, 잎 및 기타 식물들을 분쇄했습니다. 동시에, 물에 흠뻑 젖은 유기물 파편들은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그곳에서 흘러내리는 퇴적물에 빠르게 덮여 훗날의 석탄층을 형성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은 연구자들이 대재앙적인 수성 사건으로 인해 석탄층이 어떻게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지 관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화산 폭발 당시, 스피릿 호수는 쓰러진 나무들로 뒤덮였습니다. 그 후, 나무들이 물 위에 떠다니면서 줄기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나무껍질, 가지, 잎을 부수었습니다. 물에 흠뻑 젖은 유기물 파편이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자, 곧 호수로 유입된 퇴적물에 덮여 훗날 석탄층을 형성했습니다. 이러한 과학적으로 관찰된 과정은 석탄층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석탄에 관한 사실 1: 석탄을 함유한 *석탄기 지층*에 대한 **세속적 설명**은 이 지층이 약 2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10만 년 이내에 붕괴되어야 할(‘탄소 연대 측정: 3장’ 참조) 측정 가능한 양의 C-14가 석탄기 석탄층에 존재한다. 게다가, 석탄을 함유한 각 지층에서 채취한 석탄 시료에는 여전히 C-14가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각의 암석 지층과 그 안에 있는 석탄층이 지난 수천 년 이내에 형성되었다는³³ 강력한 증거이며, 약 4,500년 전 대홍수 동안 석탄과 지층이 형성되었다는 **성경적** 관점과 일치한다.

석탄 사실 2: 아래쪽 석탄층에서 시작하여 위쪽 암석층을 관통하고, 상부 석탄맥으로 이어지는 **분기형 석탄층**이 발견된다.³⁴ 분기형 석탄층에 대한 **세속적 해석**은, 석탄층 사이의 암석층이 파열되었으나, 파열부 위나 아래의 취약한 석탄맥은 깨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이탄이 균열을 메워 분기형 석탄층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은, 유기물 파편으로 이루어진 떠다니는 매트가

바람이나 조수의 영향으로 방향을 바꾸었을 때, 방향 전환 지점에서 가라앉은 식물 잔해가 퇴적물 흐름 속에 갇히면서, 아래쪽 석탄층에서 시작하여 위쪽 암석층을 관통하고 상부 석탄층으로 이어지는 미래의 가지 모양 석탄층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화석은 지각의 퇴적층에서 발견됩니다. **세속적 관점**은 화석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35, 36} **성경적 관점**은 식물과 동물이 전 지구적 대홍수 동안 빠르게 매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기물 잔해들은 이후 물이 포화 상태이고 미네랄이 풍부한 층에서 급속히 화석화되었습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은 층리 구조가 빠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 화산 폭발로 인해 형성된 미세한 층리 구조가 이미 그 재앙적 사건의 희생양이 된 식물과 동물의 유해를 포함하는 암석으로 굳어져, 화석화가 불과 몇 년 만에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³⁷

화석에 관한 사실: 지난 100년 동안 빠르게 화석화된 것으로 알려진 수많은 사례들은 다양한 조건 하에서 화석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대홍수 말기에 풍부했던 물과 용해된 광물들이 대개 필요하다.

다층 화석은 여러 지층을 수직으로 관통하고 있다.³⁸ 나무는 물론 물고기의 다층 화석도 발견되는데, 일부 나무는 거꾸로 묻혀 있다. 이러한 화석에 대한 **세속적 견해**는 제각각이다. 때로는 나무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자랐다가, 오랜 세월이 걸쳐 지역적 대재앙이 발생하여 주기적으로 매몰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때로는 관찰된 사건들을 근거로, 대재앙이 나무를 순식간에 매몰시켜 화석을 형성했다고 인정하기도 한다. 다층에 걸쳐 발견되는 물고기 화석은 수중 산사태로 매몰된 것으로 치부된다. **성경적 관점**은

대홍수 기간 동안 유기물 잔해들이 빠르게 매몰되었으며, 종종 여러 층을 관통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홍수 기간과 그 이후, 뿌리가 뽑힌 나무들은 홍수 물 표면과 홍수 이후의 바다, 그리고 홍수 이후의 호수 위에서 수평으로 떠다녔다. 떠다니던 나무들이 물에 흠뻑 젖으면서 무거워지자, 더 무거운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똑바로 세워진 자세로 바뀌었다. 결국, 수직으로 떠 있던 통나무는 바닥으로 가라앉았으며, 일부는 거꾸로 가라앉기도 했다. 이 통나무들은 이후 흐르는 퇴적물에 의해 빠르게 매몰되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직 다층 나무 화석이 되었다. 나무들이 각기 다른 시기에 가라앉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층에 매몰된 채 발견된다.

홍수 이후의 진흙 흐름 또한 일부 다층 나무 화석을 빠르게 형성했습니다.

참고: 이 정보를 알게 되기 훨씬 전에, 옐로스톤 국립공원의 스펙시멘 릿지(Specimen Ridge)를 방문한 후 무신론자가 된 전직 목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26개의 서로 다른 층에서 수직으로 서 있는 석화된 나무들이 발견됩니다. 공원 측에서는 수억 년에 걸쳐 26개의 서로 다른 숲이 자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이 지층들에서 발견된 나무들을 연구한 결과, 건조한 해, 습한 해, 산불이 발생한 해를 나타내는 동일한 나무 나이테 패턴이 확인되어, 이 나무들이 동시에 자랐음을 입증하며, 이는 다층 화석에 대한 **성경적 관점**과 일치합니다.

화산 폭발은 다층 화석과 이를 관통하는 지층이 급속도로 형성될 수 있다는 관찰 가능한 증거를 드러냈습니다. 폭발 당시 인근 스피릿 호수는 쓰러진 나무들로 뒤덮였습니다. 이 나무들은 물에 젖으면서 무거운 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수직 자세로 뒤집혀 떠다녔습니다. 나중에 이 나무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호수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그곳에서 다양한 깊이의 유입된 퇴적물에 의해 수직 자세 그대로 매몰되었다. 오늘날 스피릿 호수 바닥에는 약 50,000그루의 수직으로 선 나무들이 널려 있다.³⁹ 그 후, 대규모 진흙 흐름 또한 이 지역에서 다층 화석과 층상 지층을 빠르게 생성했다.

협곡. 협곡에 대한 **세속적 관점**은, 협곡이 물(주로 강)에 의한 침식으로, 관찰할 수 없는 수백만년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깎여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협곡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홍수 물이 퇴적층을 쌓아 올린 후, 그중 일부를 침식하여 깎아냈다는 것이다. 대홍수 물이 육지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간 후, 빙하기 말기에 빙하가 녹으면서 발생한 대규모 유출수(6장 참조)가 흐르면서 수로를 깎아내어 오늘날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주요 협곡을 형성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은 물과 진흙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협곡이 얼마나 빠르게 형성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1982년 3월 19일, 화산 활동의 분출 단계에서 형성되었던 흙 댐이 붕괴되었다. 붕괴된 틈을 통해 쏟아져 나온 거대한 물과 진흙의 흐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리틀 그랜드 캐년*’을 깎아냈다. 이 협곡은 길이가 1마일 이상, 깊이가 160피트, 폭이 1,000피트에 달한다.⁴⁰

용암 흐름. 용암 흐름에 대한 **세속적 관점**은 오늘날의 화산 활동 속도가 과거 활동 속도의 핵심 지표이며, 방사성 연대 측정 기법을 통해 관찰할 수 없었던 과거에 발생한 용암 흐름의 연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지각의 퇴적층 내에서 발견되는 용암류는 전 지구적 대홍수 기간에 형성된 것으로, 이 홍수로 인해 지구는 대규모 지각판(대륙) 활동을 겪게 되었다. 또한, 대홍수가 끝날 무렵 지각이 격렬하게 요동쳤기 때문에, 대홍수 이후 첫 1,200년 동안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화산 분화가 발생했다.

세인트 헬렌스 산은 용암 흐름에 대한 방사성 연대 측정이 완전히 신뢰할 수 없음을 드러냈다.⁴¹ 분화 후 용암 돔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관찰된 암석은 동위원소 연대 측정 결과 최대 290만 년전의 것으로 나타났다(참조: 방사성 연대 측정 - 제3장).

하나님께서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관찰된 지질학적 대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비교적 작은 화산은 지층, 석탄층, 협곡, 화석 등의 형성이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세속주의자들이 교육 및 과학 기관을 장악하고 있다. 그들의 세계관 전체는 지질학적 과정이 빠르지가 아니라, 특히 전 지구적 대홍수(베드로후서 3:3-6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 기간 동안에도 오랜 세월에 걸쳐 균일하게 진행된다는, 관측된 바 없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불가능한 일을 가능해 보이게 하려면 *수십억 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속적 편향에 물든 ‘오래된 지구’에 대한 서사는 여전히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지고 있는 반면, 그들의 세계관을 반박하는 압도적인 증거들은 은폐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 과학이라 불리는 것을* 조심하십시오(디모데후서 6:20-21).

지구의 지질학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발생했을 때 과학적으로 관측된 지질학적 사건들과 일치합니다. 다시 한번, 실제 관측에 기반한 과학은 믿는 자의 진정한 친구임이 입증되며,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둘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오캅의 먼도 날**.

“저는 갭 이론을 가르치는 기독교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당신이 이 비성경적인 사상을 반박하는 데 단 5분밖에 걸리지 않았네요! 진리를 알게 되어 정말 기쁘지만, 기독교 대학과 제 교회가 그런 비성경적인 헛소리를 조장한다는 사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플로리다주 배리



5

그랜드 캐니언과 ‘그랜드 , 계단

회의론자: 그랜드 캐니언이 전 지구적 대홍수의 결과라면, 왜 온 세상에 그랜드 캐니언이 없는 것입니까? 러스: 강이 수백만 년에 걸쳐 거대한 협곡을 깎아냈고,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이라면, 왜 온 세상에 그랜드 캐니언이 없는 것입니까?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장에서 논의하겠지만, 그 협곡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련의 상황이 필요했다는 점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은 ‘오래된 지구’ 신념을 지탱하는 여섯 가지 기둥 중 하나입니다. 애리조나 북부의 그랜드 캐니언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900입방마일 이상의 퇴적물이 깎여 나갔습니다. 세속 과학자들은 현재 콜로라도 강이 협곡 밖으로 운반해 나가는 퇴적물의 양을 측정하고, 과거의 침식 속도도 이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가정(균일설)함으로써, 강이 이 협곡을 형성하는 데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랜드 캐니언의 형성 과정에 대해 가장 널리 알려진 두 가지 ‘관측되지 않은’ 설명은 이미 수년 전부터 과학적으로 반박된 바 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그 협곡을 깎아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 주요 걸림돌은, 강이 협곡 가장자리보다 약 1마일 아래 지점에서 협곡으로 유입되는데, 물은 오르막을 따라 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강이 어떻게 협곡을 침식했는지 설명하기 위해, 균일설에 치우친 연구자들은 ‘고대 강 이론’(Antecedent River Theory)을 제시했다.⁴² 이 가설은 물의 흐름이 협곡을 가로지르는 카이밥 고원(Kai-bab Plateau) 또는 용기 지대가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용기하는 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협곡을 침식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라 할 수 있다! 거의 한 세기 동안 사실로 가르쳐져 왔지만, ‘고대 강’ 이론은 1960년대 이후로 과학적으로 철저히 반박되어 왔다.⁴³

‘고대 강’ 설에 내재된 수많은 문제점 중 하나는 와사치 지층이 이미 형성된 카이밥 용기부의 측면에 퇴적되었다는 점이다. 와사치 지층이 용기부(카이밥 고원)의 지층과 함께 용기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사건 발생 순서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와사치 지층이 용기 현상이 발생한 후에 퇴적되었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카이밥 용기대를 가로질러 그랜드 캐년을 형성한 사건은 용기된 지층과 수평으로 놓인 와사치 지층을 모두 깎아내렸다. 이는 카이밥 용기대가 먼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와사치 지층이 그 옆으로 퇴적되었으며, 그 후에 캐년을 침식한 사건이 뒤따랐음을 증명한다. 내가 자주 말하듯이, 진정한 과학은 신자의 진정한 친구이다. 안타깝게도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이 ‘고대 강’ 이야기에 의해 오도되어 왔다.

다음으로 등장한 것은 ‘하천 포획설’ 또는 ‘조기 협곡설’이다. 이 이야기는 타당한 가설이라기보다는 희망적인 변명에 가깝다. 어쨌든 그랜드 캐니언은 ‘오래된 지구’ 신념의 여섯 기둥 중 하나이므로, ‘오래된 지구’ 신념을 숭배하는 이들은 그 협곡이 빠르게 형성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여유가 없다. 비록 이 이야기가 현재

그랜드 캐년의 형성에 대한 ‘오래된 지구론’의 변명은, 아무리 봐서라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전설에 따르면 콜로라도 강이 한쪽 방향에서 천천히 협곡을 침식하는 동안, 빗물이 유수되어 업워프(Upwarp) 반대편에 있는 협곡을 서서히 침식했다고 한다. 결국 두 협곡은 카나브 크릭(Kanab Creek)에서 만나 하나로 합쳐져 그랜드 캐년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랜드 캐년에서 래프팅 투어를 직접 이끌어 본 경험자로서, 나는 이 이야기가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접 증언할 수 있다.

첫째, 두 침식 현상이 만나게 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점은 협곡의 장관을 이루는 2마일 길이의 직선 구간으로, 이곳의 암벽은 강변에서 700피트 이상 수직으로 솟아 있습니다. 이 가파른 암벽은 협곡이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니라, 지층을 곧바로 뚫고 내려간 거대한 물의 흐름을 통해 단기간에 깎여 나갔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카나브 크릭은 700피트 높이의 절벽에서 90도 각도로 방향을 틀고, 곧바로 천천히 흐르는 개울의 구불구불한 루프로 변합니다. 이는 개울 바로 옆에 700피트 높이의 협곡 벽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유속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게다가 우뚝 솟은 벽 어디에서도 두 개의 별개 침식 현상이 연결된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찰 가능한 증거들은 ‘하천 포획’ 설을 반박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정보를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그랜드 캐니언이 오랜 세월을 걸쳐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할 타당한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세속주의자들이 점진적 형성에 반하는 증거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을 방문해 본 적이 있다면, 공원 입구에서 나눠주는 안내 책자에서 ‘오래된 지구’를 주장하는 선전 내용을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마도 공원 관리원이 *수백만 년에* 대해 지껄이는 것을 들었거나, 청동 메달과 암석을 전시하며 ‘깊은 시간’을 선전하는 콘크리트 받침대가 설치된 림의 ‘지질학적 시간의 길(Geologic Trail of Time)’을 따라 하이킹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잘못된 역사적 서술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속여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거나 부정하게 만들었으므로, 이제 그랜드 캐니언과 이 지역의 지질 구조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이 지역에 대한 정직한 분석은 ‘오래된 지구’ 신념을 무너뜨리는 대홍수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그랜드 캐년이 가로지르는 카이밥 고원의 층상 지층은 물에 의해 퇴적된 퇴적층입니다. 이 층들에서는 해백합 줄기, 해면동물, 가리비, 조개, 팔족류와 같은 해양 화석들이 발견된다.⁴⁴ 암석 층들 사이에는 시간적 공백이 없다.⁴⁵ 예를 들어, 한 층이 그 위에 있는 층이 형성되기 전 수백만 년 동안 표면에 노출되어 있었다면, 하부 층 표면의 고대 암석에서 발생한 물의 침식, 식물 성장, 산성 물질의 용출 등의 증거가 나타나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간적 간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지층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형성된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찌그러진 미세한 폴로늄 후광을 살펴보겠습니다. 폴로늄은 방사성 동위원소이며, 폴로늄-210은 형성된 후 약 2년 동안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원소 주위에 색깔 있는 원을 형성하며, 2년 동안 석화되는 통나무나 굳어지는 암석에 갇히면 소위 ‘방사성 후광’을 만들어 냅니다. 그 위에 퇴적된 층에 의해 눌러 길쭉한 모양으로 변형된 원형 후광들이 콜로라도 고원의 쥬라기, 트라이아스기, 에오세 지층에서 발견된다. 그러나 눌린 후 원형 패턴이 다시 형성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질 연대표에 따라 2억 5천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추정되는 지층들이 에너지가 여전히 방출되고 있던 2년이라는 기간 내에 형성되었음을 증명한다.⁴⁶

그랜드 캐니언에 대한 ‘오래된 지구’ 이론을 난처하게 만드는 또 다른 주요 문제는 ‘불일치면’이라고 불리는 누락된 암석층들이다.⁴⁷ ‘아담 이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표준적인 오래된 지구 이론에 따르면, 최대 12억년에 달하는 누락된 암석층들은 현재 그 위에 존재하는 지층이 퇴적되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침식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전 지구적 대홍수 때문에 결코 아니다! 또한 그랜드 캐년의 여러 지층 사이에서 발견되는 불일치면이 여러 개 있다.

그중 한 불일치면은 그랜드 캐년의 지층 형성에 대한 **세속적 설명**에 특히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 바로 **3억4천만 년**전으로 추정되는 레드월 석회암이, **5억5백만 년**전으로 추정되는 무아브 석회암 위에 놓여 있는 지점이다. 이 둘 사이에는 템플 버트 지층을 포함하여 **1억6,500만 년**이상의 다른 지층이 누락되어 있다고 한다. 이 점은 레드월 층과 무아브 층이 만나는 여러 지점에서 두 층의 암석 물질이 서로 층간 교호되어 섞여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두 층이 차례로 퇴적될 당시 모두 액화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관찰 가능한 사실들은 그랜드 캐년의 층상 암석층이 점진적으로 형성되었다는 주장에 반박하는 확고한 증거입니다.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대홍수의 물이 퇴적물을 층상 구조로 만들고 빠르게 층을 형성했으며, 아직 형성 중인 폴로늄 후광을 압착시켜 미래의 암석층 사이에 시간적 간극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1년 동안 이어진 대홍수 기간 내내, 거세게 밀려오는 물은 층을 형성했다가 다시 휩쓸어 갔습니다. 일부 층은 제거된 반면, 다른 층들은 부동층으로 매몰되었으며, 때로는 한 층이 다른 층 위에 퇴적되는 교호층을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오캄의 면도날**.

층이 형성된 후, 콜로라도 고원 아래에서 단층이 발생했다. 그 결과, 지층은

최대 약 4,000피트까지 융기되어 결국 그랜드 캐년이 깎여 나간 카이밥 융기대(Kaibab Upwarp⁴⁸)를 형성했다. 이 융기 현상은 캐년 벽에서 접혀 있지만 끊어지지 않은 암석층이 관찰됨에 따라 세속적 설명에 또 다른 딜레마를 야기했다. **세속적 관점**에서는 지층이 침강하여 과열된 후, 뜨거운 지층이 다시 지표면으로 밀려 올라오면서 접혀졌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용융 과정으로 인해 퇴적암이 변성암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여전히 퇴적암으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6장에서 더 자세히 논의하겠다).

그랜드 캐년의 형성에 대한 ‘**오래된 지구**’ 이론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가파르고 수직에 가까운 벽면과 협곡 바닥에 암석 파편이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는 협곡 가장자리에 서 있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파르고 수직으로 솟아오른 협곡 벽을 내려다보면, 그랜드 캐년이 오래전에 형성되었다면 침식과 붕괴로 인해 협곡 바닥에 거대한 암석 파편 더미들이 널려 있어야 했을 것이 분명해집니다.⁴⁹ 그러나 벽은 여전히 수직으로 솟아 있으며, 바닥에는 암석 파편이 거의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수직 절벽들은 이 심연이 급속도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하며, 암석 파편의 부재는 이 절벽들이 우리가 관찰할 수 없는 수백만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음을 드러낸다.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업워프(Upwarp)에서 발견되는 일부 퇴적층은 전 지구적 대홍수의 물에 의해 최근에 퇴적되었기 때문에 구부러져 있을 뿐 깨지지 않았습니 다. 이 퇴적층들은 홍수가 끝날 무렵 산들이 솟아오르고 계곡들이 가라앉았을 때 부분적으로만 굳어졌습니다.

이들 융기된 층들은 그 후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퇴적층으로 굳어졌으며, 일부는 최대 90도까지 접혀 있습니다. 이후 발생한 침식 현상이 업워프를 가로질러 뚫고 지나가,

그랜드 캐년의 붉은색, 분홍색, 베이지색 절벽을 남겼는데, 이는 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 지구적 심판과 성경의 진리를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오캄의 면도날**.

세계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대홍수에 대한 두 번째로 확실한 증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너무나 강력한 증거여서, 제가 한 불가지론자 과학자에게 이를 설명한 지 2주 만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랜드 캐년 투어 중 협곡 가장자리에서 강연을 합니다. 협곡 가장자리를 이루는 카이밥 석회암 위에 서서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캐년 아래를 내려다보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뒷받침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를 보고 싶다면, 여러분은 잘못된 방향을 보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지구론을 무너뜨리는 전 지구적 대홍수의 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는 그랜드 캐니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캐니언 가장자리 위쪽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시더 마운틴과 레드 버트는 카이밥 석회암 위로 900피트 높이로 솟아 있습니다. 이 버트들은 두께 600피트의 모엔코피 층과 두께 300피트의 친들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지층 모두 물에 의해 퇴적되었으며 한때 이 지역 전체를 덮고 있었으나, 몇 가지 잔존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깎여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이유는, 이 지층들이 애리조나 주 북부와 유타 주 남부, 그리고 동쪽의 페인티드 데저트에서 다시 이어지기 때문이다. 그랜드 캐니언에서 사라진 퇴적물의 양이 약 900입방마일에 달하는 반면, 이 사라진 지층들은 약 10,000입방마일에 달하는 물질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현재 우리가 콜로라도 고원이라고 부르는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홍수가 휩쓸고 지나갔을 때, 사라진 지층들이 씻겨 나가 널리 흩어졌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립공원관리청은 시더 마운틴과 레드 버트를 어떻게 설명할까요? 글썄요, 그들의 첫 번째 방어 전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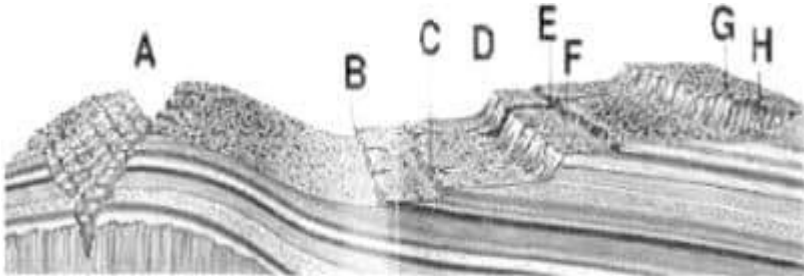
는, 과학적으로 관찰 가능한 증거가 그들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수십억 년’이라는 토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방문객의 99.99%는 이 부트들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는 침묵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만약 두 부트 중 하나에 대한 설명을 강요당할 경우, 그들은 이 지형들이 화산 활동으로 인한 융기라고 주장하는 것이 마지막 수단이 되어 왔습니다. 이는 이 지형들이 물에 의해 퇴적된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참고: 대부분의 공원 관리원과 지질학자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이 배운 캐니언에 대한 잘못된 세속적 서사를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지식)을 조심하십시오(디모데전서 6:20-21).

이제 지구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 지구적 대홍수의 가장 확실한 증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900피트 깊이의 사라진 지층도 엄청나지만, 그 위에 있던 8,500피트 이상의 층상 지층이 사라진 사실에 비하면 미약한 수준입니다! 맞습니다. 시더 마운틴과 레드 버트를 구성하는 900피트 두께의 지층 위에 8,500피트 이상의 퇴적층이 존재했었습니다. 총합하면, 그랜드 캐년의 가장자리를 이루는 카이밥 석회암 위쪽에서 ~1.8마일 이상의 깊이에 해당하는 지층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사라진 지층들은 약 130,000 입방 마일에 달하는 퇴적물이 사라진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전 지구적 대홍수를 뒷받침하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지층들이 한때 이 지역을 덮고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층들은 ‘**그랜드 스테어케이스**’로 알려진 곳에서 침식 현상이 발생했을 때 훼손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의 주요 계단으로는 높이 2,000피트의 버밀리언 절벽, 시온에 있는 높이 2,500피트의 화이트 및 그레이스 절벽, 그리고 브라이스 캐년에 있는 높이 2,500피트의 분홍색 절벽이 있습니다. 캐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침식 구조물인 브라이스 캐년은

이 거대한 침식 현상의 북쪽 경계를 표시합니다. 침식 구조는 물이 특정 지역에서 갑자기 빠져나가면서 그 지역이 아래로 붕괴될 때 형성됩니다. 브라이스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지질학적으로 ‘그랜드 스테어케이스’로 알려진 계단식 패턴으로 지층이 제거되어 있습니다.⁵⁰



이미지: 그랜드 캐니언(A), 초콜릿 절벽(B), 버밀리언 절벽(C), 화이트 절벽(D), 자이언 캐니언(E), 그레이 절벽(F), 핑크 절벽(G), 브라이스 캐니언(H). 국립공원관리청.

이처럼 광대한 지역에서 퇴적물이 제거된 반면, 그 퇴적물이 어디에 재퇴적되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거의 남아 있지 않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논리적 해석은 ‘대홍수’에 대한 압도적인 지지입니다. 즉, 지층들은 대홍수 물이 대륙에서 마지막으로 빠져나갔을 때 제거된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이시기 때문에 지구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는 다원주의, 자연주의, 인본주의의 토대가 되는 수십억 년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세속주의자들이 과학 및 교육 기관은 물론 국립공원관리청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관찰 가능한 사실들은 미화되거나 생략되고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략은 검증되지 않은 역사적 서사와 결합되어, 의심할 줄 모르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오도해 왔다.

제가 ‘*그랜드 캐년의 6일 형성설*’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주요 협곡이 6일 만에 형성되었는지, 아니면 60일 만에 형성되었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이밥 용기(고원)를 뚫고 지나가며 그랜드 캐년을 깎아낸 물의 흐름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증거들은 이 협곡이 급속도로 형성되었음을 뒷받침합니다.

저는 종종 “전 지구적 대홍수가 있었다면, 왜 전 세계 곳곳에 수백 개의 그랜드 캐년이 발견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이는 타당한 질문이며, 그에 걸맞은 답변이 필요합니다. 제 대답은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만약 지구가 수십억 년이나 되었고, 강이 수백만 년에 걸쳐 협곡을 깎아냈다면, 왜 전 세계에 수백만 개의 그랜드 캐년이 없는 것일까요?” 그런 다음 저는 그랜드 캐년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일련의 상황이 필요했음을 설명하기 위해 몇 가지 타당한 사례와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 지역의 형성에 대해 **성경적 관점에** 부합하는 여러 경쟁 가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정확하다고 입증될 때까지는, 저는 단순히 대홍수의 말기에 ‘깊은 샘’ 위에 있던 얇은 지각이, 홍수 첫 150일 동안 분출된 무거운 물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고 제안합니다. 대홍수의 말기에 이르러, 이 얇은 지각판들은 그 아래에 있던 물이 고갈된 수층 속으로 붕괴되었다. 이 대재앙적인 사건은 오늘날의 해양 분지를 형성하는 한편, 대륙 덩어리들이 ‘깊은 곳의 샘’ 이 분출하던 균열에서 빠르게 미끄러져 멀어지면서 산맥들을 하늘 높이 치솟게 했다.

홍수 말기에, 현재 미국 남서부 지역을 떠나 후퇴하던 물은 일부 지역에서 1.8마일 이상 깊이로 달하던 사라진 지층을 씻어내어 그랜드 스테어케이스를 남겼다. 육지 일부가 종종 매우 갑작스럽게 정지함에 따라 지질학적 압축 현상이 발생했다. 또한 단층이 발생하여 아직 반쯤 부드러운 지층을 접히게 했고, 이 지층은 나중에 굳어져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접힌 암석층이 되었다.

카이밥 용기

은 이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아마도 그 아래에서 발생한 거대한 단층 때문일 것이다.

그랜드 캐년의 형성에 대한 세 가지 타당한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판 이론(Hydroplate Theory): 두 개의 거대한 호수가 급격히 배수되면서 사라진 지층을 침식시켰습니다. 노출된 지층이 부풀어 올라 카이밥 융기(Kaibab Upwarp)를 형성했고, 이 융기 부위가 갈라졌습니다.

물이 그 균열로 유입되어 그랜드 캐년을 형성했다. 그 기반암 또한 부풀어 올랐다가 갈라지면서 내부 협곡을 형성했다.²⁹⁶ 2) 수로 형성설: 전 지구적 대홍수가 끝날 무렵, 홍수가 물러가기 시작하면서 물길이 형성되어 콜로라도 고원을 깎아내리고 엽워프를 관통하여 그랜드 캐년을 조각해 냈다; 그리고 3) 댐 붕괴설: 융기 지대는 거대한 흙댐 역할을 하여 홍수 말기의 물을 가두었고, 홍수가 끝난 후에는 콜로라도 고원의 유출수를 모았다. 결국 물이 융기 지대를 뚫고 쏟아져 내려와 그랜드 캐년을 빠르게 침식시켰다.⁵¹

그랜드 캐년의 급속한 형성에 대해 증거와 부합하는 다른 타당한 가설들도 존재한다. 현재 진행 중인 연구들은 어떤 가설이 실제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 규명하려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그랜드 캐년 내부와 주변의 지질 구조는 ‘아담 이전의 죽음’을 전제로 하는 ‘오래된 지구’ 이론을 무너뜨리는 전 지구적 대홍수에 대한 세계 최고의 증거를 제공한다.

현재로서는 그랜드 캐니언이 어떻게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형성되었을지를 설명할 수 있는 타당한 이론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이긴 하지만 점점 늘어나는 세속 지질학자들이 그랜드 캐니언이 급속도로 형성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내셔널 지오그래픽 포 키즈(National Geographic for Kids)』는 “지질학자들은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 대규모 홍수로 인해 급격한 성장 단계를 거쳐 형성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썼다.⁵² 그들은 이것이 단 한 번의 전 지구적 대홍수였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시간 척도는

수백만 년이 아닌 수천 년으로 좁혀졌으므로, 그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랜드 캐니언과 그랜드 스테어케이스에 대한 정직한 분석은 **성경적** 세계관과, 지구 지질학, 우리 행성의 나이, 그리고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시기의 열쇠인 전 지구적 대홍수를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오캄의 면도날**.

“저는 다윈의 진화론과 오래된 지구론을 가르치는 기독교 고등학교를 막 졸업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런 주제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고, 러스와 함께 떠난 이번 그랜드 캐니언 여행이 제게는 마지막 기독교 행사일 뻔했습니다. 이제 저는 성경이 진리임을 깨달았으며, 제 전 학교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콜로라도주 토니

오전 10시: “러스, 엄마가 강제로 이 버스 여행에 오게 했지만, 전 자칭 무신론자라서 당신네 신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후 5시:** “러스,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을 바꿔 놓았어요.

이제야 성경이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애리조나주 다니엘

“당신의 투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가족 여행 중 가장 마음에 들었고, 놀라웠으며, 배움이 가득했던 여행이었습니다! ‘수백만 년에 걸친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세뇌에 맞서 기독교 신앙을 변호하는 법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들에게 이 투어를 추천합니다.” 캔자스주(KS)의 래리 & 마릴린

“그저 그랜드 캐년을 보고 싶었을 뿐인데, 아직도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투어의 여운에 푹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위엄에 경외심을 느끼며, 러스님의 영상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분들과 공유했습니다.” 미시시피주(MS)의 카렌



6

판게아, 대륙 이동설, 그리고 빙하기

의 ‘ , ’

사람들은 종종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라고 묻습니다 . 저는 항상 무신론자들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할 때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결코 증거 자체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증거를 어떤 세계관을 통해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러스 밀러

판 구조론은 관측할 수 없었던 과거에 발생한 지구 지각의 대규모 이동을 설명하려는 가설입니다.⁵³ 1960년대에 이르러 지질학자들은 지구의 대륙들이 마치 직소 퍼즐처럼 대략적으로 서로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해저가 화산 활동으로 인해 중앙해령을 따라 서서히 벌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대륙 덩어리들이 침강, 이격, 단층 이동을 통해 매우 서서히 이동한다는 사실을 관찰한 후, 세속 지질학자들은 **대륙 이동**이 일어나는 데 **수백만 년**이 걸렸다고 결론지었다.⁵⁴ 또한, 산맥의 융기 현상이 연간 약 1인치씩 서서히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는 관찰 결과와 과거에도 균일한 융기 속도가 유지되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추론하여, 그들은 지구의 **산맥**이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결론지었다.

20세기에 발전한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설명들은, ‘균일성 원리’(현재의 속도가 과거의 속도와 일치한다는 원칙)와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는 입장을 결합한 데 기반을 두고 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이 두 가지 설명 모두 베드로후서 3장 3-6절의 예언을 충족시킨다.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말하기를... 모든 것이 창세 때부터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당시의 세상이 물에 잠겨 멸망했다는 사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판 구조론, 대륙 이동설, 그리고 산맥의 형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이러한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엄청난 대재앙이 단기간에 일어났음을 전제로 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사건, 즉 전 지구적 대홍수를 제시합니다. 시편 104편 8절은 대홍수가 끝날 무렵, 물이 산에서 골짜기로 이리저리 넘실거리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이 산을 타고 올라가며, 골짜기를 타고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해 정하신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근거한 훌륭한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단순히 1년 동안 지속된 대홍수의 말기에, 깊은 곳의 샘에서 솟아난 거대한 물이 지구 표면 위로 덮여 있었으며, 이는 창세 당시 샘물 위에 놓여 있던 얇은 지각 위에도 덮여 있었다고 제안합니다. 타당한 시나리오 중 하나는, 얇은 지각이 고갈된 샘의 공간으로 무너져 내려 오늘날의 해양 분지를 빠르게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들은 하늘 쪽으로 솟아올라 오늘날의 많은 산맥을 형성했고, 그 결과 홍수 물은 이리저리 요동쳤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지각 변동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 해양 생물의 화석이 발견되고, 남미 안데스 산맥의 높은 곳에서 고래 화석이 발견된다는 점이 있습니다.⁵⁵

세속적이고 균일론에 치우친 관점은 이러한 해양 화석들을 산들이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융기했다는 증거로 해석하지만, 화석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성경적** 관점임을 시사한다. 해발 7,000피트가 넘는 그랜드 캐년 주변에서는 화석화된 상어 이빨, 삼엽충, 해면동물, 조개, 그리고 그 밖의 해양 생물들의 잔해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화석은 지구의 주요 지질학적 특징 대부분이 전 지구적 대홍수의 결과라는 성경적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대륙 이동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전 지구적 대홍수 기간 동안 창조 당시의 단일 대륙(흔히 판게아라고 불림)이 격렬하게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대륙들은 심연의 샘이 분출하면서 생긴 균열에서 미끄러져 나가며 분리되었습니다. 일부 구간은 갑작스럽게 멈춰 섰고, 마치 나무에 부딪힌 자동차의 보닛처럼 지표면이 찌그러지면서 산맥을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일부 구간은 서로 충돌하여 추가적인 산맥의 융기를 일으켰고, 다른 구간들은 서로 아래로 또는 위로 미끄러져 들어가 오늘날 볼 수 있는 외측 이동판과 침강판을 형성했습니다. **오캄의 면도날**.

지질학적 압축: 퇴적암의 층상 구조로 이루어진 산맥 전체가 관찰된다. 이러한 산맥 중 다수는 서로 부딪혀 암석층이 최대 145도까지 접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암석 자체에는 균열이 없다. 이를 ‘지질학적 압축 현상’이라고 하며, 전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⁵⁶ 언덕이나 산맥을 관통하여 뚫린 도로를 따라 층상 지층을 관찰하면, 종종 접혀 있지만 깨지지 않은 암석층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지질학적 압축 현상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암석층은 어떻게 깨지지 않은 채, 때로는 반으로 접히기도 하는가?

다시 한번 관찰되지 않은 균일성 가정에 의존하여, 오래된 지구론자들은 옛날에 지층이 긴 세월을 걸쳐 침강했다고 주장한다. 이야기는 지층이 지표면 아래로 밀려 들어간 후 가열되어 유연해졌다고 이어진다. 그들은 지층이 다시 지표면으로 밀려 올라오면서 접힘 현상이 발생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구부러졌지만 깨지지 않은 암석층이 남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접힌 층들은 물에 의해 퇴적된 퇴적층입니다. 만약 그러한 침강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균열 없이 접힐 수 있을 정도로 지층이 가열되었다면 암석은 변성되었을 것입니다. 즉, 암석은 퇴적암에서 변성암으로 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층들은 여전히 퇴적층입니다! 지질학 강좌를 단 한 번이라도 수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접힌 암석 층들이 깨지지 않은 이유는, 대재앙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물에 의해 퇴적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지각 변동으로 인해 층상 구조가 서로 부딪혀 구부러졌고, 이후 굳어져 단단한 암석이 되었다. **오캄의 면도날**.

지구 지질학에 대한 가장 논리적인 해석들은 산의 형성, 대륙 이동, 지질학적 압축에 관한 세속 지질학의 역사적 서사를 뒤흔들기 때문에 무시되고 있다. 다시 한번, 균일론에 기반한 신념들이 과학 연구와 과학 교육, 그리고 전 세계 수십억 명의 구원의 믿음을 훼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지식)을 조심하라(디모데후서 6:20-21).

가장 단순한 해답이 일반적으로 더 복잡한 설명보다 낫다면, 대륙 이동, 판 구조론, 산맥 형성 및 지질학적 압축 현상은 전 **세계적인** 대홍수와 함께 엄청난 판 구조학적

사건이 전 지구적 대홍수와 함께 발생했다는 성경적 관점을 뒷받침합니다.

오캄의 면도날.

한때 지구의 빙하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북극과 남극 주변 지역을 덮고 있었다는 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세속적** 관점은 우리 행성이 *수백만 년에 걸쳐* 여러 차례의 대기 냉각 기간을 겪었다고 주장합니다.⁵⁷ 그들은 이러한 냉각 주기가 엄청난 양의 강설을 초래하여 지구 북반구와 남반구의 광범위한 지역을 덮었고, 그 결과 여러 **차례의 빙하기가 발생했다고** 믿습니다. **세속적 관점**은 또한 빙하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것과 같은 점진적인 속도로 항상 움직여 왔다고 가정하며, 이러한 균일성을 근거로 빙하 이동이 *수백만 년*에 걸친 시간의 증거라고 결론 짓는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타당할까?

극지방에서 발견되는 눈과 얼음은 막대한 양의 물을 나타내며, 이러한 엄청난 양의 물을 눈의 형태로 극지방으로 운반할 수 있는 유일한 타당한 방법은 대규모 구름 이동을 통해서였을 것이다. 이러한 구름 형성은 전 세계 해양에서 대규모 증발이 필요했을 것이나, 냉각기와 전 지구적 빙하기는 해양을 더 차갑게 만들어 증발량을 줄였을 것이다. 그 결과 극지방에 도달하는 눈의 양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보면, **세속적 설명들이**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구 대기의 냉각 주기 동안 빙상이 형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요?

성경적 관점은 동일한 빙상과 빙하 활동의 증거를 대홍수의 결과로 해석합니다. 빙하기에 대한 타당한 성경적 해석에 따르면, 홍수가 시작된 후 첫 150일 동안

심연의 샘들이 끓는 듯한 뜨거운 물과 녹은 마그마를 뿜어냈다는 점을 포함합니다. 또한, 지각의 움직임으로 인해, 우리 행성은 1년 동안 지속된 대홍수 기간과 그 대재앙 이후 수백 년 동안 전례 없는 수준의 화산 활동을 겪었을 것입니다. 열수 분출과 화산 활동이 결합되어 홍수 물의 온도를 평균 화씨 95도 이상으로 높였습니다. 따뜻한 홍수 물은 대규모 증발을 일으켜 전 지구를 뒤덮는 엄청난 구름층을 형성했다. 이 구름들은 중위도 지역에는 비를 쏟아부었고, 지구의 북반구와 남반구 지역에는 엄청난 양의 눈을 내리게 했다. 따라서 홍수가 일어난 그 해는 우리 행성의 유일무이한 빙하기의 시작이기도 했다. **오캄의 먼도날.**

대홍수 이후 처음 300년 동안, 전 세계 해양은 서서히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따뜻한 바다는 엄청난 양의 증발을 일으켰습니다. 그로 인해 형성된 구름은 중위도 지역에 비를 쏟아붓고, 북극과 남극 전역에 대량의 눈을 내리게 했습니다. 빙하기의 이 시기에 빙상과 빙하가 급속도로 형성되었습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가 끝난 후 300년에서 700년 동안, 해수 온도는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서서히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증발량과 구름 덮개는 계속 줄어들었고, 빙하기는 끝났습니다. 곧 빙상이 녹기 시작했고, 빙하들은 극지방 쪽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얼음으로 덮여 있던 지역을 묘사한 지도들은 이 성경에 기반한 해석을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지도들은 빙하 지대가 한때 오늘날 캔자스주 북부 지역까지 남쪽으로 뻗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빙상 지도를 살펴보면, 현재 빙상 지대가 1,200+

캔자스에서 북쪽으로 마일 떨어진 곳. 빙하의 녹음은 대홍수 물이 식기 시작한 이후 4,000년에 걸친 과정이었으며, 이로 인해 대홍수로 인한 대규모 증발이 끝났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대홍수 이후 빙하기 동안 지구 대부분의 지역이 열대 기후를 누렸다는 점입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 해양은 막대한 양의 열을 저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한 높은 습도와 풍부한 수분은 전 지구적 대홍수 이후 처음 700년 동안 지구 중앙 지역에서 무성한 식생이 자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열대 기후를 만들어 냈습니다. 사람들이 왜 중동의 광활한 사막 지역에 정착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 지구적 대홍수 이후 이어진 빙하기 동안 그 지역들이 엄청난 양의 강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정착했을 당시, 오늘날의 중동 사막은 무성한 초원과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성경적 해석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만, 오류에 빠진 균일론적 사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인식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과학적 연구와 교육을 훼손합니다. 세속적 신념의 주역인 ‘수백만년’이라는 서사는 사람들이 바라는 긴 시대의 근거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오캄의 면도날.

컬럼비아 대학교의 한 교수가 전화를 걸어와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며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으니, 당신의 지질학에 대해 바로잡아 주겠다”고 했다. 나는 “기꺼이 만나서, 오히려 당신 지질학에 대해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는 건 바로 당신이기 때문이죠”라고 대답했다. 나는 치크 필레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그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터전인 스타벅스에서 만났다.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베드로후서 3장 3-6절을 읽어 주었습니다. 이 구절은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면서 균일한 지질 과정을 주장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세계관인 ‘수백만 년의 시간’이라는 토대가 바로 이 두 가지 가정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아이비리그 출신인 그 교수는 눈에 띄게 당황해 했습니다. 비록 그의 믿음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글자 한 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진리라는 확신을 더 굳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3년 후, 저는 그와 같은

아이비리그 교수와 다음과 같은 이메일 교환을 했습니다.

교수: 무신론이란 증거가 없는 신에 대한 믿음을 합리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며, 창조론자가 청동기 시대 신화에 반하는 증거를 고려할 만한 상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도전받으면 대화를 거부합니다.

러스: 교수님은 오랜 세월을 걸친 균일한 과정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베드로후서 3장 3-6절에 예언된 대로 일어날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는데 세계관을 두고 계십니다. 교수님의 잘못된 가정들이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3년 전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과학과 다윈주의’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으나, 교수님은 참여를 거부하셨습니다. 제 제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교수: 사실에 대한 이견이 없으므로 토론할 내용이 없습니다.

러스: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가 논쟁하고 싶은 것은 사실에 대한 당신의 잘못된 해석입니다. 진실은 모든 사람이 세상을 해석하는 렌즈가 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세속적 관점을 가르치지만, 증거로 볼 때 성경적 관점이 가장 잘 뒷받침됩니다.

참고: 그는 대학에서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지고 있는 자신의 입장에 대해 공개 토론을 거부했다.



7

공룡

공룡은 아이들과 어른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대다수는 이 경이로운 짐승들에 대해 세속적인 설명만 접합니다. 그러나 모든 증거를 정직하게 평가해 보면, 공룡은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도록 뒷받침해 줍니다. 러스 밀러

공룡은 ‘오래된 지구’ 신념을 지탱하는 여섯 가지 기둥 중 또 다른 하나입니다. 메리 맨텔이 1820년대에 이구아노돈으로 밝혀진 이빨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공룡 화석의 정체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⁵⁸ 그 이후로 우리는 지질 연대표(2장 참조)의 역사적 서술에 근거하여 공룡이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배워 왔습니다. 지질 연대표에 따르면, 이는 인류가 등장하기 6,300만 년 전의 일이다.

세속적 서술이 옳다면, 인간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증거는 **절대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오늘날 공룡의 생물학적 유물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컬럼비아 대학의 필립 키처(Phillip Kitcher) 박사는 인간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그것은 “... **진화론의 기초를 뒤흔들 것**”이라고 썼습니다.⁵⁹ 그렇다면, 관찰 가능한 증거는 무엇을 뒷받침하고 있을까요?

리처드 오웬 박사는 1841년에 ‘공룡(*dinosaur*, *deino*는 ‘무서운’, *saurus*는 ‘도마뱀’을 의미)’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다.⁶⁰ ‘공룡’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에는 이 무시무시한 짐승들을 용이나 뱀이라고 불렀다.⁶¹ 780년 전부터 2,500년 전까지의 많은 역사적 기록에는 인간과 용에 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오늘날 이를 ‘용 이야기’라고 부른다.⁶² 이 짐승들에 대한 묘사는 종종 공룡을 연상시킨다.

알렉산더 대왕,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 플리니우스 장로, 마르코 폴로는 현재 인도나 중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목격한 용에 대해 기록했습니다.⁶³ 미국 남서부 원주민들은 ‘썬더버드(*Thunderbird*)’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그 묘사는 익룡(*Pterodactyl*) 유형의 비행 생물을 연상시킵니다. 또한, 같은 시대에 공룡으로 보이는 생물을 묘사한 수천 점의 인공 유물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었다. 여기에는 청동, 나무, 돌로 만든 조각상뿐만 아니라 동굴 벽화, 상형문자, 암각화 등이 포함된다.

‘오래된 지구’ 이론을 뒤흔들고 있는 또 다른 증거로는, 지금까지 발견된 수많은 **화석화되지 않은 공룡 뼈들이** 있습니다. 세속적 세계관에 있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DNA, 아미노산, 헤모글로빈, 적혈구, 그리고 부드럽고 유연한 조직과 같은 생물학적 물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공룡 유해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⁶⁴ 정직한 과학자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이 최상의 조건에서도 수천 년 이상 보존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게다가 검사 결과, 10만 년 이내에 붕괴되어야 할 **탄소-14**가 일부 공룡의 연조직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관찰 가능한 증거들은 인간과 공룡이 함께 살았음을 시사한다.

공룡들은 우리가 약 200년 전에 그들의 화석을 발견하기 전까지 약 600년 동안 이미 사라진 상태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 세대가 지나갔지만, 그 누구도 용을 보거나 공룡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공룡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세대가 바뀌어 갔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그들의 유해를 발견했고, 이제는 ‘공룡은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인본주의자들이 교육 및 과학 기관을 장악하고 있으며, 그들이 긴 시간의 개념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 결과, 세속주의자들은 “... 진화론의 기초를 뒤흔드는” 그러한 사실들을 숨김으로써, 자신들의 흔들리는 신념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하고 관찰 가능한 증거를 억압함으로써 과학적 지식, 연구, 교육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와 단순한 논리는 세속주의자들의 주장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주의하라”(마태복음 24:4)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들의 생각으로 헛된 것을 좇아 헛된 자들이 되었느니라”(로마서 1:21). 공룡의 멸종에 관한 세속적 이야기들은 매우 다양하며,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추워지거나, 습해지거나, 건조해졌을 때 공룡들이 죽었다는 주장을 포함합니다. 그 밖의 이야기로는 나방 유충이 모든 식물을 먹어치워 거대한 파충류들이 굶어 죽었다거나, 독이 든 꽃을 먹어 죽었다거나, 독이 있는 곤충에 쏘여 죽었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운석 충돌 설도 있습니다. 요점은, 만약 공룡이 인류가 등장하기 6,3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인간과 공룡이 같은 시대에 살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주간의 여섯째 날에 사람과 짐승을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24-31). 그 후,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내려진 대홍수 동안,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공룡들은 물에 빠져 죽었고, 물에 의해 퇴적된 지층 속에 묻히게 되어 오늘날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공룡 화석이 남게 되었습니다. 대홍수는 또한 화석 기록에서 공룡이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발달된 상태로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며, 공룡이 다른 어떤 생명체

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성경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지 묻곤 합니다. 그 대답은 ‘공룡’이라는 단어가 1841년에야 비로소 만들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한 지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용과 뱀이 20회 이상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지은 베헤모트를 보라. 그는 소처럼 풀을 먹느니라”**(욥기 40:15)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마도 사우로포드 공룡을 언급하신 것일 것입니다. 16-17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힘은 허리에 있고, 그 기세는 배의 배꼽에 있다. 그는 꼬리를 삼나무처럼 흔든다.”** 용각류 공룡은 긴 목과 무거운 머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삼나무에 비유하신 거대한 꼬리를 제어할 수 있도록 몸통 중앙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욥기 40장 18b-19a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웁니다. **...그 빠는 쇠막대기와 같으니라. 그는 하나님의 길들 가운데 으뜸이니라...** 이는 베헤모스가 하나님의 피조물 중 가장 거대한 존재 중 하나였음을 나타냅니다. 아파토사우루스, 디플로도쿠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수페르사우루스, 울트라사우루스와 같은 용각류는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거대한 육상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각각은 삼나무에 필적할 만한 꼬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트라사우루스는 길이 110피트, 높이 60피트, 무게 150톤으로 추정됩니다.⁶⁵ 어쩌면 울트라사우루스가 바로 **하나님의 길의 으뜸인** 베헤모트였을지도 모릅니다.

공룡들과 함께 사는 것은 무서운 일이었을까요? 공룡들은 우리를 ‘패스트푸드’로 여겼을까요? 원래의 창조 세계에서는 **네페쉬(nephesh)**의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습니다(1~8장 서론 참조). 식물은 식량 공급원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에게... 생명이 있는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이로 주었나니... (창세기 1:30).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온 아담의 원죄 이후, 일부 공룡들은 끔찍한 육식 동물이 되었습니다. 창조의 일주일 후 약 1,656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점점 더 악화되는 인류의 죄를 대홍수로 심판하셨습니다.

~50중에 달하는 공룡(평균 크기는 세틀랜드 조랑말 정도)은 노아의 방주에 한 쌍씩 실렸다. 방주에서 가장 큰 생물은 아마도 성체 코끼리 크기의 어린 용각류 한 쌍이었을 것이다.

1년 동안 이어진 대홍수 동안, 방주에 오르지 못한 공룡들은 익사했습니다. 일부는 홍수로 쌓인 퇴적층에 묻혀 오늘날 우리가 그 유해를 발견할 수 있으며, 그중 일부는 생물학적 조직이 여전히 온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대홍수 이후, 많은 종류의 공룡들은 약 2,500년 동안 잘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서식지 상실과 인간과의 경쟁으로 인해 그 개체 수는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역사적 및 고고학적 증거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공룡들은 약 800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공룡에 대해서는 13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인류와 공룡이 공존했다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 서사들은 공룡이 약 6,500만 년 전, 즉 인류가 등장하기 약 6,30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비록 인본주의자들이 체제를 장악하고 있지만, 진리를 소유한 것은 신자들이다. 관찰 가능한 증거를 정직하게 검토해 보면, 공룡이 **진화론의 토대를 뒤흔들며** 성경적 세계관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캄의 면도날.

“과학을 전공하는 제 친구가 우리 교회에서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설교가 끝난 직후에는 선생님께 화를 냈지만,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선생님이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라고 인정했고,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테네시주(TN)의 엘리



8

법과 논리:

빅뱅과 별빛

모든 고대 문헌 중에서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시작의

원인이 없이(요한복음 1:1) 영원하시다고(시편 90:2) 주

장하셨으며,

우주와 별개로 존재한다고(요한복음 17:16) 주장했습니다. 이 구절

들은 성경의 창조주만이 우주의 유일한 논리적 원인임을 증명합니

다. 러스 밀러

빅뱅은 신 없이 우주가 어떻게 자연적으로 생겨났는지를 설명하려는, 끊임 없이 진화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충되는 발견들에 맞춰 변형됩니다.

이전에 폐기된, 관측되지 않은 빅뱅 서사에는 ‘주저(Hesitation)’, ‘정상 상태(Steady State)’, ‘진동 우주(Oscillating Universe)’ 모델 등이 포함된다. 현재 대부분의 우주론자들이 반드시 믿는 것은 아니지만, 인플레이션 모델에 따르면 모든 에너지와 물질은 한때 아주 작은 점(특이점이라 함)으로 응축되어 있었다. 그러다 약 60억 년 *에서* 200억 년 전 사이 어느 시점에, 그 점은 어떻게든 1초의 극히 짧은 순간 동안 **공간과 물질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팽창시켰다**. 이것이 바로 프레드 호일 경이 ‘**빅뱅**’이라고 지칭한 것이며, 이 이름이 널리 정착되었다.⁶⁶ 이 믿음의 일부는 약 46억 년 전, 지구가

녹아내린 암석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공 모양으로 형성되었으며, 그곳에서 결국 모든 생명체가 진화했다는 내용이다.

관측 가능한 과학은 종종 관측할 수 없는 빅뱅 이론과 상충됩니다. 예를 들어, 물리 법칙과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면서 특이점(이 문장 끝의 마침표 크기 정도)이 추가되었습니다. 스티븐 호킹은 이를 설명하며 “*이 극도로 작고 엄청난 밀도를 지닌 열과 에너지의 점 안에서는 물리 법칙이...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⁶⁷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과학 법칙이 무시되고 있는 만큼, 관측 가능한 사실과 진정한 과학이 빅뱅 가설에 대해 무엇을 밝혀주는지 살펴보자.

열역학 제1법칙은 질량과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다. 간단히 말해, 이 과학적 원리는 물질과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물질은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고, 에너지는 물질로 변환될 수 있지만, 이 둘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⁶⁸ 제1법칙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이 관측되지 않는 미세한 특이점에서 비롯되었다는 세속적 신념과 상충한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다. 이 법칙은 사물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에너지를 잃고, 조직성이 떨어지며, 복잡성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⁶⁹ 간단히 말해, 사물은 늙아간다. 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사물이 더 복잡한 생명체로 진화한다고 잘못 가르치는 다윈주의에 치우친 생물학을 제외하고, 모든 과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과학적 원리이다(다윈주의에 대해서는 9~14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제2법칙은 우주가, 우리의 복잡한 태양계를 포함하여, 스스로 조직화된 후 복잡한 살아있는 세포를 생성했고, 이 세포들이 점점 더 진화하여 지구상의 모든 고도로 복잡한 생명체로 발전했다는 세속적 신념과 상충한다.

논리의 법칙 ⁷⁰은 **원인이 없는 사건**은 있을 수 없으며, 시작이 있는 모든 결과에는 그 결과의 일부가 아닌, 결과 외부에 존재하는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법칙들 때문에 우리는 우주가 존재하게 된 원인이 우주의 공간, 물질, 시간 밖에 존재했어야만 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제1법칙과 제2법칙, 그리고 논리에 따르면, 우주는 스스로를 창조한 뒤 빅뱅 우주론이 요구하는 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더 조직화된 형태를 띠게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 법칙들은...** 이 잘못된 서사를 유지하기 위해 더 이상 **기능하지 않게** 됩니다.

훌륭한 과학적 가설의 특징은 그 예측이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2004년 《뉴 사이언티스트》 지에는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서명한 편지가 실렸습니다. **“빅뱅에 맞서다(Bucking the Big Bang)”**라는 제목의 이 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빅뱅 이론은 관측을 통해 검증된 예측을 단 하나도 내세울 수 없다.” “빅뱅 이론은 인플레이션,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등 관측된 적이 없는 개념들에 점점 더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임의의 변수들 없이는 성립할 수 없다... 물리학의 그 어떤 분야에서도 새로운 가설적 요소들에 대한 이러한 지속적인 의존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주장되는 성공 사례들은 조정 가능한 매개변수를 추가하여 사후적으로 관측 결과를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⁷¹ 프레드 호일 박사가 지적했듯이,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때마다 그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더 많은 가설이 필요하다면 그 이론을 의심해야 한다.**⁷²

2011년 4월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의 표지 기사는 현재의 빅뱅 이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으므로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오늘날에도 마치 과학적 이론인 양 여전히 가르쳐지고 있다. 세상에!

빅뱅 이론이 *제시하는 수십억 년의 시간*이 자신의 세계관에 필수적인 사람들의 절박함은 2014년, 빅뱅 이론을 뒷받침한다는 우주 팽창과 중력파 발견에 대한 두 건의 센세이셔널한 발표를 통해 더욱 드러났다! 그러나 수개월 동안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은 후, 이 두 가지 허위 *발견*은 수백만 명을 오도한 끝에 2015년에 조용히 철회되었다.^{73, 74}

빅뱅은 관측할 수 없는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여, 세속적 세계관은 우주나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타당한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배제하고 우주를 설명하려는 인간의 시도인 이 비난받는 빅뱅 이론은 마치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것처럼 가르쳐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백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고 있다.⁷⁵

천지와 땅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성경 전반에 걸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옛날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느니라...”** 이사야서 42장 5절에서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퍼신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자연 법칙**을 정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2절에서 우리는 열역학 제1법칙, 즉 질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이 창조주께서 여섯째

창조 날에 우리 창조주께서 정립하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군대가 완성되었더라. 제칠 날에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일을 마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 활동을 마치셨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2법칙인 엔트로피 법칙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저주의 일

부로서 타락을 초래하는 힘으로 변모했을 것입니다.

아담의 원죄 이후 **타락**한 세상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51장 6절과 같은 여러 구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낡아질 것이니...**” 예를 들어, 수많은 별의 죽음은 관측되었지만 새로운 별의 탄생은 단 한 번도 포착된 적이 없습니다. 이는 세속적 관점에 있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주가 진화하고 있다면 별의 소멸보다 탄생이 더 많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딜레마로 인해, 우주 공간에서 이해되지 않는 무언가가 발견될 때마다, 그것은 종종 **별이 탄생하는 공간으로** 간주되지만, 나중에 그 물체가 이해되면 반박되곤 한다. 과학적 사실은 하늘이 낡아가며, 옷처럼 낡아간다는 것이다.

성경적 관점은 논리의 법칙에서도 막대한 지지를 얻습니다. 여기에는 우주와 같이 시작이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 그 원인은 우주 밖에 존재해야 하며 우주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법칙이 포함됩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고대 종교 경전 중에서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창조 이전에 존재하셨다고 주장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요한복음 1:1)고 하셨으며, 우주 공간과 물질, 시간 밖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요한복음 17:16). 이로 인해 성경의 창조주만이 우주의 유일한 논리적 원인이 되십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논리적 질문이 제기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만드셨는가?** 글썄요, 모든 고대 종교 경전 중에서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시작이 없는 영원하신 분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 이시니이다**”(시편 90:2).

***시작의 원인이 없다는 점은 성경의 하나님을 논리의 법칙 밖에 두며,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되...”(창세기 1:1a)라는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노벨상 수상자이자 천체물리학자인 아르노 펜지아스 (Arno Penzias) 박사의 말에 동의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데이터는, 마치 모세의 오경밖에 참고할 것이 없었다면 제가 예측했을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⁷⁶

별빛은 어떨까요? 저는 이전에 베드로후서 3장 3-4절에 나오는 ‘마지막 날’ 예언이 지질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그 예언은 다음과 같이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자기들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태초부터 그대로 계속되고 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덧붙여진 **대로**, 비신자들이 ‘**균일성**’을 주장하는 것이 천문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옛적에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언적 구절이 성취되는 대로, 세속주의자들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음을 부정하며, 별빛이 우리 행성에 도달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고 주장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깊은 시간**’ 신념과 달리, 오늘날의 **수십억 년** 신념은 균일성 신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우리는 빛이 초당 186,282마일의 속도로 지구 대기를 통과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빛이 항상 같은 속도(균일성)로 움직여 왔다는 맹목적인 믿음에 근거하고, 별들이 우리 행성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속주의자들은 별빛이 지구에 도달하는 데 **수백만 년 또는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결론 짓습니다.⁷⁷

사실, 빛이 항상 현재의 속도로 이동해 왔다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니 관찰 가능한 예를 들어, 몇 가지 관찰 가능한 사실들을 고려해 보며, 관찰할 수 없는 ‘균일성’에 대한 믿음을 폭로해보자.

자동차가 다른 차를 뒤에서 추돌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까? 보닛은 0.1초 만에 찌그러진 뒤, 그 상태로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만약 자동차 추돌 사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때 현장에 와서, 현재와 같은 찌그러짐 속도가 항상 동일했다고, 즉 ‘**일정성**’이 유지되었다고 믿는다면, 그 사람은 보닛이 찌그러지는 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⁷⁸ 입증된 진실은, 균일성은 잘못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관측 가능한 현재는 관측할 수 없는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가 아니기 때문이다.

성경의 관점에 따르면, 창조 주간의 첫째 날에 ... **하나님의 영**이 깃 형성된 지구를 덮고 있던 **물의 표면 위를 감돌고** 계셨다(창세기 1:2).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니 좋았으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창세기 1:3-5a). 다시 말해,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는 동안 그분의 영이 땅 위에 감돌고 계셨으며, 첫째 날에 말씀 한 마디로 순식간에 빛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넷째 날이 되어서야 비로소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의 목적은 계속해서 빛을 비추고, 표징으로 보여지며, 시간을 측정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사... 표징과 절기와 날과 해를**정하시려고...”(창세기 1:14). 하나님께서는 ‘하루’와 ‘한 해’의 차이를 분명히 아신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또한 이사야 45:12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성숙하게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손으로 하늘을 펴셨나니...”**

회의론자들은 빛의 속도가 갑자기 변하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균형이 깨져 모든 생명이 순식간에 소멸될 것이라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비록 제가 이 주장을 직접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빛과 생명의 창조주께서 3일째, 5일째, 6일째에 생명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의 첫날에 이곳에 빛을 두신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6일째 이후에 창조물을 다스리기 위해 제정하신 자연법칙들보다 앞서 있었던 일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과학을 조금 알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만, 조금 더 알면 다시 그분께로 돌아온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몇 가지 놀라운 연구 프로젝트에서, 실험실의 과학자들은

빛의 속도를 시속 40마일 미만으로 늦추고, 빛을 완전히 정지시킨 뒤 포착했다가 다시 방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⁷⁹ 다른 과학자들은 빛의 펄스를 관측된 빛의 속도보다 300배나 빠르게 가속시켰습니다!⁸⁰ 논리적인 결론은, 인류가 빛의 속도를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실 때 *하늘을 펴셨다*는 사실을 의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후드를 구겨내는 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훌륭한 과학적 가설의 특징은 예측과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천체물리학자 펜지아스(Penzias) 박사가 말했듯이, “우리가 가진 최고의 데이터는, 모세의 오경 외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었다면 제가 예측했을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⁸¹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관측 가능한 과학과 논리가 드러내는 바를 고려한 다음,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기를 제안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맺는 열매를 통해 선한 것과 부패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태복음 7:17-20). 다음 섹션에서는 다윈의 진화론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오래된 지구’ 신념의 뿌리에서 싹튼 열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진화론과 무신론, 그리고 성경에 반하는 ‘사실’을 제시하는 교수들의 공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조언을 구했지만 아무도 제 질문에 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믿음이 사라질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당신에 대해 듣고 당신의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 ‘사실’들을 반박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었지만, 당신이 해내지 않았다면 저는 믿음을 잃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애리조나주(AZ)의 브렌다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저희가 한 모든 질문에 답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정보까지 주셨어요. 정말 기뻐요!” 워싱턴주(WA)의 줄리아



II 편

‘오래된 지구’ 진화론() 신념

이 낳은 가장 큰 해악:

(주요 다윈주의 서사 포함)

9장~17장 소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원을 받은 후, 그리스도인들은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데살로니가전서 5:16), 말씀을 전파하며(마태 복음 28:19-20), 믿음을 위해 싸우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우리 모두의 구원에 관하여 편지를 쓰려고 온 힘을 다하였으나, 너희에게 편지를 써서 한 번 성도들에게 전해진 그 믿음을 위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할 필요가 있었다***(유다서 3절).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속주의(인본주의, 무신론 등)의 기초가 다윈주의적 진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시간이야말로 다윈주의의 기초입니다. **그 악의 뿌리는 인류보다 먼저 죽음을 앞세우고,**

COST: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타락하여 **인류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그리고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죽음이 들어오게 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인한 우리의 구속을 필요로 한다 – **t.**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뿌리가 아닌 열매만 다루려 애쓰고 있으며, 비록 우리가 몇 차례의 소규모 전투에서는 승리할지 몰라도, 수십억 명의 영원한 영혼을 위한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패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63년 이후 세속적 편향성을 띤 공립학교, 대학, 언론, 공원, 박물관 및 사회가 아이들의 마음에 끊임 없이 주입해 온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7장 17-20절에 기록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맺는 열매를 통해 선과 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썩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썩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불신앙에서 비롯된 문제들—낙태, 마약 남용, 다윈주의 교육, 음란물, 동성애, 십대 임신, 트랜스젠더주의, 도덕적 상대주의 등—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합니다. 그 목록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각각의 열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논쟁에 참여하여 믿음을 수호하고 피해를 입는 이들을 도와야 할 중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가 몇 번의 전투에서는 승리하지만, 전반적인 문화 전쟁에서는 패배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열매와는 싸우지만 뿌리와는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로 선한 것과 썩은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오래된 지구 신념’이 맺은 **최악의 악한 열매** 목록은 오래된 지구 나무에서 자라난 **제1의 열매인 다윈주의 진화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철학자 마틴 링스는 “종교적 신앙을 상실한 사례 중 진화론으로 인한 것이 그 어떤 것보다 많다”고 지적했습니다.⁸² 사실, *다윈주의 진화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역사*는 지금까지 고안된 그 어떤 것보다도 무신론과 불가지론을 가장 성공적으로 확산시킨 원동력이었다. 나는 9장부터 14장까지에서 **주요 다윈주의 서사들**을 논의한 뒤, 15장부터 17장까지에서 ‘오래된 지구 신념의 가장 악한 열매’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할 것이다.

우리 기원에 대한 연구는 결코 증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 증거를 해석하는 세계관에 관한 것이다. 결국, 모든 사람은 검증하고, 연구하고, 관찰할 동일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과학자, 교과서 저자, 출판사, 교사들은 여러분과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며, 우리 모두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조차도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신념(공리)은 사람들이 관찰한 어떤 증거라도 해석하는 데 필요한 틀을 제공합니다. 수십억 년의 시간이 다윈주의적 진화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사물이 긴 세월에 걸쳐 진화해 왔다고 보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진정한 과학에서 가설은 예측 가능하고 반증 가능해야 합니다. 즉, 가설이 자체 예측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새로운 발견이 그 가설을 반증할 경우, 그 가설은 폐기됩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 섹션을 시작하며 가장 대표적인 다윈주의적 설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세속적 편향성을 띤 설명들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저는 동일한 증거를 성경적 관점에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장들을 읽으시면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공립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하던 중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팔짱을 낀 채 마음을 닫고, 눈빛에는 증오를 가득 담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물으며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현대 과학의 200개 분야 중, 기독교인들이 시작한 분야가 몇 개나 될 것 같나요?’ 학생들은 ‘하나도 없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 80% 이상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연구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에 의해 시작되었다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증오가 녹아내리고, 팔짱을 풀며, 제가 전하려는 진리를 듣기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러스

“제 11살짜리 아들이 당신의 ‘노아의 방주와 공룡’ 동영상을 봤습니다. 당신이 홍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들어가기 위해 모두가 좁은 뚝길길을 걸어 올라갈 기회가 있었다고 설명하셨을 때, 마치 우리가 다가올 심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으로 나아가기 위해 좁은 길을 걸어 올라갈 기회가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자 제 아들이 ‘저도 구원받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했습니다.” 텍사스의 신디



9

다윈주의:

생명의 기원

**“... 생명의 기원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 생명을 지닌 구조물들을 만들어낸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이었으며, 그 중
간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했다.”⁸⁴**

유제니 스콧, 국립과학교육센터(NCSE) 회

장

찰스 다윈은 찰스 라이엘의 저서 『지질학의 원리』를 읽은 후, 긴 시간과 균일설에 대한 믿음을 생물학에 적용했다. 즉, 수십억 년에 걸쳐 생명체가 스스로 점진적으로 진화했다는 것이다. 사실, ‘수십억년’, ‘다윈주의’, ‘자연주의’, ‘무신론’, ‘인본주의’는 공생 관계를 맺고 있는 철학들인데, ‘공생’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식물, 곤충, 또는 동물에게 적용되는 용어이다. 공생 관계란 한 쪽 또는 양쪽 모두 생존을 위해 상대방에 의존하는 관계를 말한다.⁸⁵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대에 대한 믿음은 다윈주의, 자연주의, 무신론, 인본주의 없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 신념은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없이 생존할 수 없다. 시간은 이들의 마법의 재료이다. 따라서 이들은 공생 관계를 맺고 있다.

다윈주의의 서사는 이제 빅뱅 이후 약 46억 년 전에 거대한 용융 암석이 형성되었다는 믿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암석 위로 비가 내리면서 바다가 형성되었고, 결국 이

생명이 없는 젖은 암석에서 일련의 화학 반응을 통해 생명이 탄생했고, 그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관찰되지 않은 현상은 우리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뇨, 그것은 아주 오래전, 먼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경의 예언을 이루듯이, 이 관찰되지 않은 세속적 추측은 1963년부터 과학 수업에서 우리 존재에 대한 주된 설명으로 가르쳐져 왔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 27절에서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돌, 즉 바위에서 나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돌아, 내가 나를 낳았도다. 그들이 내게 등을 돌렸으니...” 와! 오늘날,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과 다윈주의가 결합하여 서구 문명에서 기독교 원칙을 사실상 지워버렸습니다. 사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대부분의 아이들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호세아 4:6).

저는 1~8장에서 오래된 지구론에 대해 다루었으며, 끊임없이 변하고 관측되지도 않는 빅뱅 이야기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젖은 바위에서 시작되어 우리가 진화했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증거가 있을까요?

다윈은 생물학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저절로 생성되는 현상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공정하게 말하자면, 오늘날 다윈주의에 편향된 생물학자들은 제가 생명의 기원을 다윈주의적 진화와 관련지어 언급하는 것에 격분할 것입니다.

이는 생명이 무생물에서 비롯된다는 주장이, 생명이 신 없이 시작되었다고 믿는 누구에게나 과학적 막다른 골목임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생물학에서 ‘생명의 기원 법칙(Law of Biogenesis⁸⁶)’은 생명은 오직 생명에서만 비롯된다고 규정한다. 다시 말해, 다윈주의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현대의 다윈주의자들은 현대 생물학의 핵심 전제인 다윈의 **『종의 기원』** 이종의 기원, 즉 **생명의 기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악의는 없지만, 빅뱅이 거대한 바위를 만들어냈고, 그 바위에 비가 내려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는다면, 생명은 갑자기 저절로 시작되었다고 믿어야만 합니다. 이는 자연발생설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자주 말하듯이, 다윈의 진화론은 과학 연구와 교육을 모두 훼손해 왔습니다.

생물 발생의 법칙을 회피하기 위해, 세속적인 교과서들은 생명이 저절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난 일련의 화학 반응 과정을 통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생명이 생겨났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관측되지 않은 설명은 ‘무생물 발생설(Abiogenesis)’로 알려져 있습니다.⁸⁷ 제가 이 점을 지적하면 다윈주의자들은 격렬히 반발하지만, 무생물 발생설조차도 생물 발생의 법칙이 극복되고 생명이 저절로 시작된 마법 같은 순간이 한 번은 있었음을 전제로 합니다.

나와 성경적 창조론을 공격하기 위해 고안된 NAU 수업에서 사용된 교과서의 이 예에서 그들의 절박함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국립과학교육센터(National Center for Science Education)의 무신론자 회장이었으며, 그녀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 설명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 **생명의 기원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살아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는 일련의 연속적인 사건이었으며, 그 중간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존재했다**”⁸⁸ 불확실한 요소들?

삶이 어떻게든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입증되지 않은 믿음이 다윈주의와 세속적 세계관 모두의 토대가 된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속주의자들이 교육, 과학, 언론 기관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적 서사는 비록 과학적 법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더라도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전 세계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심스러운 것들과, **거짓으로 과학이라 불리는** 지식이나 과학을 피하십시오(디모데후서 6:20-21).

지난 100년 동안 이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생명의 기원 법칙을 극복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급여와 컴퓨터, 실험 장비가 투입되었다.

몇몇 잘 설계된 실험을 통해 단백질의 구성 요소인 비생명체 아미노산을 일부 생성해 냈습니다.⁸⁹ 그러나 비생명체 아미노산에는 수백 가지 유형이 있으며, 각각은 우회전형과 좌회전형으로 나뉩니다.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20가지 특정 아미노산은 모두 좌회전형이어야 하며, 뉴클레오티드 당은 (극히 드문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우회전형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하게 설계된 실험에서 합성된 소수의 아미노산은 우회전형과 좌회전형 아미노산 및 당이 50대 50의 비율로 혼합되어 있다. 게다가 연구자들은 자신이 설계한 장치에서 생성된 아미노산을 신속하게 분리해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미노산을 만들기 위해 지능적으로 설계한 조건들이 그 아미노산들을 순식간에 파괴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실험실에서 생명을 창조하려는 이러한 실패한 시도들에는 자연스러운 면이 전혀 없다.

요점은 인류가 잘 설계된 실험실 테스트에서조차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을지 보여줄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으며, 자연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는 것이다.⁹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속 과학 서적들은 생명이 자연 속에서 저절로 시작되었다고 가르치며, 실험실 실험을 통해 무생물에서 생명이 창조되었다는 암시를 주고 있다.⁹¹ 그러므로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을** 조심하라(디모데후서 6:20-21).

생물 발생의 법칙을 극복하고 불확실한 부분들을 넘어서기 위해, 다윈주의자들은 최초의 생명체가

단순한 세포에 불과했다고 가르칩니다. 저는 종종 진정한 과학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친구임을 지적하곤 하는데, 연구 결과는 끊임없이 ‘단순한 세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과학은 박테리아 세포조차도 ‘박테리아 편모’라고 불리는 미세한 모터에 의해 작동되며, 이를 통해 세포가 이동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 작고 복잡한 분자 모터들은 매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어, 10억 개가 핀 머리 하나에 들어갈 정도이다. 편모는 40가지의 서로 다른 매우 특정한 유형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백질은 적절한 아미노산을 필요로 한다. 이 미세한 모터들은 또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단백질 중 하나라도 존재하지 않거나 편모를 형성하기 위한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 생명은 시작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다윈주의에 있어 더욱 위협적인 사실은, 애초에 단백질들을 결합시켜 편모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닌 다른 분자 모터들이 필요하다는 점이다.⁹² 생명의 자연발생 법칙이 위반된 사례가 관측된 적이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부 다윈주의자들은 관찰 가능한 과학적 사실 앞에 겸허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무신론 철학자이자 전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인 앤토니 플루(Antony Flew) 박사는 기독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으나, 다윈주의적 가르침으로 인해 신앙을 잃었다. 그 후 60년 동안 무신론을 옹호해 온 그는, 진화론이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생명체가 번식하는 능력에 대한 이성적인 설명도 제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한 DNA부터 먼 은하에 이르기까지 만물에 내재된 복잡성과 설계가 그를 창조주의 존재를 받아들이게 만들었다고 덧붙였다.⁹³

다른 이들은 지구상에서 생명이 저절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도, *다윈주의*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생명이

다른 곳에서 시작되어 외계인이나 운석에 의해 지구로 운반되었다고 믿기로 선택했다. 아니,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판스페르미아’⁹⁴ 또는 ‘리토판스페르미아’⁹⁵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 문제를 검증하거나 관찰할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넘겨, 세속적 세계관에 그다지 눈에 띄는 당혹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세속주의자들은 *외계 지적 생명체 탐색*(SETI) 프로그램에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쏟아부었다. 거대한 수신 장치가 우주를 향해 설치되었고, 설계된 신호의 아주 미세한 단서라도 포착하기를 희망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단순한 점-줄-점 신호 하나만으로도 외계 지적 생명체의 증거로 받아들여졌을 텐데, 바로 이 과학자들은 DNA에 담긴 놀라운 설계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면에 지성의 근원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과학을 훼손해 온 세속주의자들의 위선적인 편견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연구를 시작하기도 전에 정답을 배제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기원에 대한 질문에 올바르게 답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수학자들이 ‘3’이 정답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한다면, ‘ $1 + 2 = ?$ ’라는 방정식을 풀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마찬가지로, 세속주의자들은 우리의 창조주를 정답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결정한 뒤, 우리의 기원을 규명하려고 나섰다. 그 결과, 그들이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생명체의 자연 발생, 유인원, 소행성, 외계인 등에 관한 과학적으로 들리는 헛소리들뿐이다.

본질적으로 세속주의자들은, 신 없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모든 상상 가능한 가능성(외계인이나 운석이 우리를 데려다 놓았다는 등, 아무리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이 과학적으로 반박되지 않는 한, 오직 자신들의 철학적 서사만이 고려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견해에 불가능한 ‘부정 증명’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은 신 없이 생명이 시작되었다는 자신들의 서사를 반박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었다.

이로 인해 이러한 세속적 가르침은 과학적 연구와 교육, 그리고 수십억 명의 구원의 믿음을 훼손해 온 종교적 신념으로 간주될 수 있다.

다윈주의자들은 생물학이 무생물에서 생명이 생성되는 현상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자연 환경이든 통제된 실험실 환경이든, 무생물이 생명체로 변한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다윈주의자들은 이제 생명의 기원이 다윈주의적 진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격렬하게 부인하고 있다. 관찰 가능한 사실은 다윈주의가 스스로 정한 핵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창세기 2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우리 창조주께서는 제7일에 창조의 일을 마치셨습니다. **“제7일에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일을 마치고, 제7일에 지으신 모든 일에서 쉬셨다.”**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간 동안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므로, 과학은 오늘날 무생물에서 생명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 법칙은 성경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입니다. **오캄의 면도날.**

“저는 22살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서 배운 내용 때문에 믿음을 잃은 85%에 속하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설득하셔서 귀하의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이제 제가 다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귀하의 사역에 감사드립니다.”
애리조나주 라이언



10

다윈주의:

진화: 미시적(micro) 대 거시적()

“진화 생물학은 물리학이나 화학과는 달리 역사적 과학입니다...

사람들은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며... 그것이 사건들로 이어지게 됩니다...” 에른스트 마이어, 진화 생물학자, 하버드 대학교 ⁹⁶

마이어 교수의 솔직한 평가를 깊이 새겨보라. 다윈주의에 편향된 생물학은 운영적, 관찰 기반 과학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연주의적, 무신론적 신념에 맞추어 지어낸 이야기, 즉 역사적 서사일 뿐이다. 다윈주의를 믿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실증적 과학’과 ‘역사적 과학’의 차이(제1장 참조)를 배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미시진화와 거시진화의 차이도 제대로 설명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게 된 것이다. 그 결과, 그들은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가르쳐지는, 관측되지 않은 다윈주의적 서사에 의해 오도되어 왔다. 이 간과된 점을 바로잡도록 하겠다.

‘진화’라는 단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진정한 과학에서는 사물을 10억 분의 1도 단위로 세분화하지만, 다윈주의를 믿는 생물학 교수에게 ‘진화’라는 단어를 정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마치 젤리를 벽에 못으로 박으려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벽에 젤리를 못으로 박으려는 것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물학적 진화를 다룰 때 이해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정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관찰에 기반한 과학과 하나님의 말씀 모두와 부합하는 반면, 다른 하나는 둘 모두와 상충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시 진화와 거시 진화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것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됩니다.

미세진화는 단순히 같은 종류의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적응이나 변이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진화는 부모가 이미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의 선별이나 상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러스, 진화를 믿습니까?*”라고 묻는다면, 저는 “*저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미세진화를 전적으로 믿습니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⁹⁷

‘진화’라는 단어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미세진화를 ‘*각 종류가 자기 종류대로 번식할 때 발생하는 적응이나 변이*’로 지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창세기에서 식물이나 동물이 *자기 종류대로 번식할 것*이라고 열 번이나 언급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24-2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그 종류대로 살아 있는 생물을 내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종류’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최초의 조상들 안에 창조하신 유전 정보를 통해 번식(유래)해 온 생물 군집을 가리키는 성경적 용어입니다. 현대 과학의 용어로 말하자면, ‘종류’는 ‘과’(family)라는 용어와 가깝습니다(‘계’(kingdom), ‘문’(phylum) 등과는 달리). 물론 이 용어들은 서로 겹칠 수도 있습니다.

미세변이는 기존 유전 정보의 재조합이나 상실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 때문에 미세변이는 오직 같은 종류의 유기체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즉, 개는 개를 낳고, 고양이는 고양이를 낳으며, 사람은 사람을 낳는 식입니다. 예를 들어, 단모종 개가 장모종 강아지를 낳거나, 흰색 개가 갈색 강아지를 낳는 것은 부모의 유전 정보가 선별되거나 상실되어 발생한 미세 변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각기 그 종류대로’** 번식하는 수백만 가지의 사례가 관찰되고 있으며, 이는 **미세 변화가 성경적 진리이자 과학적 사실임을** 입증한다.

이로써 우리는 세속적인 학교와 사회에서 과학적 사실로 홍보되고 있는 **다윈주의적 거대진화론**에 이르게 됩니다. **거대진화론**은 유기체의 유전자 풀에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가 무작위로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 생성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단세포 박테리아나 진핵생물을 우리 행성에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다양한 식물과 동물로 거대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종류의 유전 정보입니다. 말 그대로 **‘점액에서 동물원, 그리고 당신’에 이르는 변화**입니다.

훌륭한 과학적 가설의 특징은 그 예측이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다윈주의자들은 생물학 분야에서 거대진화의 증거가 발견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한 발견은 다윈주의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가 고래로 진화하는 것은 거대진화의 한 예가 될 것입니다. 사실, 태어날 때부터 고래 지느러미의 초기 형태를 지닌 개가 있다면, 이는 다윈주의적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다. 그러나 거대진화는 다윈주의 신봉자들의 상상력 넘치는 이야기와 억지스러운 그림을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관찰된 적이 없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관찰되지 않은 이야기와 그림들이 세속적인 교과서를 가득 채우고 있다. 내가 자주 말하듯이, **다윈주의자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은 이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리는 데 전문가들이다.**

그렇다면, 관찰되지 않은 이야기를 과학으로 가르치는 다윈주의자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실제적이고 관찰 가능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수백만 번의 관찰을 거친 후에도 다윈주의자들은 비과학적이고 신앙에 기반한 그들의 믿음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찰스 다윈조차도 다윈주의적 거대진화가 일어난 단 한 가지 사례도 관찰한 적이 없습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 머무는 동안, 다윈은 두꺼운 부리를 가진 핀치와 얇은 부리를 가진 핀치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갈색과 노란색 핀치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핀치들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하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⁹⁸

만약 다윈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미시적 적응, 즉 핀치가 핀치를 낳는 현상만을 관찰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맞습니다! 그는 1859년에 이 잘못된 이야기를 출판했으며, 그 이후로 세속적 연구자들은 다윈주의 진화를 뒷받침할 증거를 찾으려 애써왔으나 실패해 왔습니다.

거시적 변화에 대한 타당한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세속 교육 과정은 다윈주의 진화를 다루면서 성경적으로 올바른 미시적 적응의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기만적인 다윈주의자들은 갈색과 노란색 나비의 그림을 보여준 다음, 공통 조상으로부터의 거시적 진화에 대해 논의합니다.⁹⁹ 이는 오래된 *‘미끼와 전환’* 사기 수법인데, 이 사례들은 공통 조상이 나비였던 미시적 적응의 예시이기 때문입니다! **미시 진화와 거시 진화의 정의를 생략하는 것은 다윈주의자들이 원하는 모호한 혼란을 야기한다. 그러므로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지식)을 피하라(디모데후서 6:20-21).**

비판적 사고는 위중한 상태에 놓여 있다. 세속적인 교과서들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대신,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너무 자주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가르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윈의 진화론을 언급하면서 학생들에게 “*일부 식물은 사막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다육식물이라고 불리는 식물들은 두꺼운 줄기와 잎에 물을 저장함으로써 이 기후 후에 적응했습니다*”라고 사실인 양 가르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비판적으로 사고하도록 유도받지 못하며, “*이 식물들은 물을 저장할 수 있게 되기 전에는 어떻게 사막에서 살아남았을까요? 이 식물들은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얻음으로써 적응한 것일까, 아니면 기존 유전 정보의 재조합(11장 참조)으로 인해 적응한 것일까?*” 식물이 미세 적응을 통해 ‘각기 그종류대로’ 번식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이자 과학적인 사실이지만, 이를 다윈주의적 변화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정직하게 오도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의심할 줄 모르는 아이들은 ‘분자에서 인간으로’의 거시적 변화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속임수에 빠지게 된다.¹⁰⁰

진정한 과학의 특징은 예측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설을 배제한다는 점입니다. 다윈주의자들은 생물학이 거대진화의 증거를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만약 거대진화가 일어났다면, 연구자들은 화석 기록과 오늘날 살아 있는 수백만 종의 동식물 중에서 수백만 건의 명확한 사례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윈주의는 다시 한번 스스로 세운 핵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다윈주의가 여전히 가르쳐지는 이유는 그것이 과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원에 대한 세속적 신념으로, 방정식에서 하나님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자칭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로마서 1:22-23).

우리 기원에 대한 진정한 설명의 특징은 그 예측이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적 관점**은 생물학이 오직 미세진화(적응, 변이)만을 발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일어날 뿐이며, 수백만 건의 관찰 결과는 각 종류가 오직 자기 종류대로만
번식함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그 중요한 기준을 충족시킨
다. **오캄의 면도날.**

“저는 대학 시절 믿음을 잃었습니다. 생물학 전공 4학년 때, 캠퍼스에서
선생님께서 하신 강연에 참석했는데, 강연이 끝난 후 제가 배워온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신 선생님께 화가 났습니다. 2년 후, 저는 고등학생들에게
다윈주의를 가르치는 생물학 교사였는데, 선생님께서 제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강연하셨습니다. 저는 ‘어떤 헛소리를 할지’
듣기 위해 참석했지만, 강연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 앞에 겸손해졌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학교에서 과학을 가르치고 있습
니다.” 애리조나주 익명

어느 일요일 저녁, 한 교회에서 ‘다윈주의의 10대 사기’에 대해 발표를 마
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석했던 한 생물학 교수가 손을 들고,
다윈주의적 변화에 대한 수백만 가지의 사례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저는 그분을 당황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교수님의 주장과 성경 중 어느
쪽이 옳은지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거시적 변화에 대한 타당한 사례 두 가지만 제시할 수 있다면,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교수는 곧바로 꽃가루를 먹던 하와이
나비가 바나나를 먹도록 진화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열 살짜리 소녀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교수님, 그건 다윈주의적 진화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올바른 미세 적응의 예입니다.” 그 교수는 큰 소리로 헐
떡거리며 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러스 밀러

“은퇴한 생화학자인 제 어머니께 선생님의 책을 드렸습니다. 책을 읽으신
후 어머니께서는 그런 정보가 존재하는 줄 전혀 몰랐다고 말씀하셨고, 그 후
예수님을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다! 아이다호주 빅토리아



11

다윈주의: 자연 선택; 새롭

고

유익한 유전 정보

실증 과학은 지성의 근원이 설계하지 않고서는 복잡한 정보가 형성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유전 정보에 관해서는, 신빙성 없는 이야기나 외계인 음모론 외에는 다윈주의 진영에서 틀려오는 침묵이 귀를 찢을 듯합니다. 러스 밀러

‘곰팡이에서 모차르트로’라는 다윈주의적 진화론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필요합니다. 1} 기존 유전자 풀에 식별 가능한 양의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하는 **자연 발생적 과정**, 그리고 2} 개량된 유기체가 그 종의 유전자 풀을 장악하게 하여 거시진화를 이끌어내는 **자연적 힘**입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은 다윈주의적 거시적 변화의 본질입니다.

다윈주의자들은 생물학이, *그들이 신을 대체했다고 믿는 힘인 자연* 선택이¹⁰¹ 새로 진화한 유익한 유전 정보에 작용하여 모든 생명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두 가지 핵심 요소에 대한 증명은 다윈주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될 것이다.

실증 과학은 다윈주의에 즉각적인 큰 장애물을 세웁니다.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용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일상어에 자리 잡았지만,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연은 어떤 유기체가 가장 적합한지 식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선택자’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윈주의 진화의 초석임에도 불구하고, 자연 선택은 **단지 하나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해, 다윈주의의 배후에 있는 자연의 힘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생물들은 특정 환경에서 살아남는 반면, 다른 생물들은 제거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더 약하고 손상된 유전자 풀은 다양한 개체군에서 제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일까?¹⁰⁵ **성경적 관점이** 그 해답을 제시한다.

창조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의 DNA에 적응하고, 적응력이 있는 형질을 지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능력을 심어 두셨습니다. 적응과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적 손실이 결국 유전자 풀의 타락과 멸종으로 이어질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체의 DNA에 허용 가능한(생존 가능한) 유전적 손실에 대한 한계도 설정하셨습니다. 그 결과, 부적합하고 지나치게 타락한 유전자 풀은 제거되어 개체군의 유전 정보가 보존됩니다. 나는 이를 ‘**하나님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생산 공장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이 프로그램은 결함을 제거하기 때문이다. **다윈은 하나님의 지능적으로 설계된 이 품질 보증 시스템을 존재하지 않는 ‘자연 선택자’의 소행으로 잘못 돌렸다**. 이 거대한 오류 하나만으로도 다윈의 진화론은 무너진다.

다윈주의 진화론의 또 다른 중대한 과학적 실패는, 기존의 유전자 풀에 상당량의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자연 발생적 메커니즘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다윈 시대에는 유전 정보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유전학, 그 극도의 복잡성, 그리고 기능에 대해 상당한 이해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유전학자, 생물학자, 미생물학자가 생명체가 무작위적인 우연이나 그 밖의 자연적 현상에 의해 진화했다고 믿는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모든 생명체의 DNA는 A, T, C, G라는 문자로 표시되는 네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화학 물질들이 어떻게 배열되느냐에 따라 ‘유전자’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지침이 만들어지는데, 이는 생명체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성장하며, 동종 개체를 더 많이 번식할 수 있게 해주는 매우 복잡한 유전적 지시 사항입니다. 염색체는 DNA를 담고 있으며, 유기체의 전체 DNA는 게놈을 구성한다.¹⁰³ 그러나 **DNA는 단백질 없이는 형성될 수 없고, 단백질은 DNA 없이는 형성될 수 없다.** 9장에서 단백질이 저절로 형성될 수 없다는 점과 생물 발생의 법칙에 대해 논의한 바 있지만, 이 논의를 위해 어떤 곰팡이가 모든 과학적 관찰을 무릅쓰고 저절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다윈주의적 신념은 또 다른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유전 정보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알며,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압니다.

히브리서 11:3.

관측 가능한 과학적 사실에 굴복하기를 원치 않았던 세속주의자들은 **신다원주의**를 고안해 냈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무작위적인 돌연변이로 인해 유기체의 유전자 풀에 방대한 양의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가 추가됨으로써 생겨났으며,¹⁰⁴ 그들의 신화적인 ‘선택자’가 돌연변이체가 그 종의 유전자 풀을 장악하고 개선하도록 만들었다는 믿음이다.

신다윈주의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될 것이다. 이는 다윈주의에 편향된 생물학의 최전선 쟁점인 만큼, 유전학과 돌연변이의 세계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한다.

파라메시아에서 소나무로 진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생성할 방법이 없고, 다윈주의자들이 지난 100년 넘게 주장해 온 빈약한 증거들이 끊임없이 반박당하자, 신다윈주의자들은 세포 내부로 눈을 돌렸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전자 현미경을 가지고 있다면 다윈주의의 증거를 직접 볼 수 있겠지만, 가지고 있지 않으니 그냥 우리 말을 믿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안타깝게도 역사와 실제 운영 과학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실수임을 반복해서 입증해 왔다.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학적 근거를 더 깊이 파헤쳐 보기 위해, 나는 신다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존재하지 않는 ‘자연 선택자’에 대해서는 잠시 논외로 두겠다. 또한, 더 *모호한* 주제나 외계인 음모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나는 원래의 유전 정보가 어디서 왔는지 묻지 않겠다. 이는 내 쪽에서 매우 관대한 태도인데, 실증 과학은 자연 환경에서 복잡한 정보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신다윈주의의 주장은 생물체의 각 부분—청새기의 부이든, 생물학 교수의 뇌, 중추 신경계, 혹은 눈이든—이 하나하나 조각조각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 이론이 전 세계 학교에서 과학으로 가르쳐지고 있는 만큼, 신다윈주의자들이 자연 환경에서 기존의 유전자 풀에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하는 돌연변이의 부정할 수 없고 관찰 가능한 수천 가지 사례를 제시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연 과정을 통해 생물의 DNA에 상당량의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한 실행 가능한 사례를 밝혀낸 과학적 실험이나 관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자연적 과정을 통해 생물의 DNA에 상당량의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한 실증 가능한 사례를 밝혀낸 과학적 실험이나 관찰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돌연변이 전문가 H. 뮐러 박사는 한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유익한**[돌연변이]는 **너무나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모두 해로운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¹⁰⁵ 저명한 진화론자 피에르-폴 그라스는 『생물의 진화』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돌연변이는 어떠한 종류의 진화도 일으키지 않는다.**”¹⁰⁶ 이러한 주장들은 시간의 시험을 견뎌냈는데, 오늘날 우리는 돌연변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존 유전 정보의 선별이나 손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유전적 고갈**’ 또는 ‘**유전적 엔트로피**’로 알려진 원리이다.¹⁰⁷ 따라서 신다윈주의는 스스로가 제시한 핵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유전적 고갈’은 제8장에서 다룬 열역학 제2법칙, 즉 엔트로피 법칙과 잘 부합합니다. 이 과학 법칙은 사물이 에너지와 정보, 질서를 잃어간다고 주장합니다. 즉, 사물은 점차 닳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윈주의에 치우친 생물학을 제외한 모든 과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법칙입니다. 다윈주의자들은 과학적 원리에 반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거대진화를 인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시인하면 세속적 세계관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며, 비록 기독교인들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지만 세속주의자들이 체제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법칙을 회피하기 위해 다윈주의자들은 ‘**개방계**’ 논리를 내세우며, 우리 태양계는 태양으로부터 막대한 양의 새로운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개방계이므로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두 가지 타당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엔트로피 법칙이 우리 태양계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법칙을 발견했는가? 그리고 왜 이 법칙이 다윈주의에 편향된(훼손된) 생물학을 제외한 모든 과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인정받는 법칙인가?

제2법칙이 개방형 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하버드의 존 로스 박사는 “...제2법칙은 개방형 시스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 오류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¹⁰⁸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자전거를 마당에 5년 동안 방치해 둔다면, 햇빛이 자전거를 더 좋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원시 에너지가 페인트를 바래게 하고 타이어를 갈라지게 할 것인가? 원시 에너지는 엔트로피를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

요점은 다윈주의자들이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시스템에 이용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라, 시스템이 이용할 수 있는 유전 정보이다.** 햇빛과 같은 원시 에너지는 DNA에 존재하는 복잡한 유전 정보를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 유전 정보가 생물학적 시스템을 형성하여, 원시적인 햇빛을 흡수해 광합성 과정과 같은 유용한 기능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다.

생물체의 DNA에 거시적 진화를 일으킬 만한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하는 자연적 과정의 *타당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다윈주의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플라스미드 전이는 특정 유형의 박테리아가 소량의 유전 정보를 한 박테리아에서 다른 박테리아로 전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윈주의자들은 수십억 년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이러한 교환이 다윈적 변화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한다. 연구 결과 플라스미드 전달이 기존 박테리아의 DNA 양을 증가시킬 수 있음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유전적 교환은 이미 존재하는 유전 정보만을 전달할 뿐,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생성하지는 않는다. 한 박테리아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만이 다른 박테리아로 전달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관련된 박테리아들은 박테리아 내에서 발견되는 유전 정보로 시작하여 그 유전 정보로 끝나는 것이다.

. 플라스미드 전달은 거시적 변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신다원주의자들은 ‘**유전적 중복**’(복제 오류라고도 함)이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생성한다고 주장한다. 과학적 연구 결과 자연계에서 드문 유전적 중복 오류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이러한 오류는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생성하지 않으며, 단순히 기존 정보를 복제할 뿐이다.** 이것이 바로 이를 ‘중복’ 또는 ‘복제 오류’라고 부르는 이유이다. 예를 들어, 실험실의 초파리에게 방사선을 조사하여 유전적 오류를 유발하기도 한다. 네 개의 날개를 가진 초파리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유전자 중복의 결과를 목격한 것일 것이다. 하지만 여분의 날개는 비행에 필요한 모든 부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무용지물이다. 유전자 복사 오류로 인해 이 초파리는 날 수 없으며, 자연 환경에서는 네 개의 날개를 가진 초파리가 거미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이다. 또한, 이 책의 인쇄 과정을 생각해 보자. 만약 인쇄기가 오작동하여 이 페이지를 두 장 인쇄했다면, 그로 인해 책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복사 오류는 이미 존재하던 것을 복제할 뿐입니다. 새로운 정보나 유익한 정보를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¹⁰⁹

신다원주의자들은 줄여서 **Hox 유전자라고도** 알려진 호메오박스(Homoeo Box)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새로운 종류의 식물과 동물의 거대진화를 이끌어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통 경찰이 차량의 흐름을 지휘하듯이, Hox 유전자는 유전 정보의 흐름을 지휘한다. 예를 들어, 소의 DNA에는 왼쪽 앞다리를 형성하는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 데이터는 다리를 형성하기 위해 홈박스 유전자가 이를 적절한 위치로 안내해야 한다. 만약 불쌍한 소의 등에서 다리가 튀어나온 사진을 본 적이 있다면, 아마도 Hox 유전자 돌연변이의 결과를 목격한 것일 것이다. 제자리에 있지 않은 다리에는 기능하는 데 필요한 근육이나 신경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리를 유지하는 데 자원을 소모하게 되어, 그 소는 무리 중에서 가장 약해지고 생존 가능성이 가장 낮아집니다.

나일론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종종 신다윈주의가 실제로 작용하는 사례로 제시됩니다. 1970년대에 나일론을 분해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이는 단순히 증거에 대한 오해에 불과했습니다. 돌연변이로 인해 생물이 더 잘 진화한다는 초기 공리에 근거하여, 신다윈주의자들은 즉시 돌연변이가 박테리아의 DNA에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했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연구 결과, 박테리아의 나일론 분해 능력은 단백질 분해 효소의 기능을 상실하게 한 돌연변이에 기인한 것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유전 정보의 상실로 인해 박테리아는 나일론을 섭취하게 되었다.¹¹¹ 따라서 나일론을 먹는 박테리아는 박테리아로 시작하여, 부모 형태보다 유용한 유전 정보가 더 적은 박테리아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 이는 다윈주의의 요구 사항과 정반대이다.

프레임시프트 돌연변이와 점 돌연변이는 신다윈주의자들이 흔히 제시하는 예시입니다. 다음의 단순화된 사례에서, 유전 정보는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세 글자 단어로 표현될 것입니다: “*그날은 더웠다.*” “*더운 날에는 태양이 하나 있었다.*” “*그날 태양은 더웠다.*”

프레임시프트 돌연변이¹¹²는 유전 정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곳에 삽입되거나, 있어야 할 곳에서 유전 정보가 삭제됨으로써 발생한다. 이러한 돌연변이는 새로운 유전 정보를 생성할 수 있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생물의 DNA 시스템에서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익하지는 않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돌연변이는 대개 돌연변이를 겪은 개체에게 해롭다. 예를 들어, 두 번째 문장의 시작 부분에 문자 ‘b’가 **삽입된다면**, 정보가 이동하여 다음과 같이 읽히게 될 것이다: “그날은 더웠다. *Bth eho tda yha don esu nth esu nwa sho tth eon eda y.*” 이 돌연변이로 인해 ‘*eho*’, ‘*sho*’, ‘

eda와 같은 몇 가지 새로운 단어가 생성되었지만, 13개의 기능적 단어와 두 문장 전체의 의미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DNA 가닥이 길어지고 기술적으로 새로운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생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돌연변이의 전반적인 결과는 기능적 유전 정보의 상실이었다.

이 예에서, 첫 번째 문장의 첫 글자가 **삭제된다면** 나머지 글자들은 왼쪽으로 이동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Hed ayw ash ott heh otd ayh ado nes unt hes unw ash ott heo ned ay.*” 다시 말해, 기술적으로 볼 때 몇 가지 쓸모없는 새로운 단어가 생성되었지만, 모든 기능적 유전 정보는 상실되었다.

실증 과학에 따르면, 프레임 시프트 돌연변이는 부모의 기존 유전 정보가 정렬되거나 소실됨(유전자 고갈)에 의해 발생하며, 새롭고 유익한 데이터가 추가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 돌연변이¹¹³은 유전 서열에서 단 하나의 글자만 변경하게 한다. 이러한 돌연변이 또한 유용한 정보의 손실을 초래하며, 돌연변이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우리의 예에서, 점 돌연변이로 인해 ‘day’라는 단어가 ‘duy’로 바뀌었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The duy was hot. The hot duy had one sun.*” *The sun was hot the one duy.*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다윈주의자들이 새로운 정보가 추가되었다고 주장할지 모르나, 사실은 의미 있는 단어와 그 정보의 의미 모두가 상실되었다. 따라서 점 돌연변이는 부모의 기존 유전 정보의 선별 또는 상실(유전자 고갈)에 의해 발생하며, 새롭고 유익한 데이터의 획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신다윈주의자들은 종종 돌연변이체에 유리한 희귀한 정보 손실 사례를 들어, 돌연변이가 거시적 변화를 초래한다는 증거로 제시한다.¹¹⁴ 예를 들어, 나는 종종 다음과 같은 말을 듣는다.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진화하고 있으며, 바이러스는 빠르게 증식하면서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적 손실을 축적한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만약 그러한 손실이 항바이러스제가 공격하는 단백질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면,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어 바이러스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시적 변화에 불과하며, 신다윈주의적 거시진화는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는 예로는 특정 돌연변이를 가진 개인이 에이즈에 걸릴 확률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다.¹¹⁵ 이는 에이즈에 대한 이점이기기는 하지만, 기존 유전 정보의 선별 또는 상실(유전자 고갈)로 인한 미시적 변화에 불과하며, 오히려 그 사람을 다른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든다.

이러한 모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들을 보며 나는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신다윈주의자들은 필요한 새롭고 유익한 유익한 유전 정보를 유전자 풀에 추가하는 자연적 과정의 명백한 사례를 제시하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품게 한다. 유일한 논리적 대답은 보여줄 만한 그런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벗어나게 만든 *의심스러운* 주장과 거짓 정보(디모데후서 6:20-21)는 피해야 한다.

과학자이자 수학자인 I.L. 코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DNA/RNA 체계가 이해된 바로 그 순간, 진화론자와 창조론자 간의 논쟁은 갑작스럽게 중단되었어야 했습니다... 수학적으로 말해서, 확률 개념을 바탕으로 볼 때,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약 6,000,000 종의 동식물을 창조한 메커니즘이 진화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¹¹⁶

우리는 약 75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세포의 DNA에는 약 30억 개의 염기쌍으로 구성된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랍게도, 인류가 개발한 가장 진보된 정보 시스템은 한 방향으로만 읽을 수 있는 반면, 우리의 방대한 유전 정보는 앞으로

뒤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지구상의 85억 명 전원을 암호화하는 유전 정보는 완두콩 크기의 용기에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이 놀라운 설계는 창조론과 진화론의 논쟁을 단번에 종식시켰어야 했다. 그러나 다윈주의는 과학이 아니라 우리의 기원에 대한 믿음일 뿐이므로, 이 논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신다윈주의자들은 생물학자들이 돌연변이가 기존의 유전자 풀에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하고 있으며, *자연선택*이 돌연변이체들로 하여금 그 종의 유전자 풀을 개선하게 함으로써 더 고등한 생명체의 진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실증과학은 돌연변이가 필요한 정보를 생성하지 못한다는 사실¹¹⁷을 밝혀냈으며, '*자연선택*'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용어이다. 자연에는 어떤 유기체가 가장 적응력이 뛰어난지 판별할 수 있는 '*선택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다윈주의는 스스로 제시한 핵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과학적 가설의 특징은 예측을 충족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는 점인데, 실증 과학은 신다윈주의 진화에 대한 신앙에 기반한 믿음을 무효화한다.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창조 주간에 식물과 동물에 존재하는 유전자 풀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므로, 과학은 오늘날 생성되고 있는 새롭고 유익한 유전적 데이터를 상당한 양으로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유전적 손실로 인해 유전 정보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는 품질 보증(QA) 시스템을 마련하셨습니다. 따라서 다윈주의를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증거가 부족한 것은 *불확실한 자료* 속에 증거가 묻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유전자 고갈과 하나님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으로 인해 거시진화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¹¹⁸ 이것이 바로 운영과학이 밝혀낸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입증된 기준입니다. **오캅의 면도날.**

“러스, 당신의 ‘과학과 다윈주의’ 강연을 들었습니다. 저는 신체인류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논문인 『라마피테쿠스의 전치 치아 축소』는 1970년 『Primates』 저널에 게재되었습니다. 저는 7년 동안 애리조나 대학교 교수로 재직했으며, 스티븐 굴드와 함께 강단에 섰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그 분야를 직접 경험하고 실천해 본 사람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발표를 정말 훌륭하게 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스티븐 울리쉬 박사, 전 교수, 애리조나주 투손 소재 애리조나 대학교

“저는 생물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며, 진화론에 대해 당신과 토론하기 위해 이 학회에 참석했습니다. 토론이 그리 원만하게 진행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로서 저는 창조론에 대해 줄곧 고민해 왔습니다.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있고 학문적 근거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당신이 탄소 연대 측정법,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 인간 태아에게 아가미 주머니가 있는 이유, 박쥐 날개에 인간 손과 유사한 뼈가 있는 이유, 티크탈릭(Tiktaalik)이나 루시(Lucy)와 같은 화석 증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싸울 각오를 하고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다윈주의가 왜 사실일 수 없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발표를 시작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가 품고 있던 모든 의문을 학문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방식으로 다루신 데다, 성경의 증거까지 제시해 뒷받침해 주시는 모습에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저는 제가 그간 거뒀던 가르침에 완전히 현혹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미시간주에 사는 앤

“저희 성인 주일학교에서 여러분의 영상을 상영하고 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아요. 다들 무척 기뻐하고 있어요! 모두 메시지에 푹 빠져 있네요. 와, 진리를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캘리포니아주(CA)의 보니



12

다윈주의: 유사성과 화

석 기록

저는 포드 트럭을 몰고 다니고, 제 친구는 포드 밴을 타고 다닙니다. 두 차량의 대시보드는 똑같지만, 그건 스के이트보드에서 진화했기 때문은 아니죠!

러스 밀러

상동성(Homology) 과학은 생물체 간의 유사한 특징을 연구합니다. 다윈주의는 모든 식물과 동물이 공통된 단세포 조상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윈주의자들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생물체 간의 유사성을 활용하여 그들의 진화적 과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다윈주의 진화론의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생물학 교과서에서 다윈주의적 서술이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지고 있는 예입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수많은 생명체는 모두 원시적인 단세포 생물 집단에서 발견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유래했습니다.*¹²¹ 이는 사실로 제시되며, 의심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것이 증거로 뒷받침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답은 몇 문장 뒤에 나와 있다. “그 사건들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¹²² 세상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증거가 존재하든 말든) 증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는 증거를 해석하는 데 사용되는 세계관이다. 증거에 대한 편향된 해석은 그 편향을 투영할 수 있는 어떤 증거라도 존재해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증거가 존재하지 않을 때, 다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야기를 지어내고, 관찰되지 않은 이 우화를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가르친다. **빅뱅에서 원시 대양, 생명의 기원, 원시 단세포 생물 집단에서 발견된 공통 조상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사건의 흔적도 남아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들이 일관성을 보인다는 점은 인정해야겠습니다. 와!

진실은,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은 과학적 연구와 교육,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구원하는 기독교 신앙을 훼손하기 위해 결합된 두 가지 역사적 서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러니 거짓 과학이나 거짓 지식을 피하라(디모데후서 6:20-21)!

상상의 단세포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식물이나 동물에 대해 논의할 만한 타당한 증거가 없으므로, 저는 다윈주의의 동화를 폭로하는 내용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세속적 세계관은 모든 식물과 동물이 공통 조상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다윈주의자들은 유사점을 자신들의 신앙에 기반한 믿음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서에는 고래의 지느러미, 고양이의 다리, 인간의 팔뚝, 또는 개의 앞다리 뼈 구조 그림이 실려 있습니다. 각각 앞다리에 뼈가 두 개씩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것이

이들이 모두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증거라고 배운다.¹²³ 그렇다면, 이러한 유사성은 다윈주의적 변화의 증거인가, 아니면 증거에 대한 또 다른 오해에 불과한가?

세속적인 교과서들은 인간의 생화학이 침팬지의 생화학과 98% 유사하다고 가르치며, 이것이 우리가 진화적으로 가까운 친척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위 유사성은 DNA 가닥의 작은 부분만을 근거로 삼고, 큰 차이가 있는 영역들은 무시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면 다윈주의자들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관찰에 기반한 과학이 전체 게놈을 분석할수록, 그 차이는 더욱 커진다.

2010년에 침팬지 게놈이 해독되었는데, 그 연구 결과 중 상당수는 인간이 침팬지와 98% 유사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침팬지 DNA는 인간 DNA보다 12% 더 깁니다. 또한 인간과 침팬지 모두 수백 개의 ORFan(Open Reading Frame)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중 다수는 생존에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ORFan 유전자에 있어 인간과 유인원 간의 유전적 일치율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네이처(Nature)』 저널은 인간과 유인원의 수컷 Y 염색체 사이에 최대 30%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도했다.¹²⁴ 다른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생화학은 일부 벌레와 75%, 바나나와 50% 유사하다고 한다!¹²⁵ 나는 이러한 수치가 어떤 교과서에도 실린 것을 본 적이 없는데, 다윈주의자들이 이를 별로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교과서가 계속해서 98%라는 수치를 홍보하는 것은 부정직하며,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왜 다윈주의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을 버리고, 그들의 믿음을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가? 유일한 타당한 대답은, 유전자 고갈과 하나님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윈주의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11장 참조).

생물학과 생화학 분야의 유사성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이것이 우리가 동일한 지적인 성경적 설계자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나는 포드 트럭을 운전하고 내 친구는 포드 밴을 운전하는데, 두 차량의 대시 보드는 똑같다. 이것은 두 차량이 스케이트보드에서 진화했기 때문이 아니다! 유사성은 동일한 설계자를 가졌기 때문이다. **오캄의 면도날** 원리다.

다윈주의적 **생명나무**는 **다윈주의자들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이론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리는 데 능숙하다는** 또 다른 좋은 예이다. 이 눈길을 끄는 그림들은 교과서를 장식하고 있으며, 밑부분에 가상의 공통 조상을 두고, 그 조상으로부터 다양한 생물체들로 이어지는 다채로운 선들이 진화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다윈주의자들은 뼈 구조나 생화학적인 유사성(일부는 실제이고, 일부는 상상된 것)을 바탕으로 이 다채로운 경로를 파악했다고 주장한다.¹²⁶ 그러나 이러한 계통도는 다윈주의를 또 다른 거대한 몰락으로 몰아넣었다.

왜냐하면 신체 구조를 기반으로 한 생명나무를 생화학적 유사성을 기반으로 한 생명나무와 비교해 보면, 두 생명나무가 항상 동일한 진화 경로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그 경로들은 종종 서로 크게 다르다! 다시 말해, 유사성은 다윈주의적 진화에 대한 신뢰할 만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 (참고: 이러한 불일치가 수년 동안 지적되어 온 탓에, 다윈주의자들은 두 생명나무를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크레용 한 상자를 들고 생물들을 연결하는 알록달록한 선을 그리는 것이, 그들이 서로로부터 진화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진정한 과학에서는 그 알록달록한 선들이, 주장되는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추정되는 대상까지의 진화 경로를 명확히 보여주는 수많은 과도기 화석들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수라고 주장되는 과도기 화석들은 그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관찰 가능한 사실은, **만약 그들의 크레용 상자를 빼앗아 버린다면, 다윈주의자들은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지식)을 조심하십시오(디모데후서 6:20-21).

수렴 진화는 다윈주의 진화론에 있어 치명적인 딜레마입니다! 다윈주의자들은 대개 유사성이 공통 조상으로부터의 기원을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윈주의자들조차도 가까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극히 다른 생물들 사이에도 유사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성이 다윈주의 패러다임 내에서 설명되지 못하며, 유사성이 거시적 변화를 입증한다는 주장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회피하기 위해, 다윈주의자들은 **수렴 진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한다.¹²⁷ 이는 유사성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우연히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관찰에 기반한 과학은 **이러한 유사성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보여준다. 다시 한번, 다윈주의는 스스로가 제시한 핵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찰스 다윈은 생전에 알려진 화석 기록이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구의 층상 지각이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형성되었다고 믿었던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왜 모든 지질 구조와 모든 지층이 그러한 중간 연결 고리로 가득 차 있지 않은가? 지질학은 확실히 것처럼 미세하게 단계가 나뉜 유기적 사슬을 드러내지 않는다...**”¹²⁸ 다윈은 화석 기록이 결국 자신의 아이디어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임을 알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이 썼다. “**만약 내 이론이 사실이라면, 무수한 중간 변종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다**”¹²⁹

예를 들어, 물고기가 양서류로 진화했다면, 지느러미가 점차 양서류의 다리에 있는 어깨, 팔꿈치, 발목, 발가락, 발톱으로 진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수천 개의 명확하게 식별 가능한 과도기 화석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단지 한쪽 다리가 아니라 네 다리 모두에서, 또한 골격의 변화뿐만 아니라 필요한 근육, 혈관, 중추 신경계의 변화도 발견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관찰 가능한 화석 기록은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가?

2억 4천만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호박(석화된 나무 수액) 속에 봉인된 채 발견된 수천 마리의 곤충들은 다윈주의에 또 다른 난제를 제기한다. 오늘날 살아있는 곤충들과 비교해 볼 때, 이들은 다윈주의적 변화의 사례를 전혀 보여주지 않는다. 단 하나도 없다!

캄브리아기 대폭발 역시 또 다른 다윈주의의 딜레마를 드러낸다. 식물과 동물의 모든 기본 체형(문)이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갑자기 등장한다. 이곳은 상당한 수의 화석이 포함된 가장 하층부이지만, 캄브리아기 지층에서는 어떠한 과도기적 연결 고리도 발견되지 않는다. 단 하나도 없다! 단세포 생물과 어떤 문(phyla) 사이에도 연결 고리가 없으며, 어떤 신체 유형도 공통 조상과 연결해 주는 화석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다윈주의의 딜레마는 각 기본 신체 구조가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캄브리아기 대폭발*’로 알려져 있다.¹³⁰

과도기적 연결 고리의 부재는 항상 다윈주의 철학에 있어 난처한 문제였다. 1930년대에 리처드 골드슈미트는 ‘**희망적인 괴물 이론(Hopeful Monster Theory)**’을 통해 누락된 증거를 변명하려 했다. 그는 거시적 변화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 화석 기록에 포착될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과도기적 연결 고리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그는 새들이 파충류의 알에서 부화했을 수도 있으므로 관찰 가능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80년이 되어도 다윈주의가 실제로 작용했다는 확실한 화석 증거는 여전히 없었기 때문에,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의 나일스 엘드리지와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골드 교수는 ‘희망의 괴물’ 이론을 ‘**단속적 평형**’ 이론으로 개량했다.¹³¹ 이 용어가 다소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단순히 화석 기록에서 다윈식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것뿐이다. ‘희망의 괴물’이라는 변명에서 달라진 점은, 거시진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신, 진화는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하게 일어났고, 그 사이에는 긴 정체기(변화가 없는 시기)가 있었으며, 이 때문에 화석 기록에 그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던 것이다! 골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중간 단계에 대한 화석 증거의 부재는... 심지어 우리의 상상 속에서도 ...는 점진적 진화론에 있어 끊임없이 골칫거리로 남아왔다.”*¹³²

다윈은 화석 기록이 자신의 관찰되지 않은 서사를 입증하거나 반박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타당한 과도기적 연결 고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다윈주의적 진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드러내며, 그의 예측이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오캄의 면도날.

화석 기록이 거대진화를 뒷받침한다는 주장은 모두 허세와 과장에 불과하며, 종종 몇 개의 화석 파편(일부는 실제이고 일부는 상상된 것)에 대한 다윈주의적 편향 해석을 담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림들로 뒷받침된다. 예를 들어,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속여 다윈주의적 변화가 일어났다고 믿게 만든 말과 고래의 진화 시리즈에 대해 논의해 보자.

말 화석 시리즈는 소위 작은 고대 말을 시작으로, 점점 더 커지는 말들이 현대 말로 진화하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비록 이것이 설득력 있어 보이지만, 현대 말이 소위 고대 말보다 아래쪽 지층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는다. 또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박물관 전시물은

1세에서 20세 사이의 현대 말 뼈로 만들어져 있다.¹³³ 절박한 다윈주의자들은 현대 말의 골격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이러한 전시물이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시간*이 사실임을 증명한다고 전 세계 사람들을 속여 왔다!

고래 화석 시리즈는 멸종된 육상 포유류를 암불로케투스(Ambulocetus) 옆에 배치하고 있는데, 다윈주의자들은 암불로케투스를 육상 포유류와 고래 사이의 ‘누락된 고리’라고 주장한다. 비록 이것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속여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진화론*을 믿게 만들었지만, 암불로케투스는 서로 다른 지역의 서로 다른 암석층에서 발견된 화석 파편들을 이어 붙여 만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증거에 대한 지독히도 부정직한 해석이다.¹³⁴ 슬프게도, 화석 증거에 대한 이러한 오도적인 해석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고래 시리즈 하나만으로도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다윈주의 패러다임에 대한 또 다른 화석적 도전은 ‘**살아있는 화석**’입니다. 이들은 오늘날 살아있는 생물들로, *수백만 년*전으로 추정되는 암석층에서 발견된 화석화된 조상들과 비교해 거시적인 변화가 전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러한 관찰 가능한 증거에 따르면, 생명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진화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살아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지느러미어류와 최대 3억 2,500만 년 전으로 추정되는 지층에서 화석으로 발견된 지느러미어류는 모두 옆구리에 돌기 모양의 뼈를 가지고 있으며, 미세한 변화는 커녕 거시적인 변화조차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2006년 만우절, 언론은 티크탈릭 로제아(Tiktaalik roseae)의 옆구리에 있는 울퉁불퉁한 뼈를 근거로, 이를 물고기와 양서류 사이의 화석화된 ‘누락된 고리’라고 선포했다! 『네이처(Nature)』 지는 이 화석이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와 사지가 있는 사족동물 사이의 중간 형태를 나타낸다고 보도했고, 『사이언스(Science)』 지 역시 이에 뒤이어 자체 발표를 내놓았다.¹³⁵

세속적인 교과서들은 그 돌기 모양의 뼈 외에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티크탈릭을 교재에 포함시켜, *수백만 년에 걸쳐* 티크탈릭이 그 돌기 모양의 뼈를 양서류의 다리에 있는 어깨, 팔꿈치, 발로 변화시키는 데 필요한 골격 구조, 중추 신경계, 근육계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방대한 양의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획득했다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오늘날 티크탈릭과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는 과도기 화석의 주요 사례로 사용되고 있다.¹³⁶ 일부 생물학 교과서는 심지어 순진한 학생들에게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가 양서류, 조류,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로 진화한 공통 조상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한다!¹³⁷ 그리고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오도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다윈주의자들은 이러한 사기극을 걷어내고 다윈주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일까요? 간단한 진실은 그들에게 그런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고(故) 콜린 패터슨 박사는 그의 저서 『*진화(Evolution)*』에서 단 하나의 과도기적 연결 고리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요! 그 이유를 묻자, 그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완벽한 논증을 펼 수 있는 그런 화석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¹³⁸

관찰 가능한 사실과 상관없이,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에 걸친* 관찰되지 않은 이야기는 과학 연구와 과학 교육, 그리고 수십억 명의 사람들의 구원의 믿음을 훼손해 왔다. 디모데전서 6장 20-21절에서 말하듯이: ... ***네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경건하지 못하고 헛된 수다와 거짓 과학이라 불리는 것들의 반대를 피하라.***

다윈과 그의 추종자들은 화석 기록이 우리의 거시진화적 과거를 드러내는 과도기 화석들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들이 ‘희망적인 괴물’, ‘단절적 평형’, 외계인, 불확실한 주장, 혹은

노골적인 사기극을 내세우든, 사실은 과도기적 연결 고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다윈주의는 다시 한번 스스로 정한 핵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주제를 바꿔 또 다른 다윈주의의 실패를 논의해 보자. **살아있는 과도기적 종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생명체가 수십억 년에 걸쳐 거대진화를 거쳤다면, 오늘날 우리가 보는 수백만 종의 생물 중에서 수만 종의 살아있는 식물, 동물, 곤충의 과도기적 종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살아있는 과도기적 종류는 다윈주의가 실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관찰 가능한 증거가 될 것이지만,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 하나도 없다!**

살아있는 거시적 연결 고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다윈주의자들은 거시적 변화가 수백만 년에 걸쳐 서서히, 조금씩 일어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관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석 기록에서 거시적 연결 고리가 없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면, 다윈주의자들은 ‘단속적 평형(Punctuated Equilibrium)’을 내세우며, 다윈주의적 진화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관찰 가능한 증거를 남기지 못했다고 선언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다윈의 진화론에 따른 진화는 화석 기록에 증거를 남기기에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가, 아니면 현재에서 관찰하기에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는가?** 과학적인 대답은 미세한 변화(적응, 변이)가 부모의 유전 정보 재조합이나 손실로 인해 특정 과 내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 고갈과 하나님의 품질 관리(QA)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윈식 진화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현재나 과거에 다윈식 거시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는 있을 수 없다(11장 참조).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창조 사건 동안 완전한 유전 정보를 갖춘 최초의 생명체를 만드셨기 때문에, 오늘날이나 화석 기록에서 다윈식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는 없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미세 변화(적응

또는 변이)는 원래 유전 정보의 선별이나 상실(유전자 고갈)로 인해 동일한 종류(과)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은 모든 종이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의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유전 정보로부터 유래(생성)되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운영과학이 밝혀낸 사실이다.

오캄의 면도날

관측 가능한 과학적 사실과 다윈식 변화를 뒷받침할 증거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다윈주의자들은 교육 및 과학계를 장악하고 있으며,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자신들의 신앙에 기반한 믿음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크레용을 빼앗고, 과학을 관측 가능한 증거의 연구에서 파생된 지식으로 되돌려야 할 때가 지참이다.

그리고 진정한 과학이야말로 신자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글: “제 인류학 교수님은 기린이 굶어 죽지 않기 위해 긴 목을 진화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리조나주(AZ)의 캐시.

러스: 1910년경 러디어드 키플링은 코끼리가 어떻게 긴 코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코끼리는 원래 돼지처럼 짧은 주둥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기 코끼리가 강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악어가 그 코를 잡아당겼습니다. 코끼리는 탈출했지만, 그 줄다리기 과정에서 주둥이가 늘어나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긴 코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1910년에는 그런 이야기를 동화책에 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런 허구적인 이야기를 대학 교과서에 실으며 이를 ‘인류학 과학의 최첨단’이라고 부릅니다. 다윈주의자들은 사실을 동화로 왜곡하는 것을 그만두고, 마치 과학인 양 자신들의 우화를 가르치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20-21.

“제가 열세 살 때 러스 씨가 ‘과학과 다윈주의의 대립’에 대해 강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8년 후, 대학에서 생화학을 공부하던 중 제 믿음이 여러 번 흔들릴 뻔했지만, 그때마다 러스 씨가 강의에서 밝혀주신 내용들을 떠올렸습니다. 수년 전 그날 저녁 덕분에 저는 제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애리조나주 아이린

제가 대학 캠퍼스에서 강연할 때면, 교수님들이 종종 학생들에게 강연에 참석해 저를 괴롭히면 추가 학점을 주곤 했습니다. 이는 강당을 가득 채워 제가 다윈주의를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게 해 주었기에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증오 어린 눈초리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먼저 “창조론이 종교적 신념이라고 배운 적이 있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시나요?”라고 묻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두 열정적으로 손을 들었죠! 그러면 저는 “진화가 과학이라고 배운 사람은 몇 명이나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다시금 그들은 광적으로 손을 흔들었죠! 그다음 저는 “하지만 창조론과 진화론은 모두 우리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믿음 아닌가요?”라고 물었습니다. 증오 어린 시선이 누그러지자, 그들은 “맞아요! 그런데 왜 진화가 과학이라고 배우는 건가요?”라고 배우는 거죠?”라고 묻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윈주의를 무너뜨릴 토대가 마련된 것이죠. 소위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희생자들과 대화할 때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러스

“러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과학적 사실들을 부지런히 수집해 왔으며, 이를 성경과 연결 지어 설명합니다. 그의 가르침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잭 스웬슨 박사, 전 북애리조나 대학교(애리조나주 플래그스태프) 화학학과 학과장



13

다윈주의: 공룡에서 새로; 영장류에서 인간으로

***“과학에는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토록 사소한 사실에 대한 투자로 그토록 방대한 추측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이죠.”*** 마크 트웨인

실증 과학은 신자의 진정한 친구이지만, 과학적 사실인 척 위장한 역사적 서사에 관해서는 마크 트웨인의 이 말이 여전히 정곡을 찌른다.

예를 들어, 오늘날 새는 존재하지만 공룡은 멸종했기 때문에, 다윈주의자들은 그 *무시무시한 도마뱀들이* 새로 진화했다고 믿는다. 역사는 공룡에서 새로의 진화 주장이 결국 또 다른 다윈주의적 참사가 되어, 수백만 명을 오도한 뒤 조용히 사라질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여전히 필사적인 다윈주의자들에 의해 밀어붙여지고 있는 지금, 몇 가지 쟁점을 다루어 보자.

새가 공룡에서 진화했다는 증거는 다윈주의의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되어야 하며, 다윈주의자들은 새와 공룡 사이의 유사성을 그 증거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공룡은 알을 낳았고, 일부는 새와 비슷한 발을 가졌으며(비록 조금 더 컸지만), 일부 공룡의 골반은 새의 골반과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 유사성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음을 증명한다는 주장은 이미 진부해진 논리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내가 이전에 지적했듯이, 유사성은 오히려 우리 모두를 창조하신 성경적 지성적 설계자의 존재를 더 잘 입증해 준다.

둘째, 다윈주의자들이 골반 구조가 유사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는 것은 솔직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공룡은 골반 구조에 따라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됩니다. 사우로포드와 같은 네 발 달린 거대 공룡과 티라노사우루스와 같은 이족 보행 공룡을 포함하는 사우리스키아(Saurischians), 그리고 파라사우롤로푸스와 같이 새와 유사한 골반 구조를 가진 오르니티스키아(Ornithischians)가 그것이다. 그러나 다윈주의자들은 새가 오르니티스키아에서 진화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신, 그들은 새와 유사한 골반 구조를 가지지 않았던 일부 사우리스키아가 새로 진화했다고 주장한다.¹³⁹

깃털로 진화하고 있던 구조를 가진 공룡이 과연 발견된 적이 있는지는 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다. 다윈주의자들이 깃털을 가진 공룡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사례와 깃털이 발달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례들을 제시해 왔으므로, 그들이 제시한 증거에 대한 해석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콤프소그나투스(Compsognathus)는 다윈주의 전도사들이 공룡과 새를 연결하는 깃털을 가진 중간 형태로 주장했던 작은 공룡이었다. 그러다 2017년에 잘 보존된 콤프소그나투스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 화석은 깃털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 비늘로 뒤덮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대대적으로 홍보되었던 파충류에서 새로 진화했다는 후보 화석은, USA TODAY가 “... 이 진정한 ‘누락된 고리’는... 1억2천만 년 전이 아니라 중국에서 밀반출되기 직전에야 비로소 꼬리가 돌아났다”고 보도하면서 중국 농부가 조작한 사기임이 드러났다.¹⁴⁰

게다가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헤드라인들은 끝없이 쏟아져 나왔다. 한 기사는 **“파충류와 새 사이의 ‘미싱 링크’ 발견!”**이라고 선전했다. 과학자들은 “... *난소가 두 개 있는 공룡 화석을 발견했는데, 파충류는 난소가 두 개인 반면 새는 하나뿐이므로, 이것이 파충류와 새 사이의 연결 고리임을 증명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룡은 파충류였으니 당연히 난소가 두 개였을 것이다!¹⁵⁷ 또 다른 기사는 *이렇게* 선언했다. **“과학자들이 조류 진화의 ‘누락된 고리’를 발견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중국 과학자들이 “*발에 물갈퀴가 있고 깃털을 가진 잠수오리와 유사한*” 수생 조류의 유해를 발견했다고 한다. 글썄요, 물갈퀴가 달린 발과 깃털을 가진 오리류는 이미 수두룩한데, 도대체 ‘누락된 고리’는 어디에 있는 거죠?! 연구자들이 오리에 폭 빠져서 그런 어이없는 결론을 내린 게 아닌가 의심스럽네요. 좋아요, 농담이 좀 심했네요. 하지만 다윈주의에 편향된 기사들은 저를 정말 ‘꽤’ 웃게 만듭니다.

다윈주의에 대한 또 다른 타격은 그들의 ‘원시 깃털을 가진 공룡’들입니다. 이 멸종된 파충류들은 깃털로 진화하고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화석들이 깃털을 가진 새의 유해가 있는 지층보다 더 위쪽의 지층에서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아르키오프테릭스(완전히 발달된 깃털을 가진)는 파충류와 조류 사이의 과도기적 연결고리라고 주장되지만, 과학자들은 현대 조류의 뼈를 “... *아르키오프테릭스보다 지질 기둥에서 훨씬 아래쪽에서...*” 발견했습니다.¹⁴² 이는 아래쪽 암석층이 그 위의 층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형성되었다는 가설에 기반한 ‘오래된 지구’ 신조에 따르면, 주장되는 원시 깃털과 추정되는 과도기적 연결 고리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완전히 발달된 깃털이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조류 전문가들은 깃털을 가진 공룡으로 추정되는 다른 사례들이 결코 공룡이 아니라, 이미 멸종된 날지 못하는 새들이었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다윈주의적 편향에 물든 서술에도 불구하고, 생존 가능한 깃털을 가진 파충류는 단 한 마리도 알려져 있지 않다.

깃털, 파충류의 비늘, 그리고 우리의 손톱은 모두 각질의 변형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핵심은 유전 정보에 있다**. 새의 깃털을 형성하는 유전적 지침은 새의 DNA에 담겨 있다. 이 데이터는 파충류의 비늘이나 우리의 손톱을 형성하는 유전 정보와 다르며, 실증 과학은 자연이 파충류의 유전자 풀에 깃털을 형성하는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한다.

깃털 그 자체도 거시적 서사에 있어 또 다른 문제점이다. 깃털은 매우 복잡한 구조로, 속이 비고 가벼운 줄기와 서로 교차하는 가닥들이 맞물려 강도와 유연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그물망을 형성하도록 설계되어 있다(깃털에 대해서는 20장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다). 따라서 털과 유사한 구조물들은 원시 깃털로 간주되어야 하는데, 다윈주의 조류 전문가 앨런 페두치아(Alan Feduccia)는 주장되는 원시 깃털들이 퇴화된 피부 조각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¹⁴³

여기에 공룡과 조류 화석이 동일한 지층에서 발견되어 양자가 공존했음이 입증된 사실을 더하면, 이는 다윈주의자들이 기만을 일삼으며 엮어낸 뒤엀킨 그물망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다.

다윈주의자들은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주장은 과학적 검증을 견디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윈주의에 편향된 역사적 서사는 마치 과학적 사실인 양 가르쳐지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오도하여 다윈주의적 진화의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믿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지식)을 경계하라.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이어진 창조 과정의 다섯째 날에 새를, 여섯째 날에 공룡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공룡이 새로 진화했다는 타당한 증거는 발견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관측 가능한 실증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흔히 다윈주의자들이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다고 생각한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그들의 현재 주장이 아닙니다. 만약 다윈주의자에게 “인간으로 진화했다면 왜 여전히 유인원이 존재하는가”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직접 진화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대신, 인간과 유인원은 공통된 영장류 조상을 가졌으며, 유인원은 한 방향으로 분화했고 인류는 다른 방향으로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다윈주의를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직접 진화하지 않았다면, 왜 다윈주의자들은 우리가 유인원으로부터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화석을 찾으려고 그토록 많은 시간을 쏟는 것일까?* 결국 우리 모두는 유인원과 인간 사이의 가장 가까운 진화적 연결고리로 여겨지는 호미니드 화석들을 보아왔기 때문이다. 호미니드 화석들은 모두 유인원이거나, 인간이거나, 아니면 완전한 위조품임이 조용히 밝혀졌으므로, 여기서 그중 몇 가지를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네안데르탈인은 1856년 독일의 네안데르 계곡에서 발견되었다.¹⁴⁴ 비록 철박한 다윈주의자들이 여전히 네안데르탈인이 유인원과 인간의 연결 고리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그들의 뇌는 우리보다 컸고, 우리와 동일한 설골(hyoid bone)을 가지고 있었으며(이는 그들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현대인들과 교배하기도 했다. 네안데르탈인은 또한 종교 의식을 거행했고, 악기와 도구, 사냥 도구, 장신구를 만들기도 했다. 정직한 결론은 네안데르탈인이 100% 인간이었다는 것이다. 1800년대 후반부터 과학 연구와 교육을 훼손해 온 압도적인 세속적 편견 때문에, 이러한 정보는 은폐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은 네안데르탈인이 성경을 반박한다고 오해하게 되었다.

루시(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 피테쿠스는 유인원을 뜻함)는 1974년 에티오피아에서 발견되었다. 그 이후로 그녀는 다윈주의의 구세주 역할을 해왔다.¹⁴⁵ 루시가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형태라는 소위 증거로는, 그녀가 직립 보행을 했으며, 인간의 대퇴골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대퇴골이 무릎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나무에 서식하는 유인원들은 대퇴골이 무릎 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1987년에는 다음과 같은 보고가 있었다. “*해부학자들은 이 생물들이 유인원과 인간의 중간 단계가 아니며, 인간과 같은 방식으로 직립 보행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¹⁴⁶ 세계적으로 저명한 인류학자 리처드 리키(Richard Leakey)는 루시의 두개골이 “... *파리 석고로 만든 상상력의 산물*”이라고 덧붙였다.²⁹²

그 후 발견된 다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Australopithecus afarensis) 화석들은 나뭇가지를 움켜질 수 있도록 발가락과 손가락이 구부러져 있다. 루시는 마치 인간처럼 직립 보행을 하는 것처럼 교과서를 장식하고 있으며,¹⁴⁷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오도하는 데 이용되어 왔지만, 그녀는 다윈주의가 실제로 적용된 것을 입증할 만한 타당한 증거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는 나무에 사는 유인원일 뿐이었다.

교과서들은 종종 ‘**평평한 얼굴의 인간**’(Kenyanthropus platyops)을 우리가 유인원의 후손이라는 증거로 제시한다. 2001년에 작은 유인원의 두개골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50조각으로 부서져 있었다. 다윈주의자들이 파편들을 재구성한 후, 그 얼굴이 일반 유인원의 얼굴보다 *약간 더 납작하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납작한 얼굴을 가진 인간’, 즉 ‘미싱 링크’가 탄생했다.¹⁴⁸ 절박한 다윈주의자들은 이를 세속 교과서에 실었으나,¹⁴⁹ ‘납작한 얼굴을 가진 인간’의 키가 ~40인치나 되었다는 사실은 생략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인류 **조상** 이야기는 **토메이인**(Sa-helanthropus)이다. 2002년에 발견되었을 때, 《사이언스 뉴스》는 “*이 표본의 치아는 ... 유인원 계통과 유사하며 ... 두 발로 걷지 않았다*”고 보도했다.¹⁵⁰ 《네이처》는

토메이인이 “... 고대 유인원을 대표한다”고 보도했다.¹⁵¹ 관찰 가능한 증거
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윈주의자들은 “... 이전에 알려진 어떤 호미니드보다 더 오래된” 존재라고 보도했다.¹⁵²

2009년 5월, 언론은 ‘이다’의 발견을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인간과 나머지 동물계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는 데 200년 이 걸렸다. 하지만 오늘 그 결과가 세상에 공개되었다... 이 과도기적 종은 마침내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입증한다.”¹⁵³ 다윈주의자들은 마치 이다가 새로운 발견인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26년 전인 1983년에 이미 발견된 바 있었다. 폭스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작은 유해는 생후 약 9개월 된 암컷으로, 아마도 현대의 여우원숭이와 매우 비슷하게 생겼을 것 이다.” 따라서 “찰스 다윈의 이론을 입증하는” 이다는 오늘날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긴꼬리 영장류의 한 종에 불과했던 것이다!

2009년 말, 『사이언스(Science)』의 특별호에서는 아르디(Ardipithecus ramidus)를 다윈주의 진화론의 또 다른 증거로 발표했다. 세속적 편향성을 띤 서술들은 아르디를 *인류 진화 역사에서 루시보다 더 중요한* 존재로 묘사했다. 나는 이미 루시와 그녀가 인류 진화에서 차지하지 않는 역할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밝힌 바 있으므로, 여기서는 아르디에 관한 몇 가지 사실을 제시하겠다.

아르디가 세상에 공개되기 18년 전, 에티오피아에서 약 40마리의 유인원 뼈 조각들이 발견되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뉴스는 그 뼈들이 상태가 너무 나빠 만지기만 해도 먼지로 변해버릴 지경이었다고 보도했다.¹⁵⁴ 아르디는 바로 이 뼈 조각들을 혼합하여 재구성된 것이다. 정직한 과학자들은 아르디가 유인원일 뿐이며, 이미 반박된 수많은 다른 다윈주의 주장들과 마찬가지로 유인원과 인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보고했다.

스토니브룩 대학의 해부학자 윌리엄 정거스는 “바깥쪽으로 벌어진 엄지발가락은 물건을 움켜쥐는 동작과 관련이 있으며,

이 화석은 상상할 수 있는 것 중 가장 크게 벌어져 있는 엄지발가락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아르디는 유인원이었다.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주장들의 행렬은 끝이 없다. 한 신문은 “**미싱 링크 발견!**”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해당 보도는 “*뼈가 인간의 뼈와 정확히 같기 때문에 이것이 미싱 링크임을 안다*”고 밝혔다. 흠. 어쩌면 그 뼈는 인간의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디스커버리 뉴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침팬지와 인간의 마지막 공통 조상은 여전히 과학계의 성배로 남아있다*.”¹⁵⁶ 사실, 침팬지와 인간 사이의 어떤 공통 조상도 다윈주의 신봉자들의 마음속, 이야기, 그리고 그림 속에서만 존재하는 성배일 뿐이다.

다윈주의자들이 허위 주장을 쏟아내는 동안, 네안데르탈인, 루시, 토메이인, 납작얼굴인, 이다, 아르디는 결국 자바인, 필트다운인, 네브래스카인, 베이징인, 오르세인, 라미피테쿠스와 함께 수십억 명의 사람들을 오도했던, 이미 허구임이 밝혀진 다윈주의적 유인원 목록에 이름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 점은 두 가지 의문을 제기한다. 오늘날 수백 종의 유인원과 원숭이가 살아가고 있으며, 지난 1,000년 동안만 해도 수백만 마리의 영장류가 살다 죽었는데, 왜 원숭이 뼈를 발견하는 것이 다윈주의적 진화가 사실임을 증명하는가? 그것은 단지 원숭이가 죽으면 뼈를 남긴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오캄의 면도날.**

2018년 5월 28일 『Human Evolution』에 실린 보고서는 인류를 포함한 모든 종의 90%가 불과 10만 년 전에 등장했으며, 그 사이를 연결해 줄 과도기적 종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놀라운 결과*”를 설명했다!¹⁵⁵ 9만 종의 미토콘드리아 DNA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발견은, 수십억년에 걸친 시간을 전제로 하는 다윈주의의 토대를 무너뜨리고, 과도기 화석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증한다!

이에 주 연구자는 “이 결론은 매우 놀랍고, 나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온 힘을 다해 저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실을 왜 거부하려 하는가?

다윈주의자들은 과학이 영장류가 인간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주는 수많은 화석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다시 한번, 다윈주의는 스스로 세운 핵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으며, 아무리 편향된 고생물학적 헛소리를 늘어놓아도 이 사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성경적 관점은 하나님께서 일주일간의 창조 과정 중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영장류, 유인원, 원숭이 또는 그 밖의 어떤 생물로부터 진화했다는 타당한 증거는 발견될 수 없다. 이는 실증 과학이 뒷받침하는 바이기도 하다. **오캄의 면도날**.

문자는 단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의미를 가지려면 특정 순서로 배열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구성 요소이며, 단백질이 기능을 하려면 정확한 순서로 배열되어야 합니다. 10의 80승은 절대 영도로 간주되며, 자연에서 단일 단백질이 형성될 확률은 10의 119,000승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가장 단순한 박테리아를 형성하는 데는 20개의 특정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이는 10의 119,000제곱에 10의 119,000제곱을 20번 곱한 값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분자의 수를 합쳐도 그 숫자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생명이 저절로 진화할 수 없는 것도 당연합니다. 러스 밀러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이들 모두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고, 친구들에게 선생님의 웹사이트를 소개해주었습니다.” 애리조나주 레슬리



14

다윈주의:

거짓된 지식의 홍수

우리 모두는 자신의 편견을 통해 사물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차이점은 우리 대부분이 그런 편향된 해석을 과학 서적에 담아 과학적 사실인 양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러스 밀러

다윈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설을 뒷받침할 만한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역사*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오캄의 면도날). 그 결과, 그들은 종종 제대로 이해되지 않은 것들을 자신들의 역사적 서사를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편향된 이야기들은 대개 진정한 과학이 그들의 그릇된 해석을 반박할 때면 결국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든다. 그리고 우리 대부분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반면, 절박한 다윈주의자들은 언젠가 무언가 통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다.

예를 들어, 1950년대부터 2013년까지 생물학 학생들은 ‘정크 DNA’가 우리의 다윈주의적 과거에서 남은 잔재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걸쳐 거대 진화를 겪었음을 증명한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왔다. 이는 기능이 밝혀지지 않은 인간 DNA의 상당 부분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다. 그러다 2013년에 연구 결과가 재-

이 유전 물질이 진화 과정의 잔여물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RNA/DNA 시스템의 열쇠를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밝혀졌다!¹⁵⁸ 다음은 다윈주의를 선전하고 대중을 오도하기 위해 이용된 잘못된 지식의 몇 가지 잘 알려진 사례들이다.

다윈주의자들은 해충이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을 다윈적 진화의 증거라고 가르친다. 이론적으로, 독에 대한 내성은 유전 정보의 돌연변이에 의한 손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돌연변이로 인해 유전적 손실이 발생하여 돌연변이체에서 특정 형질이 나타나지 않게 되고, 이 형질이 바로 살충제가 공격하는 대상이라면, 돌연변이를 일으킨 곤충은 이러한 손실로 인해 이득을 얻어 해당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내성의 드문 사례는 발견될 수 있지만, 유전적 손실은 돌연변이체의 유전자 풀에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하지도 않으며, 거시진화로 이어지지도 않는다

¹⁵⁹

다윈주의자들은 또한 박테리아가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것이 거대진화의 증거라고 가르친다. 예를 들어, 다윈주의자들은 종종 박테리아의 돌연변이가 항페니실린 효소의 대량 생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용한다. 그러나 이는 효소 생산을 중단하는 능력을 상실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며, 전반적으로 유익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는다. 생각해 보라. 만약 돌연변이 세균이 페니실린을 투여받고 있는 환자의 체내에 있다면, 이러한 기능 상실은 돌연변이 세균에게 이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그 외의 어떤 환경에서도 유전적으로 더 약한 돌연변이체는 불필요한 효소를 생산하는 데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어, 결국 더 빨리 사멸하게 될 것이다.¹⁶⁰ 세균이 항생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현상은 다윈주의적 변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지침서들은 종종 의심하지 않는 교육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다윈주의적 서사를 가르치도록 지시한다.¹⁶¹

다윈주의적 편향성을 띤 이야기들은 또한 돌연변이가 바이러스를 기존 의학 적 치료법에 내성을 갖게 하여 거시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관찰에 기반한 과학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종종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의 형태를 인식하고, 이에 결합한 뒤 파괴하도록 만들어졌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돌연변이로 인한 유전적 손실이 표적 단백질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면, 그 단백질이 항생제에 의해 인식되지 않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정보의 상실로 인해 치료법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다.¹⁶² 그러나 이 또한 유전 정보의 상실을 보여주는 예일 뿐이며, 새롭고 유익한 유전 데이터의 추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바이러스는 여전히 바이러스일 뿐이며, 정보의 상실은 새로운 종류의 생물을 탄생시키는 신다윈주의적 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생식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돌연변이체의 자손에게 전달된다면, 자손은 그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한 정보 손실을 그대로 물려받게 될 것이다. 돌연변이체들은 유전적으로 더 약해지겠지만(유전자 고갈), 여전히 조상들과 같은 종류의 생물일 것이다.¹⁶³ (신다윈주의와 유전자 고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1장을 참조하라).

다시 묻겠습니다. 왜 세속주의자들은 오늘날 교과서에 담긴 사기성 내용과 오도하는 정보를 거시적 변화에 대한 진정한 증거로 대체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유일한 논리적 대답은, ‘유전자 고갈’과 ‘하나님의 품질 관리 프로그램’으로 인해 다윈주의적 거시진화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들이 제시할 만한 타당한 증거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다윈주의자들은 종종 우리가 영장류의 DNA에서 발견되는 오류와 동일한 오류를 우리 DNA에서도 공유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오류들을 **‘의사유전자’**라고 부른다. 다윈주의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들은 영장류가 인간으로 진화했다고 그들이 믿는, 관측되지 않은 기간 동안 축적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과학 연구에서 인간과 기니피그의 의사유전자가 약 36%의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러한 편향된 해석에 대한 다윈주의자들의 희망은

는 실제 과학적 연구를 통해 인간과 기니피그의 의사유전자에서 약 36%의 동일한 오류가 공유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무너져 내렸다. 다윈주의자들은 우리가 기니피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믿지 않으므로, 이는 공유된 오류가 다윈주의적 진화의 증거라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다. 안타깝게도 의사유전자는 여전히 인간이 영장류에서 진화했다는 증거로 선전되고 있다.¹⁶⁴

내인성(스플라이싱) 레트로(역방향 복제) 바이러스, 줄여서 **ERV**는 인간이 영장류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또 다른 허위 주장이다.¹⁶⁵ 다윈주의자들은 관찰되지 않은 과거 어느 시점에 레트로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작은 RNA 가닥을 주입했고, 이 가닥이 스플라이싱을 거쳐 세포의 생식 관련 유전 정보로 역방향 복제되었다고 믿는다. 다윈주의자들은 ERV가 그 이후로 대대로 전해져 왔다고 믿는다. ERV가 같은 위치에 머문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다윈주의자들은 침팬지의 DNA 가닥에서 인간의 DNA 가닥과 유사한 위치에 있는 ERV를 찾으려 한다. 그런 ERV가 발견되면, 이를 우리가 침팬지와 공통 조상을 공유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ERV는 유전자 가닥을 따라 이동할 수 있으며 DNA의 다양한 위치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는 유사한 위치에서 발견된 ERV가 공통 조상의 증거라는 주장을 반박한다. 나는 진정한 과학이 결국 ERV가 소위 ‘정크 DNA’와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존재해 왔으며, 전체 RNA/DNA 시스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혀낼 것으로 기대한다.

또 다른 다윈주의적 이야기는 **인간 2번 염색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염색체는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반면, 유인원은 48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다윈주의자들은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이것이 인간이 영장류에서 진화했다는 증거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에 위치합니다. 다윈주의자들은 인간 2번 염색체 내에서 발견된 텔로미어를 지적하며, 이것이

두 개의 염색체가 또 다른 관찰되지 않은 영장류 조상에서 융합되어 인간 2번 염색체를 형성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텔로미어가 염색체에 포함된 유전 정보 내에서 흔히 발견된다는 사실은 무시되고 있다. 사실, 인간 2번 염색체 내에는 적어도 10개 이상의 다른 텔로미어가 발견된다!

또한, 만약 두 개의 원시 영장류 염색체가 융합되었다면, 인간 2번 염색체에서 주장되는 융합 부위 양쪽의 DNA 서열은 침팬지의 유전 서열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러나 관측 가능한 과학적 증거에 따르면, 인간 2번 염색체에는 영장류의 DNA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복잡한 유전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¹⁶⁶ 게다가, 만약 그러한 융합이 일어났다면, 24개의 염색체를 가진 영장류의 정자(또는 난자)는 23개의 염색체만을 가진 상대방의 난자(또는 정자)와 짝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며, 수정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융합된 염색체를 가진 생물은 멸종되었을 것이다.

인간 2번 염색체에 대한 이야기는 **유전 정보가 핵심이지**, 그 정보를 담고 있는 염색체의 수가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¹⁶⁷ 다윈주의를 뒷받침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담배 식물과 유인원은 모두 48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이들이 쌍둥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에른스트 헤켈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다윈의 이론을 홍보하기 위해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그림으로 묘사한, 다윈주의의 초기 선구자 중 한 명이었다. 헤켈은 다윈의 *『종의 기원』*을 읽었지만, 책이 출판된 지 10년이 지난 1869년이 되자 오늘날 다윈주의자들이 직면한 것과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다. 즉, 다윈의 가설을 뒷받침할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거대진화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헤켈은 오늘날 다윈주의자들이 악명 높게 행하는 바로 그 일을 저질렀다. 그는 일부 허위 증거를 ‘지능적으로 설계’한 것이다.¹⁶⁸ 그는

배아 단계의 인간을 그린 뒤, 각 그림에 약간의 변화를 주어 복사본을 만들고, 그것들에 병아리, 도롱뇽, 물고기 등의 이름을 붙였다. 그의 그림들은 배아 단계의 인간과 거의 동일했기 때문에, 그는 *개체발생이 계통발생을 재현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어머니의 자궁 안에서 과거의 진화 단계를 거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록 이것이 처음부터 사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생물발생법칙**’ 또는 ‘**재현설**’로 알려지게 되었다. 배아학자 마이클 리처드슨 박사는 “그(헤켈)가 한 일은 인간 배아를 가져다가 복제한 것뿐이다... 이것들은 위조품이다.”라고 밝혔다.¹⁶⁹

하켈의 그림이 1870년대에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학에서는 여전히 그 변형된 그림들이 공통 조상의 증거라고 주장되고 있다. 예를 들어, 다윈주의자들은 배아 단계에 있는 인간의 그림을 보여주며, 과거 진화 단계에서 인간에게 아가미 주머니와 꼬리가 있었다고 주장한다.¹⁷⁰ 진정한 과학은 인간 배아에 꼬리가 없으며, 주장되는 아가미 주머니는 우리 목의 기관으로 발달하는 부위라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입증해 왔다.¹⁷¹ 진실은, 19세기의 거짓 과학은 21세기에도 여전히 거짓 지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섬긴 자들에 대한 로마서 1장 25절의 **예언**을 실현하듯이... 다윈주의자들이 내세우는 두 가지 흔한 주장은 질서와 공학에 관한 것이다.

질서. 다윈주의자들은 토네이도, 암석 결정, 눈송이에서 발견되는 질서 정연한 구조가 신 없이도 자연적으로 질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무생물 체계의 질서가 생명체에서 발견되는 질서와 극도의

복잡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설득력을 잃는다. 토네이도, 암석 결정, 눈송이는 물리적 특성의 배열에 따라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반면 살아있는 세포는 DNA에 포함된 구체적이고 복잡한 유전 정보 덕분에 형성된다. 게다가 생명체와 달리 토네이도, 암석 결정, 눈송이는 영양분을 섭취하여 에너지로 전환하지도, 서로 소통하지도, 번식하여 자손을 낳지도 않는다. 오직 생명체만이 음식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이용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며 에너지를 생산하고, *자기와 같은 종류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¹⁷²

이러한 사실과 논리는 생명체의 존재 이면에 극도의 지성을 지닌 근원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공학. 다윈주의자들은 유전공학자들이 DNA를 조작하여 생명체를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이는 자연 선택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제11장에서 존재하지 않는 ‘자연 선택자’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공학에 대해 논하겠다.

유전자 공학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실험 장비와 컴퓨터를 갖춘 실험실에서, 고도로 훈련된 유전자 공학자들이 주도하여 수행한 수천 명의 다른 연구자들의 발견을 바탕으로 구축된 것이다. 이러한 의도적이고 지적인 공학은, 한 종류의 동물이 다른 종류로 거시진화하게 만드는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생성하는 무작위적 돌연변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예를 들어, 인간의 막대한 지적 개입을 통해 물고기를 개구리로 변형시키는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다윈주의적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까? 물론 아니다! 이는 눈에 띄는 거시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지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드러낼 뿐이다.

예를 들어, 6층 건물 꼭대기에서 벽돌 더미를 무작위로 떨어뜨린다면, 벽돌
집이 만들어질 확률은 절대적으로 제로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지성을 동원
해 계획하고 건축한다면, 그 벽돌 더미는 아름다운 집으로 변모할 것입니다
. 사실, 무작위로 발생하는 실수와 의도적이고 지적인 설계는 엄청나게 다
른 결과를 낳습니다.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실증 과학은 결국 잘못된 다윈주의적 ‘점액에
서 동물원, 그리고 인간으로’라는 서사를 반박할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과서와 박물관에서 그러한 이야기들이 제거되기까지는 여전히 수년이 더
걸릴 것이며, 그 자리는 다윈주의 진영에서 쏟아져 나오는 또 다른 사기들로
대체될 뿐이다.

과학계의 다윈주의자들은 “*과학은 스스로 바로잡는 성질이 있으므로 진실
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자만하며, 기금을 기꺼이 수령하고 월급을 챙기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오도하고 있다. 허위 보고서의 홍수는 진정한 과학적
발견들마저 압도하여, 과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들리는 헛소리의 눈사태 속에
묻혀버리게 만든다.

그 결과, 오늘날의 과학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과학적 돌파구*로 전 세계에 발
표된 후 철회되는 연구 보고서의 수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상황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뉴잉글랜드 저널》의 편집장 마르시
아 앤젤은 “*더 이상 발표된 임상 연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¹⁷³

영국의 저명한 의학 저널인 『랜싯(The Lancet)』은 과학자들이 자신의 논
문을 직접 동료 심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이미 출판된 수십 편
의 논문을 철회해야만 했다! 『랜싯』의 편집장인 리처드 호튼(Richard
Horton)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학 문헌의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과학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세계관에 맞추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가 너무 빈번하다.”¹⁷⁴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표된 암 연구의 대부분이 결함이 있거나 검증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¹⁷⁵, 과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많은 이들이 자신의 초기 신념에 부합하는 결과만 보고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목할 만한 사례로 저명한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잭 쇼스타크(Jack Szostak)를 들 수 있다. 그는 RNA가 스스로 복제될 수 있음을 입증하여, 생명이 화학 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발표했다. 생명이 저절로 시작될 수 없다는 점은 항상 다윈주의에 있어 큰 걸림돌이었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발견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편향된 신념에 눈이 멀었다고 말하며 현재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¹⁷⁶

동료 심사 과정은 대개 문제 중 하나인데, 심사 위원회는 종종 해당 분야에서 가장 편향되어 있고 현실과 동떨어진 실무자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8가지 중대한 오류가 있는 논문이 『영국 의학 저널(The British Medical Journal)』에 제출되었을 때, 이를 심사한 200명 이상의 과학자 중 단 30%만이 기각을 권고했다.¹⁷⁷ 그리고 일단 오류가 있는 논문이 출판되면 신문, 잡지, 웹사이트, 교과서 등에 재게재될 수 있다.¹⁷⁸

박사 학위 취득 및 종신 재직권 획득 과정은 유망한 젊은 과학자들이 수십억 년에 걸친 시간이 다윈주의 진화론으로 이어진다는 기성 학계의 패러다임에 굴복하도록 강요하는 데 치명적으로 효율적이 되어버렸다. 그 외의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은 경력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성적, 학위, 취업 기회, 논문 게재, 연구비 지원 등을 영원히 받지 못하는 형태로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¹⁷⁹

뉴욕타임스가 ‘록스타’라고 칭한 예일대 데이비드 게를렌터 교수는 다윈의 진화론이

“사실상 반증되었으나... 많은 학자들에게는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선언했다.¹⁸⁰ 게를렌터 교수는 “이 이론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들은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왔다”고 덧붙였다.¹⁸¹ 정직한 연구자들이 겪은 박해의 사례를 보려면 벤 스타인의 다큐멘터리 『Expelled: No Intelligence Allowed』 나 제리 버그만 박사의 저서 『Slaughter of the Dissidents』 를 참고하라.

다윈주의적 거대진화는 그 자체의 핵심 기준을 지속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이것이 과학이라면 다윈주의는 반박되었을 것이지만, 다윈주의는 기원에 대한 종교적 신념으로서, 수십억 년에 대한 믿음과 결합되어 세속적 세계관의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다.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마이클 루스 교수는 “진화는 종교다. 이는 진화가 시작되었을 때도 사실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295

다윈주의에 대한 반증 자료가 계속 쌓여감에 따라, 그 붕괴를 은폐하기 위한 더 많은 허위 주장과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 등장할 것이다. 철학자 말콤 머거리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진화론은... 미래의 역사책에서 가장 큰 농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후세 사람들은 그토록 허술하고 의심스러운 가설이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할 것이다...”¹⁸⁴

전 하버드 대학교 생물학 교수 리처드 르윈틴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진화론적) 과학의 편을 든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유물론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방법론이... 어떻게든 우리에게 물리적 설명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신의 발이 문틈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¹⁸²

다윈주의가 법원 판결, 소송, 강압을 동원해야만 겨우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과학 이론인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존재하는 한,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과, 의심해서는 안 되는 답이 있다고 강요받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요점은 사람들이 관찰에 기반한 과학과, 마치 과학인 양 가르쳐지고 있는 다원주의적 편향의 역사적 서사를 신중하게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거짓으로 불리는 과학을** 경계하라(디모데후서 6:20-21).

다윈은 “*각 문제의 양측에 있는 사실과 논거를 완전히 제시하고 균형을 잡아야만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¹⁸³ 고 말했습니다. 글썄요, 다윈주의 교리를 관찰 가능한 과학적 사실과 타당한 경쟁 가설들과 비교하는 일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어야 했습니다.

이에 비해, 성경은 끊임없는 공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구절도 반박되거나 철회된 적이 없습니다. **오캄의 면도날.**

본문: “제 교수님이 신약성경을 조롱하며, 고대 사본 분석 결과 20만 개의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러스:** 신약성경의 정확성을 뒷받침하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1 세기에 작성된 신약성경의 전체 또는 부분 사본이 14,000개 이상이며, 2~4세기 교회 교부들의 인용문이 약 36,000건에 달해, 단 11 절만을 제외하고 신약성경을 재구성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들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문법적 오류나 철자 변형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2,000개의 사본 중 한 구절에 나오는 한 단어의 철자 변형 하나를 2,000개의 오류로 계산합니다! 만약 그 단어가 10개 구절에 등장한다면, 그 하나의 철자 변형은 20,000개의 오류로 집계되는 셈입니다! 주제가 무엇이든 간에, 저는 이 거짓 교사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 회의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년 넘게 ‘회의론자 협회(Skeptics Society)’ 회원들이 저를 따라다니며, 제가 강연하는 곳마다 자신들의 종교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열린 질의응답 시간에, 그 단체의 회장이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고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단체의 회장님이신가요?” “회의론자 협회입니다.” 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회의론자이신가요?” “물론이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글쎄요, 방금 저는 다윈주의를 홍보하기 위해 사용된 몇 가지 사기 수법을 폭로했습니다. 회의론자로서, 생물학 교수들이 이런 거짓말을 가르친다고 해서 그들을 괴롭히시나요?” 그는 말을 더듬으며 “아니요. 우리는 다윈을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 사실 ‘회의론자 협회’ 회장이 아니라 ‘위선자 협회’ 회장인 거 맞죠?” 그 이후로 그들은 저를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은 사람이 어리석은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러스

“저는 생물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태아의 아가미 틈에 대한 예를 들었는데, 선생님께서 그건 단순히 피부 주름일 뿐이라고 밝혀주셨죠.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오리건주(OR)의 제시

다윈주의 생물학자 두 명과 토론하던 중 제가 물었습니다. “왜 암석층에서 과도기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나요?” 그들은 “다윈주의 진화는 암석층에 기록될 만큼 충분히 천천히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단속적 평형설).”라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오늘날 거시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걸까요?”라고 묻자, 그들은 “다윈주의적 변화는 긴 세월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혼란스럽네요. 다윈주의적 진화는 증거를 남기기에는 너무 빠르게 일어나는 건가요, 아니면 눈에 띄기에는 너무 느리게 일어나는 건가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와, 이건 우리만의 종교적 신념이네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믿으세요. 하지만 순진한 아이들에게 여러

분의 신념을 과학인 양 가르치는 건 그만두세요.” 러스



15

악의 홍수 열매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 6개의 장에서, ‘오래된 지구 신념’이라는 나무에서 맺힌 ‘최악의 악의 열매’라고 제가 여기는 다윈주의 진화의 핵심적인 예측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오래된 지구 신념’이 낳은 또 다른 일곱 가지 ‘악의 열매’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개념과 *다윈주의*는 결합하여 자연주의와 인본주의가 번성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자연주의는 물질주의적 무신론이라고도 불리는 세계관이다.¹⁸⁵ 자연주의는 오직 물질만이 존재하며, 인간의 영이나 영혼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자연주의는 자연에 대한 모든 초자연적 또는 형이상학적 설명을 거부하며, 자연과학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유일한 기초라고 본다. **인본주의**는 자연주의에 기반을 둔 세계관이다.¹⁸⁶ 인본주의자들은

도덕이나 의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초자연적 원인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며, 인간이 가장 진화한 동물이며 본질적으로 스스로의 신이라고 믿는다.

자연주의와 인본주의 모두 인간을 참나무나 개미와 마찬가지로 자연의 일부로 간주하며, **이는 로마서 1:21-23의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오히려 헛된 생각에 빠져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했으나 어리석게 되어, 썩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들의 형상으로 바꾸어 버렸다.**

한편, 성경에 기반을 둔 기독교는 성경과 과학, 논리, 그리고 창조 그 자체를 통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결론 짓습니다. 예를 들어, **엔트로피 법칙**은 물질이 영원히 존재해 온 것이 아님을 증명하며, 질량과 에너지 보존 법칙 및 논리에 따르면 물질이 무에서 갑자기 생겨날 수는 없었습니다(8장 참조). 사실, 성경은 피조물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데 대해 변명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다고 과감하게 선포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이므로, 그들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로마서 1:20).**

찰스 다윈의 사촌인 프랜시스 갤턴 경은 ‘**우생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으며, ¹⁸⁸ ‘우생학’이라는 용어는 ‘**좋은 혈통**’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단어들의 조합에서 유래했다. 우생학은 인간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개선하는 학문 분야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는 훌륭한

노력처럼 들린다. 그러나 역사는 우생학의 추구가 ‘가치 없는 유전자 풀’을 제거하고 미래 세대의 신체적·정신적 특성을 개선한다는 명목 하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조기 사망을 초래했음을 보여준다. 비윤리적인 우생학자들은 강제 불임 수술 프로그램, 낙태, 영아 살해, 안락사, 집단 학살, 민간 전쟁, 그리고 동성애 생활 방식의 조장(동성애자는 번식하지 않음)을 통해 자신들이 ‘가치 없는 유전자 풀’이라고 판단한 사람들을 제거해 왔다.

나치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우생학을 실제로 적용한 이후, 이 용어는 사용이 금지되었다.¹⁸⁹ 『우생학 연보(The Annals of Eugenics)』는 『인간 유전학 연보(The Annals of Human Genetics)』로, 『우생학 분기별지(Eugenics Quarterly)』는 『사회생물학 저널(The Journal of Social Biology)』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생학은 전 세계 대학 캠퍼스, 정치적 논의, 그리고 실제 현장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 낙태, 동성애적 생활 방식, 트랜스젠더주의, 그리고 태아부터 장애인, 노인에 이르기까지 ‘삶의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살해하는 행위의 조장 등은, 우리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역사는 반복될 것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성경적 관점은 모든 인간의 생명이 소중하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때문입니다(창세기 1:27).

인간이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탄생한, 단지 고도로 발달한 동물에 불과하다는 생각은 타인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고자 하는 정치 권력자들이 전적으로 받아들여 왔다.

‘**정치는 생물학의 응용이다**’라는 믿음은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진화 과정*을 전제로 한다.

나치즘은 확실히 ‘**정치는 생물학의 응용**’이라는 주장의 한 예였다. 사기적인 ‘**재현설**’

(제14장)의 창시자인 에른스트 헤켈은, 독일인이 가장 진화한 우월한 인종이며 세계를 지배할 자격이 있다고 믿었던 아돌프 히틀러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 히틀러가 일으킨 세계 대전 외에도, 나치 정권은 강제 수용소에서 1,300만 명을 학살했다. 1971년에 출간된 『국가사회주의의 과학적 기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회 다윈주의는... 히틀러 치하의 나치 독일에서 절정에 달했으며... 히틀러는 최고의 진화론자였고, 나치즘은 진화 나무의 궁극적인 열매였다”¹⁹⁰

카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의 아버지**로 불린다. 1800년대 그는 철학자이자 정치 운동가였다. 그는 『공산당 선언』(1848)과 『자본론』(1867)을 저술했다. 그는 *다윈주의로 이어진 수십억 년의 역사*를 환영했는데, 그러한 신념들이 사회에서 신을 몰아내는 데 도움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신이 부여한 본질적인 도덕성과, 인간의 생명이 *신의 형상대로 지어졌기*에 특별한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도 포함되었다. 마르크스는 “내 삶의 목표는 신을 왕좌에서 몰아내고 자본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르크스주의는 경제적·사회정치적 세계관이다.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을 실천에 옮긴 것으로, 생산 수단과 서비스의 공동 소유에 기반한 계급 없는 체제가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개인이 재능을 개발할 자유가 보장되는 완벽한 유토피아가 될 때까지 더 나은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는 믿음을 포함한다. 이 무신론적 체제는 인류의 최악된 본성(일부는 게으름, 다른 일부는 권력과 부에 대한 탐욕)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실패한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는 수천만 명의 자국민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며, 이는 둘 다 ‘*정치는 생물학의 적용*’이라는 주장의 악한 사례로 꼽힌다.

마르크스주의 독재자 마오쩌둥은 *정치가 생물학의 적용이라고* 믿었다.
그는 1949년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에서 6천만 명을 학살했으며, 찰스 다윈을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 꼽았다.¹⁹¹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에는 정부가 공립학교에서 어린이들에게 무료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 공립학교 제도의 초대 의장인 호레이스 맨은 *공교육의 아버지로* 추앙받고 있다. 그는 “*교육이라는 신성한 대의에 헌신하는 우리에게서 모든 부모가 우리 대의를 위해 인질을 내놓은 것으로 간주할 권리가 있다*”고 썼다.¹⁹²

존 듀이(1859-1952)는 심리학자, 정치 활동가, 교육 개혁가였으며, 미국 최대의 무신론 단체인 *미국 인본주의 협회*의 초대 회장이었다. 그는 또한 *다윈주의 진화를 뒷받침하는 수십억 년에 걸친* 신념을 바탕으로 작성된 최초의 『*인본주의 선언문*』(1933)에 서명한 34인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는 미국의 공교육에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 미국 공립학교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진보주의 교육*을 장려했다.

히틀러, 마르크스, 듀이는 젊은 세대를 자신들의 세계관으로 세뇌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교과서를 장악하는 자가 미래를 장악하게 될 것임을 깨달았다.

성경의 관점은 ... **악한 자들과 미혹하는 자들은 점점 더 악해질 것이 라는 것**이다(디모데후서 3:13).

2006년 11월, 뉴욕타임스는 우주과학연구소(Space Science Institute)의 캐롤린 포르코(Carolyn Porco)의 말을 인용하여, “...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우주의 이야기를 가르쳐야 한다... 그 이야기는 어떤 경전이나 신이 제시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영광스럽고 경이롭다 ... 어떤 경전이나 신이 제시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²³³

성경적 관점은 어떤 사람들은 **꿈임없이 배우면서도 결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며, **마음이 타락하고 믿음에 있어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것이다(디모데후서 3:7-8).

1962년까지 미국의 공립학교에서는 매일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드려졌고, 창세론이 성경에 근거하여 자주 가르쳐졌으며, 미국의 공립학교는 수학, 과학 및 전반적인 교육 수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1962년부터 1963년 사이, **기도와 창조론은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이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다.**¹⁹³ 오늘날 미국의 공립학교는 선진국 중 하위 15%에 속한다.

1962~1963년 미국의 운명을 좌우한 결정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도덕적 지침을 배제했으며, 이는 **미국 사회의 도덕적 붕괴**로 이어졌다. 1965년이 되자 마약 문화와 성 혁명이 전국적으로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 당시 성병은 두 가지에 불과했으나, 오늘날에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해 50가지 이상이 있다.

1962년, 공립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수업 중에 제 차례가 아닌데 말을 하거나 껌을 씹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의 문제로는 알코올 및 약물 남용, 집단 강간, 십대 임신(550% 증가 — 미국 보건복지부), 낙태, 트랜스젠더주의, 대량 살인, 자살(자살률이 3배 증가 — 국립보건통계센터) 등이 있으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많은 아이들이 이제 스무 살이 되기 전에 교회를 떠나고 있다.²³⁴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 미국 사회가 세워진 도덕적 토대를 크게 훼손하는데 기여한 수많은 급진적 단체들이,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역사적 뿌리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급진적 환경 단체, 급진적 여성 해방 운동, 대안적 생활 방식 단체, 그리고 급진적 동물권 단체들이 포함되었다.

동물권 운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터 싱어는 “기독교는 우리의 적이다. 동물권 운동이 성공하려면 우리는 유대-기독교적 종교 전통을 파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숭배하고 섬긴 자들**”(로마서 1:25)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현재 미국 사회는 절대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철학적 관점인 ‘**도덕적 상대주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각 개인과 사회가 무엇을 용인하느냐에 달려 있다. 낙태, 포르노(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포르노 수출국이다), 동성 결혼, 주술, 사탄 숭배(미국에서 이교도 신자는 18개월마다 두 배로 증가하고 있다)¹⁹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 비열하거나,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오만하거나,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다. 비방은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할 사실이 없는 이들에게 언제나 마지막 보루가 된다. 사울 알린스키가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사울이 누구냐고?

1971년, 신마르크스주의자 사울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Rules for Radicals)**』이 출간되었다. ‘**원조 커뮤니티 조직가**’로 알려진 알린스키는 이탈리아의 신마르크스주의자 안토니오 그람시의 전술을 바탕으로, 한 국가(미국)를 공산주의 국가로 바꾸기 위한 규칙을 세웠다. 신마르크스주의란 마르크스의 저작에서 다루지 않은 질문들에 답을 찾으려는 방법론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알린스키는 서문에서 루시퍼를 기성 체제에 반기를 든 최초의 급진주의자로 인정했다.¹⁹⁵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의 두 가지 주요 목표는

국가 문화를 타락시키고 내부에서 붕괴시켜 마르크스주의 정권이 장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이 나라 법의 근본적 토대는 모세가 산 위에서 받은 것(십계명)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도덕적 토대를 갖추지 못한다면, 결국 전체주의 정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¹⁹⁶

알린스키는 “*지역사회 조직화의 첫 번째 단계는 지역사회 해체이다*”라고 말했다. 그의 **제1 원칙**은 *갈등을 유발하여 사람들을* 서로 적대적인 대립 집단으로 **분열시키는** 것이다. 그는 *지역사회 조직가*가 인종, 종교, 소득, 성별, 정치적 성향 등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이용해 갈등을 조성함으로써 사람들을 분열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람들은 갈등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알린스키의 **제2 원칙인 ‘타협’**으로 흘러가게 된다. 모든 집단은 특정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협은 항상 그들의 원칙에서 멀어지고 급진적인 입장으로 향하게 된다.

세 번째 원칙은 자신의 원칙을 고수하며 타협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주변화되어야** 한다. 알린스키는 **조롱이 급진주의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주장했다. 반대파를 인종차별주의자, 근본주의자, 멍청이, 사랑이 없는 사람 등으로 비하함으로써, *커뮤니티 조직가*는 사람들이 타협을 거부하는 이들과 거리를 두게 하여 급진주의자의 반대자를 주변화시킨다. 우리는 오늘날 미국 사회 전반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실제로 작용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있다.

인간을 단지 진화하는 동물로 여기는 믿음 아래, 1973년 미국에서 **낙태가 합법화**되었다. 낙태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기독교인을 포함해 많은 여성들이 낙태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여성 중 한 명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아주십시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하나님께서서는 즉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분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십시오(즉, 죄책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남성들을 위한 메시지입니다(우리가 좀 둔감할 수 있으니까요): 여성이 낙태를 했다면, 남성도 낙태를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만약 이 말이 당신에게 해당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마가렛 생어는 1916년, 그녀가 ‘*인간의잡초*’와 동양인, 유대인, 흑인을 포함한 ‘열등한 인종’이라고 칭한 존재들을 제거하기 위해 ‘플래너드 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를 설립했습니다.¹⁹⁷ 우생학을 옹호했던 생어는, *인류가 기독교의 폭정에서 해방되는 날*을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가르치며,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잘못된 일로 간주합니다).¹⁹⁸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7,00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이 **낙태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 전 세계적으로는 30억 명 이상의 무방비 상태의 아기들이 학살당했다.

텍사스 과학 아카데미에 따르면, 2006년 ‘텍사스 우수 과학자’로 선정된 인물은 텍사스 대학교 교수인 에릭 피안카였다. 그는 인간이 단지 진화 중인 동물에 불과하다는 믿음을 되풀이하며, 지구가 “*뚱뚱한 인간 바이오매스*”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58억 명(당시 세계 인구의 95%)이 죽어야 한다고 말했다. 급진적 환경주의 신문인 『와일드 어스(Wild Earth)』는 “*호모 사피엔스의 멸종... 인류의 점진적 소멸은 지구상의 모든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¹⁹⁹

이것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시간이라는 악의 나무 가지에 매달려 있는 타락한 열매들 중 일부이다. 나는 앞선 장들에서 첫 번째 열매인 다윈주의에 대해 논의했다. 나는 가장 극악한 열매를 17장에서 다루기로 했다. 하지만 먼저,

다음 장에서 아홉 번째 열매인 ‘미국의 기독교 유산 상실’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우리는 25년 동안 유신진화론자였습니다. 선생님의 첫 세 번의 세미나를 듣고 나서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콜로라도주의 밥과 캐를

“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강연을 들으셨는데, 선생님께서 전하신 내용이 다윈주의에 대한 믿음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놓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애리조나주(AZ)의 대릴

“제 교회에서 선생님의 강연을 들었기 때문에, ‘원숭이 인간’에 대한 뉴스 헤드라인을 읽었을 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글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사실이다.’ 감사합니다!” 아이다호주(ID)의 제리

저는 그랜드 캐니언 IMAX 극장에 있던 젊은 여성에게 “창조론 투어 단체를 위해 티켓 55장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대체 뭘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계속 떠들어대는 낡은 동화 같은 이야기 대신, 이 협곡이 실제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털어놓았습니다. “글쎄요,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에 가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는 걸 배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무신론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교수들에게 속은 거예요. 잠시 쉬고 싶으시다면, 제 그룹이 영화를 보는 동안 이 문제들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무엇이든 대답해 드릴게요.” 그녀는 그렇게 했고, 저는 그녀의 수십 가지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그런 의문을 품고 있으며, 필요한 답을 얻지 못하면 그 의구심은 불신으로 번

저갑니다. 우리에게는 그 답이 있습니다. 러스



16

상실된

미국의 기독교 유산

“기독교의 기둥들이 무너질 때마다, 우리의 현재 공화주의적 정부 형태는... 그와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다.”^{200명의 건국 아버지}

지 중 한 명, 제디디아 모스 박사

미국을 내부에서 파괴하려는 적이라면 두 가지를 성취해야 한다. 첫째, 시민들이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인

COST(용어집 참조)에 대한 신앙을 파괴해야 한다. 둘째, 미국의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재작성해야 한다. 이는 일관된 노력과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하는 노골적인 공격이며, 지난 20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왔다.

이 계획은 단순하지만 교묘합니다. 이 나라의 아이들에게 창조주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고 가르치고, 시민들이 성경적 토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세대 만에 ‘우리 국민’은 우리에게 자유를 부여해 주신 창조주를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학교 아이들에게 미국의 기독교적 유산을 지우고 국가의 진정한 과거를 축소하는, 재구성된 미국 역사를 가르침으로써, ‘우리 국민’은 우리가 물려받은 것을 지키기 위해 나설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1800년대 후반, 프린스턴의 A.A. 호지(A.A. Hodge) 박사는 다음과 같이 예측했습니다.

A.A. 호지 박사는 “...중앙집권적인 국가 교육 체제...는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인 불신을 확산시키는 가장 끔찍한 도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²⁰¹

미국 역사에 대한 주된 공격은 이 나라의 자유를 주신 성경적 근원에 집중되어 왔다. 미국의 적들에게는 미국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평범한 미국 시민들의 마음과 정신 속에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훼손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했다. 이를 깨달은 미국의 적들은 이 나라의 아이들을 표적으로 삼았다. 우리가 화해해야 할 사랑이 넘치는 창조주의 존재에 대한 아이의 믿음을 훼손하면, 그 아이에게 권리를 부여한 창조주가 있다는 믿음 또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 세대에 걸쳐 헌신적인 인본주의자들은 자신의 삶과 자원을 바쳐, 현재 미국 공교육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을 확보해 왔습니다. 오늘날의 인본주의 교과서 대부분을 읽거나, 대부분의 세속 대학 교수들이 진행하는 역사 수업을 듣다 보면, 기독교는 미국 건국과 거의 무관한 일련의 신화에 불과하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 나라가 누려온 성취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도다”**(호세아 4:6).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칼 마르크스는 한 나라를 혁명적으로 장악하는 길은 그 문화가 가진 유산에 대한 지식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유산이 없는 사람들은 쉽게 오도될 수 있으며*, 조국을 위해 일어설 이유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알았다. 그는 첫 번째 전장이 한 나라의 역사를 재작성하는 것임을 이해했으며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 행복을 위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종교의 폐지이다*”²⁰² 그의 사상은 헛되이 지나가지 않았다.

지난 60년 동안 미국의 역사는 재작성되거나 무시되어 왔다. 미국의 학생들은 자국의 기독교적 뿌리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채 자라나고 있다. 역사 수정주의자들, 특히 교과서 저자, 편집자, 출판사 관계자들은 미국의 유대-기독교적 유산을 부정하거나 아이들을 당황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국의 건국 아버지들을 부끄러워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교사용 교과서에는 “제퍼슨이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고 썼을 때, 그가 실제로 의미한 것은 ‘모든 시민’이었으며, 여성과 흑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²⁰³ 이는 명백한 반미 선전에 불과하다. 독립선언문의 문맥을 보면 ‘**모든 사람**’이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음을**(창세기 1:27) 가리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교사용 교과서에 실린 학생용 역할극 연습 예시입니다.²⁰⁴ “*기독교의 부상에 불안감을 느끼는 로마인의 역할을 맡아, 왜 기독교에 반대하는지 설명하는 편지를 써 보십시오.*” 이런 종류의 선전이 감수성이 예민한 젊은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의 진정한 역사가 왜곡되어 왔다는 사실은 2007년 아내 조안나와 함께 워싱턴 D.C.를 여행하던 중 저에게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수도를 방문하는 동안 우리는 국립미술관에 전시된 그림과 드로잉에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미국 초기 역사의 예술 작품 대부분이 성경적 주제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물관을 나온 후, 우리는 수도에 있는 여러 연방 기관과 기념관을 방문하며 매료되었습니다. 많은

석벽에는 건국의 아버지들 중 일부가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감사함을 표하는 인용구들이 새겨져 있어 우리를 매료시켰습니다. 또한 십계명과 성경 구절, 간증들이 황동에 새겨지거나 대리석, 화강암에 조각된 모습도 발견했는데, 이 모든 것은 미국이 한때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과 의지심을 가졌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수도를 방문하고서는 이 나라가 주로 기독교인 남녀들에 의해, 주로 기독교적 원칙에 따라 건국되었으며,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국가 역사의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한 과거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미국 시민들은 권력자들이 그들 앞에 내세우는 어떤 것이라도 믿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영적인 악의 세력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에베소서 6:12).

미국으로 항해를 떠난 초기 탐험가들과 정착민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청교도들, 그리고 필그림들이 포함됩니다. 예일이나 하버드와 같은 대부분의 대학들조차도 기독교 기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700년대 초반이 되자 기독교 교회와 13개 식민지의 백성들은 모두 참된 성경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학들도 결국 세속적 타협의 유혹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후 1732년부터 1776년까지 뉴잉글랜드에서 시작된 첫 번째 ‘대각성 (*Great Awakening*)’이 일어났습니다.

²⁰⁵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몇몇 목사들이 강단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는 메시지를 다시 전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곧 영국 출신의 전도자 조지 화이트필드가 그들과 합류하여 마을 광장과 들판, 초원에서 설교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쏟아부으셨으며 군중은 수천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첫 번째 대각성이 확산되자, 다른 목사들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고 선포하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13개 식민지는 ‘하나님 아래 한 나라’로 통합되었다.

식민지 주민들이 창조론에 기반한 세계관을 고수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다”는 말을 들을 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희생이 어떻게 믿는 자들을 하늘에 계신 창조주와 화목하게 할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의 초반부에서는, 창조론적 세계관을 고수하던 유대인들과 토론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언하며 논의를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²⁰⁶ 유대인들은 성경적 기초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왜 구주가 필요한지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선언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13개 식민지에 살던 사람들도 창조주와의 관계에서 구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자 대각성 운동이 시작되었고, 13개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되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그들은 독립 전쟁을 통해 이를 확보했다. 사실, 자유의 종(Liberty Bell)에는 레위기 25장 10절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 “온 땅과 그 모든 주민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독립 전쟁으로 이어진 건국 아버지들의 저술과 명언, 그리고 기독교 목사들의 설교들은 미국이 십계명을 포함한 기독교적 원칙을 주된 토대로 세워졌으며,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줍니다.

노아 웹스터(1758-1843)는 최초의 미국 사전을 집필했으며, 당시 미국의 청소년들이 세계에서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아이들 중 하나였던 시절, 미국 어린이들의 교육에 사용되었던 『블루 백 스펠러(Blue Back Speller)』를 편찬했다. 웹스터는 “*우리의 자유, 성장, 번영은 삶에 대한 성경적 철학의 결과였다*”고 말했다. 그는 “*기독교는.....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 중 하나*”라고 증언했다.²⁰⁷ 웹스터는 “*자유로운 국민의 권리와 특권을 보장하려는 어떤 정부라도 기독교를 그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듯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다.²⁰⁸ 그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모든 미국인이 창세기 초반부의 내용과 성경의 창조주가 미국 시민들에게 부여한 자유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알고 있었다.

미국 초대 공중위생국장이며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러시 박사는 “*...공화국의 유일한 토대는 종교에 놓여야 하며... 기독교만이 유일하고 참되며 완전한 종교이다.*”라고 말했다.²⁰⁹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체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오늘날 완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들도 완벽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건국의 아버지들 중 독립선언서 서명자 56명 중 52명(93%)과 미국 헌법 초안 작성자 55명 중 52명(95%)이 기독교인이었다.²¹⁰

국가의 형성기이자 독립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 주 헌법들에는 기독교 교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다음은 두 가지 예이다:

델라웨어주 헌법: “입법부의 양원 의원으로 선출되거나 그 밖의 어떤 공직에 임명되는 모든 시민은 다음 선언문에 서명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즉 영원토록 축복받으신 한 분 하나님을 믿음을 고백하며, 구약과 신약의 성경이 신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한다.’”

1776년에 채택된 **펜실베이니아 주 헌법**은 모든 입법부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할 것을 요구했다. “나는 우주의 창조주이자 통치자이시며,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으며, 구약과 신약 성경이 신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한다.”²¹¹.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이 믿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 남자와 여자로... (창세기 1:27)라고 믿었으며, 독립선언문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건국 아버지들은 미국의 자유가 창조주로부터 시민들에게 직접 주어진 것임을 분명히 했으며, 독립선언문 또한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를 ‘자연의 입법자’(자연의 법, 자연의 하나님), ‘최고 재판관’(세상의 최고 재판관), ‘신성한 수호자’(신적 섭리의 보호)로 언급하고 있다.

존 핸콕은 독립선언문의 첫 번째 서명자였다. 그는 1775년 4월 15일 의회 선언문을 주도하여 의회의 소망을 다음과 같이 증언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또한 “...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는 미국 식민지들에 대한 축복(이에 대해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한다)...”을 간구했다.²¹² 혁명의 웅변가 패트릭 헨리는 성경이 “...지금까지 인쇄된 그 어떤 책보다 더 가치 있는 책”이라고 말했다.²¹³

독립 전쟁이 끝난 후 몇 년 동안, 13개 초기 주들은 무역 권리를 비롯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서로 멀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 회의가 소집되었다. 미국 헌법의 저자들이 인용한 미국 **헌법의 세 가지 주요 참고 자료**는 **킹 제임스 성경**, **윌리엄 블랙스톤 경의 『영국 법 해설』**, 그리고 **몽테스키외 남작의 『법의 정신』**이었다.²¹⁴ 이 세 가지 자료는 미국의 법치주의가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변함없는 자연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적절한 맥락에서 볼 때, 독립선언문에 등장하는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미국 헌법과 그에 부속된 권리장전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적절한 맥락이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를 믿었으며, 미국의 자유가 신생 국가의 시민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주어졌다는 사실은 미국 헌법의 첫 문장, 즉 “우리 정부는...”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으로 시작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건국자들이 각 개인의 권리가 성경에 나오는 창조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믿었다는 점은 지극히 분명하다.

헌법 제정 회의 당시, 당시 기독교인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벤 프랭클린은 매 회기를 성경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 1787년 이후로 의회의 모든 회기는 성경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되어 왔다(1990년대와 그 이후 여러 차례, 의회 개회식이 이슬람의 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몇 차례 의회 회기가 이슬람의 신을 향한 기도로 시작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 제정 회의 이후, 미국 초대 재무장관이자 미국 헌법을 해석한 『연방주 의자 논문』의 주 저자인 알렉산더 해밀턴은 “나는 (헌법을) 신의 손길*이* 없었다면 그토록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결코 합의할 수 없었을 체제로 진심으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²¹⁶

‘국가의 아버지’이자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은 성경에 입을 맞추기 위해 몸을 숙이며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며 선서를 마쳤다. 그는 1789년 10월 3일, 기독교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국가 감사의 날을 선포했다. (오늘날 지켜지고 있는 감사의 날은 에이브러햄 링컨이 발표한 감사의 날 선포문이다).

독립선언서의 저자로 알려진 건국의 아버지 토마스 제퍼슨은 제3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다. 재구성된 역사에서는 그가 기독교 회의론자나 유신론자였다고 가르치지만, 제퍼슨 대통령은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과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기독교 예배에 참석했다. 그는 또한 킹 제임스 성경을 주요 교재로 사용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학교 교육 계획을 작성했다. 그의 행동과 발언을 통해, 그가 미국을 기독교 원칙 위에 세우고자 했음이 분명하다. 1802년 4월 12일,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벤자민 러시 박사에게 보낸 편지에서 제퍼슨은 자신의 견해가 “... 평생에 걸친 탐구와 성찰의 결과이며, 내 견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나에게 씌운 반기독교적 체계와는 크게 다르다”고 썼다.

‘*권리장전의 아버지*’로 알려진 제임스 매디슨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조항의 주된 초안자였다. 그는 헌법상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이해하고 있었다. 매디슨은 제4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재임 기간 동안 그는 미국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기독교 예배에 참석했으며, 하원과 상원을 위해 연방 정부 급여를 받는 기독교 목사를 채용하는 것을 장려했다.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인 존 애덤스는 “*건국의 아버지들이 독립을 달성한 데 기초가 된 일반 원칙들은... 기독교의 일반 원칙들이었다...*”라고 말했다

²¹⁷

독립선언서부터 미국 헌법, 권리장전에 이르기까지, 정직한 관찰자라면 누구나 미국이 주로 기독교 원칙에 기초하여 건국되었으며,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조항은 종교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미국의 기독교에 기반한 자유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기독교인들은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일 뿐입니다. 초기 13개 식민지 역시 기독교를 기반으로 했으나, 결코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세운 새로운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노예 제도가 흔했던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훗날 미국이 될 땅에서는 아프리카인 노예 무역이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농장 중심의 남부 식민지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 한 아버지를 두지 않았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느냐?**(말라기 2:10)?”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모든 민족을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셨느니라**(사도행전 17:26)”와 같은 성경적 원칙에 근거하여, 노예제를 폐지할 씨앗은 *독립선언서*에 뿌려졌으며, 그곳에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 이 성경적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는 80년의 세월과 수천 명의 미국인들의 희생이 필요했다.

1700년대 후반, 유럽의 ‘이성 시대’가 미국에 침투해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삶의 질문들에 답하려 했던 일련의 인위적인 철학들이었으며, 미국 국민과 기독교 교회는 다시 한번 진정한 성경의 하나님과의 연결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창조론에 기반한 세계관을 고수했다. 이는 미국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1795년 예일 대학교는 티모시 드와이트를 신임 총장으로 임명했고, 그는 학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라고 촉구하기 시작했다. 라이먼 비처는 당시 예일 대학교에 재학 중이었으며, 졸업 후 목사가 되었다. 1820년대에 비처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그의 교회 출석 인원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다른 목사들도 이를 주목하고 강단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다시 설교하기 시작했다. 곧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주셨고, **제2차 대각성** 운동이 전국을 휩쓸며 미국은 다시 ‘하나님 아래 한 나라’로 단결하게 되었다.

미국 제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아담스는 확고한 노예제 반대론자였다. 1837년 독립기념일에 행한 연설에서 아담스 대통령은 “독립선언서가... 기독교의 교훈 위에 인간 정부의 초석을 놓지 않았는가?”라고 수사적으로 물었다

²¹⁹

1860년대, 미국 국무장관은 노예제 반대 운동가인 윌리엄 H. 수어드였는데, 그는 “인류 진보에 대한 모든 희망은 성경의 끊임없이 커지는 영향력에 달려있다”고 말했다.²²⁰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기독교적 신념과 수만 명의 미국인들이 목숨을 바친 희생이 합쳐져 미국에서 노예제가 폐지되었다. 남북전쟁을 촉발한 요인은 여러 가지였으나, 노예 노동 이용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남부가 연방을 탈퇴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1864년, 에이브러햄 링컨은 성경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²²²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위한 전쟁**에 국가를 투입했으며, 그 끔찍한 분쟁을 헤쳐 나가는 데 신의 섭리의 힘을 의지했다.

우리의 재구성된 역사는 미국이 노예 무역에 가담했다는 사실로 미국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안겨주는 반면, 아이들은 비록 노예제가 만연했던 세상에서 건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들이 노예제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복음 15:13)는 성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수천 명씩 목숨을 바쳤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공화국의 전투 찬가』에는 “...**그분**(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으니, 우리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죽자...”라는 가사가 포함되어 있다.²²¹ 그리고 수만 명의 미국 청년들이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다.

미국이 기념해야 할 이 얼마나 경이로운 유산인가! 우리의 진정한 유산은 미국인들을 하나로 뭉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산이 재작성된 사람들은 쉽게 오도되고 쉽게 분열됩니다.

남북전쟁이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윌리시스 S. 그랜트가 연방군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나중에

제18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미국의 자유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임을 깨닫고, 미국인들에게 “여러분의 자유를 지키는 닳줄로서 성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라고 경고했다.²²³

미국 역사에 남겨진 하나님의 발자취로 돌아가 보면, 감사하는 국민들은 *건국의 아버지*를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다. 조지 워싱턴 기념비의 초석은 1848년에 놓였다. 그 안에는 *미국 헌법*, *독립선언문*, 그리고 *성경*이 함께 안치되었다.

1793년부터 1858년 사이에 건축되고 재건축된 미국 국회의사당 건물에는 미국의 기독교적 유산을 나타내는 수많은 흔적이 담겨 있다. 국회의사당 석벽에 새겨진 기독교적 문구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와 “미국이여!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America! God shed his grace on thee*)” 등이 있다. 국회 의사당 원형 홀 내부에는 폭 18피트에 달하는 그림들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는 세례를 받는 포카혼타스의 모습이 담겨 있다. 이 그림은 1840년에 원형 홀에 걸렸다. 1844년에 걸린 그림은 신대륙으로 항해를 떠나기 전 하나님의 보호를 기원하며 기도하는 청교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원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정문 위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23명의 입법자들의 얼굴이 대리석에 새겨져 있다. 11명은 문 왼쪽에, 11명은 오른쪽에 위치해 있으며, 모두 하원의장을 향해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 그들의 얼굴은 측면만 보인다. 그러나 문 위 중앙에는 한 명의 특별한 입법자가 위치해 있어, 하원의장이 정면을 바라볼 때 그의 얼굴 전체를 볼 수 있다. 이 인물은 바로 모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두 돌판을 주셨으며, 이 십계명은 미국 국가의 법률이 주로 기반을 둔 것이다.

노예 해방 전쟁으로 인한 지연으로 인해, 1848년에 초석이 놓인 조지 워싱턴 기념비는 1884년이 되어서야 완공되었다. 기념비 정상에는 알루미늄 덮개가 씌워져 있습니다. 덮개의 동쪽 면에는 라틴어 ‘*Laus Deo*’가 새겨져 있습니다. 1884년 이래로, 이 문구는 매일 아침 미국 수도에서 태양의 광선에 가장 먼저 비추는 글귀가 되어 왔습니다. ‘*Laus Deo*’는 **‘하나님께 찬양을’**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조물에서는 미국 역사의 위대한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데, 높이 545피트에 달하는 기념비의 3분의 1 지점에서 돌의 색이 뚜렷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남북전쟁 이후 건축물을 완성하는 데 다른 색상의 돌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색조의 변화는 수천 명의 시민이 목숨을 바친 후, 국가가 건국의 아버지들이 성경에 근거하여 믿었던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신념을 실천에 옮긴 시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1900년대 초, 대법관 데이비드 브루어는 “제임스타운에 최초의 정착지가 생긴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이라는 나라는 성경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그 원칙이 온전히 스며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²²⁴ 20세기가 시작될 무렵, 미국은 주로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국민이 주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통치되는 국가였습니다.

미국 제25대 대통령 윌리엄 매킨리는 시편 33편 12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는 나라는 복이있도다”라는 구절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확증했다. 그는 “이 놀라운 책[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그 신성한 계명을 더 충실히 따를수록, 우리는 더 훌륭한 시민이 될 것이며 국가로서의 우리의 운명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선언했다.²²⁵

감사의 마음을 담은 국민들은 1922년에 건립된 기념관을 통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업적을 기렸다.²²⁶ 침례교 목사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는 바로 이 *링컨 기념관* 계단 위에서 ‘나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감동적인 연설을 했다. 1963년 8월 28일에 행해진 이 연설은 이사가서 40장 4-5절을 바탕으로 했는데, 그 일부는 다음과 같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1923년부터 1929년까지 캘빈 쿨리지는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으로 재임했다. 쿨리지 대통령은 “우리 사회와 정부의 기초는 성경의 가르침에 그토록 크게 의존하고 있어, 만약 이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우리 나라에서 실질적으로 보편적이지 않게 된다면 이를 지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²²⁷

1935년, 독립선언서와 미국 헌법이 보관되어 있는 국립문서보관소 건물이 개관했다. 이 성경적 원칙들이 미국 헌법과 초기 미국 법 체계의 토대가 되었기에, 입구 바닥에는 십계명을 묘사한 청동 조각이 장식되어 있다.

대법원이 위치한 건물 역시 1935년에 준공되었다. 동쪽 입구 위쪽에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입법자들의 모습이 돌에 새겨져 있다. 모세는 중앙에 앉아 십계명을 들고 있다. 법정에 들어가려면 방문객들은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커다란 참나무 문을 통과해야 한다.

제32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된 프랭클린 D. 루즈벨트는 확고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물이었다. 1941년 5월 27일 전국 라디오 연설에서 그는 국민들에게 나치들이

“... 나치는 신을 부정하는 데 있어 공산주의자들만큼이나 무자비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가올 전쟁이 “... 인간의 노예화와 인간의 자유 사이의 전쟁...”이 될 것이며, 미국은 “기독교적 이상인 인간의 자유” 편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943년에 준공된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에는 제퍼슨의 명언이 새겨진 석판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하다고 믿는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특정 권리를 부여받았다.” (제퍼슨이 주 저자로 참여한 《독립선언문》에서 발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습니다. 이러한 자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확신을 버렸을 때, 한 국가의 자유가 과연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1940년대 미국은 여전히 대다수가 기독교 신자였던 국민들로 이루어진 국가였으며, 주로 기독교적 원칙에 따라 통치되고 있었다.

해리 트루먼은 미국의 제33대 대통령이었다. 1946년, ‘지브 엠 헬 해리’(Give ‘em Hell Harry)’로 불리던 그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과 국가들이 고대 선지자들의 교훈과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기만 한다면, 지금처럼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은 곧 사라질 것이다. 개신교 교회, 가톨릭 교회, 유대교 회당...은 이러한 도덕적 영적 각성을 이루기 위한 선봉대가 되어야 한다. 다른 어떤 기관도 이를 해낼 수 없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²²⁸

1952년, 윌리엄 O. 더글러스 대법관은 “우리는 종교적인 민족이며, 우리의 제도는 최고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썼다.²²⁹

1952년 6월 4일 캔자스주 애빌린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후 미국의 제34대 대통령이 될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는 “*미국을 건설한 이들의 내면에 타고 있던 진정한 불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운다: “***너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대통령으로서 그는 ‘용감한 자들의 고향’인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에서 매일 낭독되던 *충성 서약에* ‘하나님 아래(under God)’라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미국 의회를 독려했다. 그 주된 목적은 미국의 창조주가 주신 자유와, 전 세계에서 수천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하고 있던 공산주의 정권의 무신론적 폭정 사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함이었다.

존 F. 케네디는 1960년에 제35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1961년 1월 취임 연설에서 케네디 대통령은 “*인간의 권리는 국가의 관대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럴드 포드는 미국의 제38대 대통령이었다. 1974년 12월, 그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5년에 한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용했다. “*하나님이 없이는 미국의 정부 형태도, 미국의 생활 방식도 존재할 수 없다. 최고 존재에 대한 인정은 미국 정신의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들은 이를 그렇게 보았으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것이다.*”

미국이 주로 기독교 신자인 남녀들에 의해, 주로 기독교적 원칙에 입각하여 건국되었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이 글을 쓰는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 주조된 동전에는 여전히 ‘In God We Trust(우리는 신을 믿는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기만이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신이 부여한 미국의 자유에 반대하는 기만적인 세력들은 쉼 없이 활동하고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의 창립자 로저 볼드윈은 “*공산주의가 목표다*”라고 선언했다.²³⁰ ACLU의 첫 사무실은 미국 최대의 공산주의 신문인 『더 매시즈(The Masses)』의 발행인과 함께 사용했다. 이는 우리를 *공산주의의 아버지*인 칼 마르크스가 믿었던 바, “*유산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설득되며, 첫 번째 전장은 한 국가의 역사를 재편하는 것이다*”라는 말로 되돌아가게 한다. 그리고 미국 시민들이 누리는 자유에 적대적인 세력들은 미국 역사의 재작성을 주도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지위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다윈의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²³¹이 출간된 지 10년 후인 1869년, 하버드는 찰스 엘리엇을 총장으로 임명했다. 1870년, 엘리엇은 크리스토퍼 랭델을 하버드 법학대학원 학장으로 임명했다. 더 유능한 후보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랭델은 엘리엇과 한 가지 공통된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둘 다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미국 교육 및 법률 체계의 새로운 토대로 삼는 데 전념했다는 점이다.

랭델은 미국 법체계에 *판례법 연구*를 도입했다. 그전까지 미국의 법학은 변함없는 십계명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판례법*²³²조는 법이 사건마다 진화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1947년, 연방 자금을 종교 학교 활동 지원에 사용하는 문제를 심리하던 중 미국 *대법원*이 미국 헌법 제1조 수정안에서 소위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발견했을 때, 미국의 공교육 시스템에서 기도와 성경적 창조론이 배제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판결은 하원과

상원이 합의한 정부 문서가 아니라, 토마스 제퍼슨이 1802년 1월에 한 목사에게 보낸 개인적인 편지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인정되지 않지만, 법원은 이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적용하여 종교 학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자금 사용을 정당화했습니다!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사건, 330 U.S. 1).

그러나 법은 곧 *변화*했고, 1962년 대법원은 동일한 ‘종교와 국가의 분리’ 원칙을 인용하여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금지했다(엥겔 대 비탈레 사건, 370 U.S. 421). 이 획기적인 전환점이 가져온 결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1963년, 미국은 이 나라에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성경의 하나님을 공식적으로 외면함으로써 중대한 분수령을 넘어서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극적인 법적 술책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했다고 선언했던 창조주에 대한 기도가 전국 공립학교에서 금지되었고, 그 자리를 무신론적 인본주의의 철학적 토대, 즉 *다윈의 진화론으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역사*가 대신하게 되었다.

본질적으로 미국은 미래 세대에게 창조주가 존재하지 않으며, 죽음이 그들을 존재하게 했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아담의 죄가 죽음을 초래하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으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우리를 다시

COST가 상실되었다(용어집: **COST** 참조).

미국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에 반대하는 세력들은 끈질기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CLU의 초기 회원들 중에는 『더 매스(The Masses)』의 편집장 맥스 이스트먼(Max Eastman)과 미국 공산당 의장 윌리엄 포스터(William Foster)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CLU가 *거둔* 주요 법적 승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963년: 공립학교에서 기도 및 창조론 교육 금지; 1976년: 공립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장식 금지; 1980년: 공립학교에서 십계명 전시 금지;

1986년: 공립학교에서 종교적 기도 금지. 이러한 판결들은 미국을 강화시켰는가, 아니면 약화시켰는가?

1963년 이후, 워싱턴 D.C.의 대리석이나 화강암에 새겨지거나 황동에 각인되지 않은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2년에 제막된 베트남 참전 용사 기념관에는 신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1997년에 제막된 루즈벨트 기념관에도 신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미국 정부는 전 세계에 주둔한 미군 장병들에게 1,700만 부 이상의 성경을 배포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기념비는 2004년에 제막되었으나, 이곳에도 신에 대한 언급은 단 한 번도 없다.

침례교 목사이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박사의 유명한, *‘나에게 꿈이 있다’* 연설(1963년 8월)은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드디어 자유로워졌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드디어 우리는 자유롭습니다!**”라는 구호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에 제막된 킹 박사의 기념비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그들은 부패하였고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시편 14:1).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미국이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전쟁에 휘말려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혈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있어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이니...”** (고린도후서 10:4).

1963년 이래로 세속적 세계관의 역사적 서술은 미국의 교육 기관에서 과학으로 가르쳐져 왔으며, 이제는 종종 비방, 소송, 협박을 통해 미국의 과학계, 공공 기관, 언론, 공원, 박물관, 엔터테인먼트 산업, 심지어 어린이 만화까지 지배하고 있다.

1984년 8월 23일, 미국의 제40대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은 미국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하나님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오래 지속될 수 없으며, 지속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래 한 나라’라는 사실을 잊는다면, 우리는 몰락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²³⁵ 우리는 오늘날 그 절벽 끝에 서 있다.

미국의 기독교적 유산이 상실된 것은, 다윈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의 타락한 나무에서 자란 악한 열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악한 신념들로부터 수확되고 있는 궁극적인 악한 열매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제 교회에서 강연하실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평생 동안 ‘과학적’인 세상에서 창세기의 관련성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제 삶에 지극히 깊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애리조나주 조

“당신을 모시게 되어 정말 큰 축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적 진리에 눈을 떴다고 저에게 말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유신진화론을 고수하던 많은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신뢰성을 발견하게 되어 기쁨을 표현하셨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월 스톨 목사

제가 진행한 ‘림 앤 래프트(Rim & Raft)’ 투어 중 한 번은, 이 지역의 형성에 있어 대홍수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설명할 때마다 래프트 운전사가 무례하게 말을 끊고 세속 지질학의 잘못된 해석을 늘어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들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제가 또 다른 래프팅 투어를 이끌었을 때, 그 가이드가 다시 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가 성경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 시절 잘못된 길로 빠졌다가, 우리 투어에서 전해 들은 진정한 과학적 사실을 듣고 비로소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십니다. 러스



17

궁극의 악한 열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 지자, 거짓 교사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가능하다면 심
지어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하려 할 것이다.***

마가복음 13장 22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마태복음 5:13a). 소금은 상처에 들어가면 따갑게 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화하고 치유하며 보존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러니 이 장이 보존용 소금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니 조금만 참아 주시기 바랍니다. 80개 이상의 신약 성경 구절을 활용하여, 비성경적인 그리스도들과 거짓 가르침에 대해 논의하고,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검증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한 단어 한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임을 확증하고자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만들어내고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거짓 그리스도들은 ‘오래된 지구’ 신앙이 낳은 **궁극적인 악의 열매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의 **말세 예언**(마가복음 13:22)을 성취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 기관들 또한 예수님이 스스로 주장하신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심을 공개적으로 부인함으로써 동일한 예언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수십억 년에 이르는** 세속적 시간관에 부합하는 그리스도를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일까요? 자, 과연 몇

명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속임수가 말세의 특징이라고 알려줍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따를 것이다(디모데전서 4:1). 그러므로 ‘갭 이론’, ‘유신진화론’, ‘점진적 창조론’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 몇 가지 분별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이 세 가지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형상을 비교한 것입니다.

성경적 그리스도는 수천 년 전 6일 동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창조**는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창조주와 우리를 분리시켰으며,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구속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을** 덮은 대홍수(창세기 7:19)로 타락한 창조물을 심판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은 **그분을 믿는** 모든 이에게 구속을 제공합니다.

점진적 창조론자들은 창조주께서 수십억년에 걸친 죽음의 과정을 통해 모든 생명체를 점진적으로 창조하여 결국 인류를 탄생시켰다고 믿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들은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며, 창조의 ‘날’이 긴 시대(일-시대 이론)였거나, 문자 그대로의 각 창조의 날 사이에 긴 시대가 있었다고 믿습니다. 진화적 창조론은 성경적이지 않으며, 죽음을 초래한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대로 창조하고 심판할 능력을 부인하며, **인간이 태초부터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신 주 예수님의 말씀(마가복음 10:6, 마태복음 19:4)에 반하는 것입니다.

『아메리칸 애시스트(American Atheist)』의 전 편집장인 프랭크 진들러(Frank Zindler)가 말했듯이, “만약... 원죄가 결코 존재하지 않았다면... 구원의
0/

구원이 필요하지 않다...그러면 예수님은... 실업자 대열에 들어가게 된다.”²³⁶

유신론적 진화론자들은 창조주께서 수십억년에 걸친 죽음의 과정을 통해 모든 생명체를 점진적으로 진화시켜 인류를 탄생시켰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대홍수를 부정하며, 무신론적 다원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거시진화가 일어났다는 증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신론적 진화는 성경적이지 않으며, 죽음을 초래한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주장하신 대로 창조하고 심판할 능력이 있음을 부정하며,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원수라고** 주장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반한다(고린도전서 15:26).

무신론자 리처드 보자스가 말했듯이, “*원죄를 없애라...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구속주가 아니시라면, 그리고 이것이 바로 진화의 의미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²³⁷

갯 이론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일반적으로 이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질학적 연대기에 맞추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그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 사이에 또 다른 창조물이 존재했던 긴 시대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갯 이론 지지자들은 사탄이 이 비성경적인 창조 세계로 쫓겨났으며, 그곳에서 사탄과 그의 추종자들이 세상을 너무나 타락시켜 하나님께서 아마도 비성경적인 대홍수를 통해 그 세상을 멸망시키셨다고 믿는다. 이 지점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창세기 1:2)을 인용하며,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완성하시고 “**매우 좋았다**”고 **선언하신** 두 번째 창조(성경적 창조)를 이루셨다고 주장합니다(비록 그곳이 사탄과 그의 부하들로 가득 차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거나, 그 대홍수가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세속주의자들이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기 시작하고, 지각 층이 수백만 년에 걸쳐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

지질학적 시간 척도)를 주장하기 전까지 살았던 수백만 명의 히브리어 전문가들은 ‘갭(Gap)’, ‘점진적 창조’, 혹은 ‘유신진화론’을 지지하는 그 리스도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그리스도’들은 각각 유혹적으로 보일지 모르나, 모두 신약성경의 여러 경고를 무시하면서도 동시에 그 예언을 성취하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한 베드로(베드로후서 3:3-6),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신의 형상은 띠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은 부인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울(디모데후서 3:5), **주님을 부인할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한 유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에게** 속을 것이라고 경고한 예수님(마태복음 24:24).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마디 한 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진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와 ‘오래된 지구’를 믿는 그리스도들을 비교한
충격적인 그림을 보려면 246쪽의 부록 3을 참조하십시오!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모습은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과 다른 어떤 예수님도 적그리스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다음과 같은 권면을 위협할 정도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요한복음 14:6).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만 계시신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통해 정화하고 보존하며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는, 때로는 따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바로 그런 소금입니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세상과 마귀가 그 순간 공격하고 있는 바로 그 작은 점을 제외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모든 부분을 가장 큰 목소리와 가장 명확한 설명으로 고백한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대답하**

게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다 해도, 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

사탄은 알고 **있습니다...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그러므로 우리는 **이타락한 세상의 신**(고린도후서 4:4)이 ...**너희 가운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을 보내어, 은밀히 멸망에 이르는 이단을 들여오고 심지어 주님을 부인하게 할 것임을** 예상해야 합니다(베드로후서 2:1).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금 광산’을 더 깊이 파헤쳐 봅시다.

거짓되지만 신뢰받는 교사가 행하는 미묘한 기만은 한 사람의 믿음에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 자신도 빛의 천사로 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도 의의 사역자로 변장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1:14-15). 거짓 가르침이 인기를 끌고, 군중을 모으며, 헌금을 모으거나 책을 팔 수도 있겠지만,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영혼을 구원합니다. 교사들에게 더 높은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형제들아,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라**”(야고보서 3:1).

기독교 교육 기관의 거짓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내가 ‘**ABC 기원론**’이라 부르는 것, 즉 ‘창조(성경의 기록)를 **제외한 모든 것(Anything But Creation)**’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6일간의 창조 기간이 수십억 년에 걸쳐 있었다고, 동물의 죽음은 인간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다고, 성경의 대홍수는 단지 지역적인 사건에 불과했다고(전 지구적 대홍수는 그들의 ‘오래된 지구’ 신념을 무너뜨리기 때문) 가르치며, 창조, 진화, 지구의 나이 문제와 같은 비본질적이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안들은 피하도록 합니다. 창세기를 25번이나 인용하신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슬퍼하신 것도 당연합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요한복음 5:46-47).

속아 넘어간 졸업생들은 전 세계 교회들에서 지도자 역할을 맡으며 이단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 졸업생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 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래된 지구’ 교리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주장하시는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심을 부정하고, 아담 이전에 죽음이 존재했다고 주장함으로써,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해 죽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는 성경적 핵심 교리를 훼손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헌신적일지 모르지만, 이미 속아 넘어간 상태이며 그 오도하는 가르침을 산불처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들은 우리 성경 대학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 주입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기도 전에, 한 세대의 교회 지도자 전원이 성경에 대한 믿음이 타락한 채 교회 곳곳에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척 바이켈 목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주의가 이제 기독교계에 너무 깊게 뿌리내려, 누군가가 성경에 없는 인간이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경의 예수를 공개적으로 대체해도 거의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그 간교함으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순수함에서 타락할까 하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너희가 그를 참아 줄지도 모르겠다*(고린도후서 11:3-4).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의 징조에 대해 물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누구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니라**(마태복음 24:4-5).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 시며(그리고 소금과 같으시니), 한 마디 한 마디,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두 그러합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워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은혜로 부르신 분에게서 이토록 빨리 떠나버리다나”**

그리스도를 다른 복음으로 전하는 자들: 그것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다만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을 뿐입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다른 복음이 아니라, 왜곡되고 변질된 복음입니다. 제 생각에, 다른 예수를 믿는다면 그것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이며, ...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갈라디아서 1:6-8).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고 인간 이전의 죽음을 인정하는 데 기반을 둔 **‘수십억 년’에 대한 믿음**은 무신론자, 다원주의자, 유신진화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인본주의자, 진보적 창조론자, 자연주의자, 갭 이론가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사실, 죽음은 자연, 혹은 그들이 믿는 예수라는 존재가 인류를 창조하기 위해 사용한 도구입니다. 이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확신시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라”**(고린도전서 15:26).

그들의 결속력을 보여주는 한 예로, 한 무신론자 블로거와 그의 동조자가 지구 연대에 관한 토론을 제안해 왔습니다. 그 무신론자의 협력자는 ‘오래된 지구’ 이론을 수용하는 기독교인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들은 아이비리그 교수인 또 다른 무신론자에게 의견을 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그 세 사람과 모두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제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상황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한 관대한 분이 ‘오래된 지구’ 신학을 가르치는 기독교 신학교를 위해, 제가 진행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랜드 캐니언 투어’ 중 하나를 후원하겠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이 이번 여행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를 깨닫기를 바랐습니다. 호화 버스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픽업할 예정이었고, 교수진과 학생 55명이 무료로 참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지도부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저희는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들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했다는 점은 확실합니다.

‘오래된 지구’ 신학을 가르치는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한 교수가 저를 초청해 주셨던 목사님께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교수의 발언은 **굵은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제 ‘소금 같은’ 답변은 *이탤릭체*로 표시했습니다.

교수: 당신이 초청한 젊은 지구론(성경 신봉) 창조론자는 아담 이전의 죽음이 기독교 신학에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스: 복음의 기초는, 아담의 첫 번째 죄가 피조물을 타락시켜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전까지(로마서 6:23), 하나님께서 죽음 없는 완벽한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그분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음을 정복하셨으므로,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들은 그분과 함께 영원히 구속받을 것입니다. 오래된 지구론은 아담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함으로써 복음의 기초를 부정합니다.

교수: 식물을 먹는 것은 식물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러스: 식물은 음식으로 설계되었으며(창세기 1:30), 성경적 의미에서 죽지 않습니다. 히브리어 ‘네페쉬(nephesh)’는 생명체, 주로 사람을 가리키며 의식을 내포하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네페쉬는 동물을 지칭할 때 종종 ‘야아’와 함께 사용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이 단어들은 인류를 가리킬 때는 “살아 있는 영혼”으로, 척추동물(등뼈가 있는 생물)을 가리킬 때는 “살아 있는 피조물”로 번역됩니다. 레위기 17:11에서는 “육체의 생명(네페쉬)은 피에 있으니”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네페쉬의 생명을 척추동물의 몸속을 순환하는 붉은 액체인 피와 연결시킵니다. 따라서 성경적 의미에서 인간과 척추동물은 네페쉬를 지닌 존재이며, 아담의 죄로 인해 죽음에 처하게 됩니다. 식물과 무척추동물은 네페쉬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교수: 창세기 2장 17절 “...그 날에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가리킵니다(아담은 그로부터 수년이 지나서야 육체적으로 죽었습니다).

러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모두를 언급하셨습니다. 영적 죽음은 죄의 즉각적인 대가였으며,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자 육체적 죽음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도나무에서 잘린 가지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어 가듯이, 육체적 죽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비로운 부르심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을 받아들일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

교수: 로마서 5장 12절은 오직 인간의 죽음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러스: 이 구절이 인간의 죽음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담의 죄로 인해 온 피조물에 죽음과 썩음이 들어온 것(창세기 3:17-20; 로마서 8:20-22) 이전에 동물의 죽음이 있었다는 암시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교수: 육체적 죽음이 완전히 없는 상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만 가능했을 것입니다.

러스: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를 반영하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피조 세계는 “매우 좋았다”(죽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우리가 오늘날 견디고 있는 타락하고 저주받은 세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린도전서 15:26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멸망할 원수는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머지않아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땅(요한계시록 21 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며, 그곳에서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이사야 11 장).

교수: 인정하세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늘에서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이미 세상에 악이 존재했습니다. 러스: 성경은 여섯째 날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물을 ‘매우 좋았다’고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 세상은 사탄과 그의 부하들, 악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까. (이 장의 앞부분에서 저는 잘못된 ‘갭 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교수: 지구 연대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고 제안합니다.

러스: 기독교인 청소년의 55%에서 90%가 20세가 되기 전에 교회를 떠나고, 교회 출석자의 95%와 목사의 67%가 세속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기독교 기관 전반에 걸쳐 그리스도가 폄하되고, 이 배도의 토대가 된 ‘오래된 지구’ 신념이 만연하는 가운데, 저는 계속해서 우리의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시며 구속자이신 구세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고 선언하며 시작됩니다.

이로써 우리의 대화는 끝이 났습니다.

기독교 기관에 있는 회의적인 교사들은 ...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그들은 헛되이 나를 경배하며, 사람의 계명을 교리로 가르치고 있다**(마태복음 15:8-9).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갈등을 일으켜 이 책에 담긴 정보가 차단되도록 만드는데, 아담의 죄 이전에 죽음이 존재했다는 주장을 성경적으로 타당한 어떤 가르침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원주의를 적극 옹호하여 ‘다윈의 불독’으로 알려진 토마스 헉슬리는, 교회가 ‘오래된 지구’ 신념과 타협하려는 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그는 “**그들이 취한 입장은 도저히 유지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21-22절을 인용했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왔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니라.”** 헉슬리는 이어 비판적으로 물었다. **“만약 아담이 프로메테우스만큼이나 실재하지 않는 인물로 간주된다면... 바울의 변증법적[논증]은 어떤 가치가 있겠는가?”**²³⁸

사실, 문자 그대로의 아담이 저지른 첫 번째 죄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 사역에 대한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이는 성경에 기반한 신앙에 있어 필수적인 교리들이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듯이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경건한 교훈을 주는 것보다는 의문만 불러일으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디모데전서 3:3-4).

‘아담 이전의 죽음’이라는 가르침이 만들어낸 장애물을 우회하기 위해, 캘빈 대학의 두 교수는 아담이나 이브가 존재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발표하며, “진화론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²³⁹ 세상에! **지혜 있는 척하더니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로마서 1:22).

다음은 한 비웃는 태도의 교사로부터 받은 이메일과 제 답변입니다. **교사:** 저는 선생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9년 동안 진화론을 연구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40년 동안 교회에서 가르쳐 왔습니다. 또한 균형 잡힌 이해를 얻기 위해 다양한 저자들의 책도 읽었습니다. 성경은 과학 서적이 아닙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는 결코 없었으며, 당신은 기독교에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제가 자리에서 일어나 모든 사람 앞에서 당신을 반박하지 않은 것이 당신에게는 다행입니다.

러스: 선생님처럼 저 역시 174학점을 이수할 정도로 대학 교육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저도 한때는 균형 잡힌 입장을 취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인간의 지혜를 덧씌우곤 했습니다(골 2:8). 그러다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고후 10:5). 이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보여줍니다(롬 12:2). 저는 대학 강당에서 강연하곤 했는데, 항상 질의응답 시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교수도 제 말을 반박한 적이 없었고, 당신도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대학은 당신과 마찬가지로, 아담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심을 부인하는(딤후 3:1-5) 세속적 편향의 서사(마 24:4)에 동의합니다. 당신은 고린도 전서 15:21-22 등을 부인함으로써 베드로후서 3:3-6을 그대로 실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6-8을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여 축복을 받으십시오. 러

스(이것으로 우리의 대화가 끝났습니다).

한 조롱하는 기독교인이 라디오 진행자에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 **조롱하는 자**. “저는 지질학 박사 학위를 가진 기독교인입니다. 러스 밀러가 발언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신은 기독교에 치욕을 안겼습니다. 만일 전 지구적 대홍수가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는 에베레스트 산을 덮을 수 있는 기적으로 수조 톤의 물을 창조하셨다가, 다시 해수면 높이까지 물이 빠지도록 하시고, 암석층 속에 화석을 경이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이 됩니까? 터무니 없습니다!”

러스: 무신론에 기반한 지질학 교육을 받은 흔적이 여실히 드러나네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성경에 기반한 지질학적 관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에 기적으로 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의 물 대부분은 둘째 날에 창조된 ‘깊음의 샘’이 분출하면서 지하에서 솟아난 것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은 홍수가 끝날 무렵, 물이 붕괴된 분지로 쏟아져 들어와 오늘날의 바다를 형성하면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화석은 홍수 물에 의해 입자 크기, 무게, 밀도에 따라 층이 분리된 지층 속에 묻힌 홍수 희생자들입니다. 제 책을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로써 우리의 대화는 끝났습니다.

성경적 소금은 양의 옷을 입은 늑대들(마태복음 7:15)과 밭 가운데 있는 가라지(마태복음 13:25)가 있을 것이라고 미리 경고합니다. 제 경험에 따르면, 이들의 비성경적인 믿음이 도전받으면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거나 심지어 교회 분열을 초래할 위협까지 가할 것입니다.²⁴⁰ 그 결과는 거의 항상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90% 이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보는 차단되고,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양 떼를 속이고 있습니다.

성취: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욕망에 따라 귀가 가려워할 만한 교사들을 많이 모아 두고, 진리에서 귀를 돌리고 허황된 이야기로 돌아설 때가 올 것” (디모데후서 4:3-4)이라는 말씀에 대해, 한 목사가 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성경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창조가

긴 세월에 걸쳐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며, 당신의 설교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흠... 바로 그 ‘성경 해석의 다양성’ 때문에 그들이 제 설교를 들어야 했던 것인데 말이죠!

보수 교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목회자의 49%(신학교 졸업자의 경우 67%)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¹ 한 목회자가 전화를 걸어 자신의 마을에서 강연을 해줄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는 지역 고등학교에 대안적 생활 방식을 지지하는 생물학 교사 두 명이 있어 수많은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다며, 교회들을 한자리에 모아 신앙 함양 행사를 열고 싶다고 말했다. 그가 시 전역의 목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뜻을 밝혔을 때, 다른 19명의 목사들이 일어서서 자리를 떠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믿었으나... 그를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찬양보다 사람의 찬양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요한복음 12:42b-43).

운명을 가르는 통계는 공립학교에서 기도와 창조론을 수십억 년의 진화론으로 대체한 결과의 열매를 드러내고 있다.²⁴² 다음 기간에 태어난 미국 시민 중:

1927년부터 1945년 사이 출생자 - 65%가 기독교 교회에 출석한다. 이들은 기도가 폐지되기 전, 그리고 1963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다윈주의 진화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에 대한 세뇌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46년부터 1964년까지 - 35%가 기독교 교회에 출석한다. 이들 대부분은 ‘다윈주의 진화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에 대한 세뇌 교육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을 때 공교육 과정을 중간에 밟고 있었다. 그들의 교사 대부분은 교회에 출석했으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1965년부터 1983년까지 - 16%가 기독교 교회에 출석했다. 이들은 수십억 년의 역사에서 비롯된 다윈주의 진화론을 완전히 주입받은 최초의 미국 어린이 집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교사 중 3분의 1은 교회에 출석하며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다.

1984년부터 2002년까지 -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비율은 4%였다**. 이 세대는 **수십억 년의 역사에서 비롯된 다윈주의**를 배운 교사들로부터 세속적 가르침을 완전히 주입받았다.

이러한 통계는 또한 기독교 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 서사를 받아들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 결과, 기독교의 기둥에 대한 믿음이 침식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통해** 선한 것과 타락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성경의 첫 다섯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되...”**(창세기 1:1a)를 통해 스스로를 우리의 창조주라고 선포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숙고해야 합니다.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통해 종말의 라오디게아 교회에 자신을 창조주로 소개하셨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여 이르기를, “아멘이시요, 신실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요한계시록 3:14). 또한 우리 성경의 구주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며 **“나를 들여보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요한계시록 3:20).

우리의 영원한 영혼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경은...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나니**(디모데후서 3:15), 반면 **거짓의 아버지**(요한복음 8:44)는 우리가 그와 함께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갈라디아서 3:26),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대판 금송아지**(출애굽기 32:1-4)**를 만들어 낸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0-11절에 나오는 베뢰아 사람들처럼 되기를 권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열어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였던 베뢰아 사람들처럼 되기를 권합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을 살펴보며, 그 일들이 과연 그런지 확인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일무이한 예수님을 밝히 드러내고, 비성경적인 그리스도들과 거짓 가르침들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소금을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 구도자들이 그분의 말씀의 권위에 겸손히 순종하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요한복음 1:14) 성경의 예수님을 간절히 찾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창조의 6일은 문자 그대로의 날이었을까?

구약성경의 히브리어를 활용하여 창조의 시간대를 해석해 봅시다. **히브리어로 ‘날’을 뜻하는 단어는 ‘욘(yom)’**이며, 이는 거의 항상 문자 그대로의 날이나 24시간 중 낮 시간을 가리킵니다. 비록 ‘욘’이 때때로 더 긴 기간을 지칭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지만, 문맥을 통해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나며, ‘올람(olam)’과 같은 다른 히브리어 단어들은 더 긴 시간대를 가리킵니다. 모세가 긴 시간대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올람’을 사용했어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욘’과 그 파생어는 구약성경에서 2,300회 이상 사용되었으며, 오늘날 세속적 관점에 기반한 **수십억 년의** 서사 때문에 창세기 1장의 의미만 의문을 받고 있을 뿐입니다.

창조 주간에 관해, 하나님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6일간의 사건을 세 가지 방식으로 명확히 밝히셨습니다. **빛의 기간에 이어 어둠의 기간이** 이어진다는 사실은 하루당 긴 시대가 있었다는 믿음을 배제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녁과 아침을** 그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욘’은 창세기 이외의 본문에서 **저녁** 및/또는 **아침과** 함께 38회 사용되었으며, 항상 태양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논쟁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각 날에** ‘첫째 날’과 같은 **숫자 접두사**를 부여하셨습니다. 번호가 매겨지거나 연대기적 순서대로 사용될 때, 예를 들어

‘요르’는 창세기 외에서 사용된 359번 모두 태양일을 가리킵니다. 게다가, 창조의 여러 날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 히브리어 ‘야밈(Yamim)’은 800회 이상 사용된 모든 경우에서 *문자 그대로의 태양일*을 의미합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전 히브리어 교수인 제임스 바(James Barr)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어느 대학의 히브리어 교수라도 창세기가 하나님^이 6일 동안, 하루 24시간씩 창조하셨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없으며, 그 날들이 긴 시대였다고 가정하는 주장은 그러한 교수들 중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²⁴³

올바른 해석은 하나님의 창조가 문자 그대로 6일 동안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 이를 확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6일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느니라...” (출애굽기 20:11).

“저는 항상 유신진화를 가르쳐 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방식이라고 진심으로 믿었는데, 당신이 제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리조나주 래리 목사

“전 미국 횡단 비행 중에 당신의 책을 읽기 전까지는 갭 이론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33,000 피트 상공에서 이 문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창조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애리조나주 스콧 목사

** 246페이지에서 성경적 그리스도와 ‘오래된 지구’를 믿는 그리스도들을 비교한 강력한 시각 자료를 확인해 보세요.



부 III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할 이유

18장~22장 소개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죽으셨고, 영원토록 죽음을 정복하기 위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에 기반한 역사적 서사와 실제 과학적 발견이 뒤섞여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창조주이자 심판자이심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를 25번 인용하셨으며, 여기에는 창조의 시작에 인류가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마태복음 19:4, 마가복음 10:6). 사실, 신약성경의 모든 저자들은 창세기의 역사적 정확성을 신뢰했으며, 창세기를 200회 이상 인용했습니다. 창세기 1~11장 중 신약성경에서 직접 인용되지 않은 부분은 창세기 8장뿐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창세기 1장에서 글로 표현할 수 있는 한 명확하게 일주일 동안의 창조 사건을 묘사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삶의 매일매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는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한 달’은 대략 달이 지구를 공전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한 해’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그렇다면

7일 주간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창조의 6일과 안식일인 7일째 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²⁴⁴

저는 이미 생명의 기원, ‘각종류는 자기 종류대로만 번식한다’는 법칙, 그랜드 캐니언과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빙하기, 공룡, 탄소 연대 측정법 등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훌륭한 증거들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 지구적 대홍수, 인류원리, 복잡한 설계, 그리고 하늘에서 발견되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섹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전체, 즉 한 단어 한 단어,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고히 해 줄 것입니다. 특히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말씀, 곧 우리의 창조주이자 심판자이며 구속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입니다.

“28년 차 목사로서, 저는 러스에게 다윈주의에 관한 비디오를 주문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은 모든 목사님들이 꼭 소장해야 할 필수품입니다. 진화론이 거짓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었습니다. 러스는 이 내용을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며, 원하는 만큼 복사해서 나눠줄 수 있게 해줍니다. 저는 이 거짓된 이론 때문에 우리 세대를 위한 싸움에서 패배하고 있는 만큼, 가능한 한 많이 배포할 계획입니다.”

“가르침.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6일 창조론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러스(Russ)의 영상을 한 번만 보면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켄터키주 할리 목사

“자신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제 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데에는 당신의 가르침 덕분이 컸습니다. 오늘 아들이 저에게 교과서에 지구가 수십억 년 되었다고 쓰여 있는데, ‘그걸 보면 공룡 아저씨가 별로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ㅋㅋ! 당신은 아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셨습니다.” 애리조나주 테리



18

전 세계적인 대홍수를 상상해 보세요

“저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독교를 믿습니다.

태양이 났다는 것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 빛 덕분에 다른 모든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²⁴⁵

C.S. 루이스

세계의 지질학과 우리 행성의 나이를 올바르게 해석하려면, 성경적 관점을 통해 이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책 『우리 행성에 상처를 남긴 371 일 (371 Days That Scarred Our Planet)』에서 짐 도브킨스와 저는 전 지구적 대홍수의 몇 가지 영향을 설명하는 장을 집필했습니다. 비록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임을 알았지만, 우리의 목표는 그 대재앙에 대한 정신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물로 내리신 심판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소망은 홍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건들을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다. 그 묘사를 바탕으로, 여기 인간의 이해를 진정으로 초월하는 한 사건을 설명해 보려 한다.²⁴⁶

물이 땅 위에 심히 넘쳐, 온 하늘 아래 있는 모든 높은 산이 물에 덮였다 라(창세기 7:19). 성경 기록은 대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다고 주장한다.²⁴⁷ 비록 과학 서적은 아니지만, 성경이 사실이라면 지구의 지질학은 전 지구적이며 대재앙적인

수해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신뢰할 수 있는 경험적 기준이 될 것이다.

누구나 수수께끼를 좋아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이 좋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여섯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 끝날 무렵,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창조물이 *지극히 좋다고*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을 ‘좋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²⁴⁸ 제가 추측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째 날에 심연의 샘과 궁창 위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보실 수 있으므로, 여섯째 날에 지어질 아담이 반역하여 그분의 완전한 창조물을 타락시킬 것을 아셨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또한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둘째 날에 지으신 이 물들이 노아 시대에 물로 내리실 심판의 도구가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식이 우리 창조주께 슬픔을 안겨주었기에, 둘째 날이 ‘좋다’고 언급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노아 시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직 여러 대륙으로 나뉘지 않았던 거대한 대륙을 그려보십시오. 땅을 뒤덮고 있는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초목의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그 초목은 놀라운 지하 급수 시스템 덕분에 푸르름을 유지했는데, *그곳에서 “...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의 표면을 적셨다”*(창세기 2:6)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온실 속에 사는 것과 같아서 기후는 항상 온화합니다. 안개와 강력한 자기장이 유해한 우주선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태양의 자외선, 감마선, X선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피부암에 걸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 피조물이 타락한 후에도 사람들이 믿기 힘들 정도로 장수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서, 한때는 완전했으나 이제는 폭력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이 곧 멸망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들은 그들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웠음이라. 보라, 내가 그들과 땅을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길 하나를 마련해 주실 것이니,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고퍼 나무로 방주를 지을지니, 방주 안에 방들을 만들고, 안팎을 역청으로 칠할지니라”**(창세기 6:14).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그분의 유일한 구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방주의 문은 그 옆구리에 두라...”**(창세기 6:16).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 믿는 자들이 그분의 구원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문으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마저 마련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노아와 그의 가족만이 타협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둘 것입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경고를 받고, 경외심으로 움직여 자기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 방주를 지었으니, 이로써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히브리서 11:7).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를 준비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나무를 베고, 판자를 톱질하고, 나무를 사포질하고, 못을 박고, 구멍을 뚫고, 나무 기둥을 제자리에 끼우고, 붓으로 고퍼 나무에 역청을 바르는 소리, 그리고 소가 끄는 수레가 식량과 물자 더미를 방주로 실어 나르는 소리까지. 톱밥 냄새, 갓 베어낸 나무 냄새, 알팔파 더미 냄새, 그리고 그 소들의 냄새까지 말아보세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비웃는 회의론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노아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문을 들어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저주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곧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물속의 무덤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방주 안의 구원으로 통하는 단 하나의 좁은 통로를 따라

방주 안의 구원으로 통하는 단 하나의 문을 향해 올라가는 그 좁은 통로를 걸어가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노아의 증언을 무시한 채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오직 노아와 그의 직계 가족만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믿음을 두었음을 보십시오.

방주 건축이 완성되기까지 12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하지 않으셨다”고 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하십시오. 모든 못, 모든 널빤지, 노아와 그의 가족의 모든 행동은 “다가올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외치는 전도입니다.

동물들이 두 마리씩 좁은 통로를 따라 올라가 방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정결한 동물 일곱 마리도 그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더 큰 짐승들의 무게로 삐걱거리는 널빤지 길을 따라 동물들이 ‘탁, 탁, 탁’ 하고 걸어 올라가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각 종류대로 새와 가축과 땅에 기어 다니는 모든 생물 중에서 두 마리씩 네게로 오게 하여, 그것들을 살리도록 하라”**(창세기 6:20).

노아와 그의 가족이 좁은 뗏목길을 걸어 올라가 방주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노아가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경고하려 하지만, 군중의 비웃음 소리에 그 목소리가 묻혀버리는 장면을 들어보세요. 방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에서 통로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아 보십시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닫힌 듯 신비롭게 문이 닫히는 광경을 경외심에 휩싸여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 그들이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더라.”** (창세기 7:1).

방주 안을 들여다보십시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어떻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처에 자리를 잡았는지 보십시오. 방주에서 371일 동안 지내는 데 필요한 모든

방주에서 보낼 371일 동안 필요한 모든 식량이 비치되어 있고, 동물들은 우리와 새장, 등지에 안겨 있습니다. 비둘기의 부드러운 구구 소리, 초식동물의 은은한 울음소리, 그리고 고양이의 다정한 울음소리를 들어보십시오. 평화롭고 고요한 풍경입니다.

참고: 성경에 따르면 방주에는 각 종류의 새 한 쌍씩(창세기 6장), 콧구멍으로 숨 쉬는 육지 동물 한 쌍씩(창세기 7:22), 그리고 정결한 동물 일곱 마리가 실렸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오늘날 개는 약 350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방주에는 완전한 개 유전자 풀을 가진 한 쌍의 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즐기고 있는 개들은 유전자 고갈(제10장 참조)을 통해 그 한 쌍으로부터 미세하게 적응해 온 것입니다. 물고기, 양서류, 무척추동물, 그리고 수생 포유류(고래, 돌고래 등)는 방주에 태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주에는 약 5,000마리의 생물이 있었으며, 콧구멍으로 숨을 쉬는 육상 동물의 평균 크기는 집고양이와 비슷합니다.

갑자기 쿵쿵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세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너무 미미해서 실제로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커지고, 갑자기 날카로운 충격이 이어지며 마치 지진이 일어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 후 여러 차례 지진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연의 샘들이 분출하면서 땅이 요동칩니다.

노아가 여섯백 살이 되던 해, 둘째 달 열일곱째 날, 바로 그날에 큰 심연의 모든 샘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창세기 7:11).

지구 표면이 격렬하고도 예기치 않게 갈라지며, 지각 아래에서 솟아오른 뜨거운 온천수가

솟구쳐 나오는 모습을 지켜보며 귀를 찢는 듯한 굉음을 들어보십시오. 거대한 대륙을 가로질러 갑자기 찢어지는 균열에서, 끓는 물과 마그마가 섞인 증기, 뜨거운 진흙이 성층권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십시오.

사실: 지구에는 약 50,000마일에 달하는 단층선이 교차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심연의 샘이 분출했던 자리에 남은 흉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아냥거리는 미소가 새겨져 있던, 공포에 질린 조롱자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다. 그들은 이제 와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사람들을 비웃고 저주하며 방관했던 사실을 깨닫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지금 그 방주 위에서 그들은 솟아오르는 진흙과 오물 위로 안전하게 떠 있다. 이제 와서야 불신자들과 회의론자들, 조롱하던 자들은 노아가 옳았으며, 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가 이미 지났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그리고 물 이 넘쳐흘러, 그리고 가 땅 위에서 크게 불어났고, 방주는 물 위를 떠다녔다**(창세기 7:18).

남녀노소가 안전을 찾아 높은 곳으로 허둥지둥 도망치며 내지르는 비통한 비명을 들어보라. 어떤 이들은 이제 노아에게 방주 문을 다시 열어 달라고 애원하고 있다. 흐르는 물의 압도적인 무게에 의해 그들의 집과 재물, 그리고 거짓 신들을 모신 신전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목격하라. 그리고 물은 가차 없다. 물은 계속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간다!

솟구치는 물줄기가 균열 가장자리를 따라 엄청난 양의 흙을 깎아내려, 단 몇 분 만에 엄청난 양의 진흙탕물을 만들어 내는 모습을 보라. 삼엽충이나 팔족동물과 같이 해저에 서식하던 동물들이 가장 먼저 퇴적물에 덮인다. 솟구치는 물줄기는 그 흐름에 휩쓸린 생물들을 익사시키고

그 경로에 갇힌 생물들을 익사시키고, 일부는 퇴적물 속에 재빨리 묻어버립니다. 이 퇴적물은 입자 크기, 무게, 밀도에 따라 분리되어, 나중에 홍수의 희생자들이 화석화된 상태로 포함된 층상 암석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사실: 자기장은 유해한 우주선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파괴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대홍수 기간 동안 발생한 급격한 자기장 반전의 증거는 심해에서 분출된 용암에 의해 밀려난 용융 마그마 속에 포착되었다.²⁴⁹ 1년 동안 지속된 대홍수가 끝난 이후, 자기장은 꾸준히 약화되어 왔다.²⁵⁰ 연구에 따르면, 지구 자기장에 저장된 총 에너지는 최대 20,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²⁵¹

뜨겁게 끓어오르는 온천수가 바다를 데우는 것을 느끼고, 거대한 증발로 인해 짙은 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하늘이 파란색에서 회색으로 급격히 변하는 광경을 바라보십시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지구 중앙 지역에 비가 내리고, 극지방은 눈으로 뒤덮이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습한 공기의 냄새를 맡고, 사람들이 노아에게 방주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노아는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거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들어갈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의를 선포하던 노아와 그의 가족 여덟 명만을 구원하셨으며, 경건하지 않은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습니다**(베드로후서 2:5).

하늘의 창문이 열려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라. 착륙할 곳이 물로 뒤덮이자 새들과 날개 달린 파충류들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어보라. 고개를 들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들의 날개가 힘을 잃는 모습을 보라. 비에 우박이 섞여 내리는 것을 보라. 처음에는 녹색 완두콩만한 얼음 알갱이들이었지만, 그 얼음 덩어리들은 점점 비치볼 크기까지 커져 땅을 강타하며 희생자들을 기절시킬 정도로 세계 내리친다.

떨어지는 파편들에 의해 사람, 가축, 기어 다니는 생물들이 털과 살, 피의 더미로 짓이겨지는 것을 목격하십시오. 끊임없이 높아지는 파도가 공룡들과 겁에 질린 동물 떼 전체를 휩쓸어 버리고, 그들 중 일부의 발자국과 시체를 재빨리 매몰시켜, 하나님의 과거와 앞으로 닥칠 인류의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화석화된 증거로 남게 되는 것을 보십시오.

사실: 라에톨리 발자국과 같은 인간과 유사한 발자국과 양서류, 조류, 공룡의 발자국이 깊은 층상 지층에서 발견되었다.²⁵²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홍수를 내려, 하늘 아래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 (창세기 6:17).

거대한 상어와 모사사우루스 같은 거대한 해양 생물들에게 마지막으로 살아남은 동물과 사람들이 산 채로 잡아먹히는 순간, 물 표면이 피의 구름으로 잠시 뒤덮이는 모습을 지켜보세요.

사실: 연구자들은 10만 년 이내에 붕괴되어야 할 탄소-14를 모사사우루스의 연조직 유해에서 발견했다.²⁵³

퇴적물로 가득 찬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휩쓸려 가는 사람들의 점점 희미해지는 비명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침전물로 가득 찬 물이 폭포처럼 쏟아지며 휩쓸려 가는 사람들의 점점 희미해지는 비명을 귀에 새기십시오. 쉴새 없이 쏟아지는 빗소리와 떨어지는 우박의 광광거리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울려 퍼지는 귀를 찢는 듯한 침묵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이 회색에서 숏색으로 변해가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땅이 계속해서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거대한 물의 벽이 땅 위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는 죽음과 파괴, 그리고 매몰의 장면입니다. 이는 완전하고도 철저한 심판의 장면입니다.

심판받은 인간들 중 마지막 남은 자들은 역사하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며 숨을 헐떡이지만, 쇠약해진 몸은

파도 아래로 가라앉거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물과 퇴적물의 압박 속에서 울
통불통한 바위에 부딪혀 산산조각이 난다. 어떤 이들은 고통스러운 며칠을
버티기도 하지만, 결국 방주에 오르지 못한 모든 이들은 가차 없이 치솟는 홍
수에 굴복하고 만다. **“물이 땅 위에 심히 넘쳤으니...”** (창세기 7:19a).

하나님께서서는 격렬한 대홍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는 창조주를 등지고, 의로우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 하늘 아래 모든 높은 산을** 덮을 물로 죄를 심판하실 것이라
고 경고하는 노아의 노력을 비웃었습니다(창세기 7:19).

치솟는 물과 진흙, 잔해가 뒤섞이고,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격렬한 쓰나미
가 어우러져 지구를 꾸준히 삼켜가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심판은 가차 없
으며 곧 완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소용돌이에 휘말린 다양한 동물들의 시
체가 퇴적층 아래에 함께 묻혀 있는 것을 보십시오. 때로는 생물들의 뼈들이
서로 얹혀 있기도 합니다.

사실: 전 세계의 층상 지층에서 화석 묘지가 발견됩니다. 이곳들은 무수한 생
물들이 순식간에 함께 매몰된 작은 지질학적 구역들입니다.²⁵⁴

50일, 100일, 150일 동안 깊은 곳의 샘에서 끓는 듯한 뜨거운 물과 마그마, 진
흙이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며 그 고통을 느껴보라! 과연 그 물줄기
는 멈출 수 있을까?!

물이 땅 위에서 150 일 동안 계속 넘쳐흘렀다(창세기 7:24). 샘물들은 결
국 잦아들고 비도 그쳤다. 그럼에도 홍수는 그 후로도 150일 동안 더 계속
되었다.²⁵⁵

지구의 원래 지각의 거대한 부분이 이제 비워진 곳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 충격과 포효를 느껴보십시오.

한때 심연의 샘들이 있던 곳... **물이 산들 위로 넘쳐 흘렀도다.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이 물러가고, 주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니 물이 급히 물러갔도다. 물은 산을 따라 올라가고,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신 곳으로 가도다**(시편 104:6-8).

“오, 주님!” 깊은 곳의 샘들이 분출했던 곳을 따라 거대한 단일 대륙이 갈라지며 여러 대륙을 형성하는 것을 보며 당신은 외칩니다. 지각이 뒤틀리거나 서로 부딪히며 산들을 하늘 높이 솟아오르게 하고, 일부 진흙 층을 믿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각도로 접어 올리는 동안, 땅이 격렬하게 떨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사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들의 정상에는 조개껍데기가 널려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접혀 있지만 깨지지 않은 암석층이 관찰됩니다(지질학적 압축 현상).

전 세계 곳곳에서 무수한 화산이 분출하며 뿜어내는 연기와 불기둥을 보십시오. 하늘을 가로지르는 유성 같은 암석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위력을 보여주는 장면이며, 인류가 불신과 반역의 길로 더 깊이 빠져들지 않도록 심판을 내리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드러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또한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심으로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모든 생물, 그리고 방주에 함께 있던 모든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더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창세기 8:1).

땅 위를 휘몰아치는 바람의 울부짖음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창조 주간의 첫째 날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지구를 덮고 있는 물 위를 다시금 맴돌고 계실지 모릅니다. 30층 건물보다 더 높은 파도를 일으키며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왔다 물러갈 때, 물이 앞뒤로 요동치는 모습을 지켜보십시오. 물이 수십억 톤의 잔해와

퇴적물을 휩쓸어 가다가, 그 뒤를 따라 층을 이루며 퇴적되는 모습을 지켜 보십시오. 미래 세대에게 전 지구적 대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가 될, 매몰된 생물들의 시신을 살펴보십시오.

사실: 10만 년도 채 되지 않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붕괴되어야 할 탄소-14가, 화석이 포함된 모든 암석층의 유기물에서 발견됩니다.²⁵⁶

오늘날의 지질학적 지형 대부분이 대륙에서 마지막으로 쏟아져 내리는 물이 물러나며 깎여 나간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시속 120마일의 물살이 어떤 지역에서는 최근 퇴적된 지층을 최대 10,000피트 이상 깊이까지 씻어 내리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거대한 협곡을 남기는 모습을 보십시오. 심판의 물이 무너진 지역으로 스며들어 오늘날의 바다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하십시오.

사실: 오늘날 강과 폭풍은 매년 약 200억 파운드의 퇴적물을 바다로 쏟아붓는 반면, 지각 활동으로 제거되는 양은 10억 톤에 불과합니다.²⁵⁷ 현재의 축적 속도로 볼 때, 해저의 퇴적물 양이 형성되는 데는 1,200만 년이 걸릴 것입니다. 이 사실은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 틀에는 맞지 않지만, 대부분의 퇴적물이 대홍수 기간 동안 바다로 쏟아져 들어갔다는 점에서 **성경적 관점**과는 일치합니다.

지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물에 의해 퇴적된 지층 속에 최근 매몰된 육상 및 해양 생물들은 이미 화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으로 인한 극심한 압력과 열 속에서 다이아몬드가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동굴 내에서는 수분이 퇴적물이 풍부한 층을 통과하면서 중유석과 석순이 빠르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물에 휩쓸려 온 대홍수 퇴적층 속에 갇힌 막대한 양의 식물과 조류는 결국 천연가스, 석유, 석탄 매장지를 형성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몰된 나무 줄기들은 석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채취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다이아몬드 시료에는 여전히 탄소-14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원소는 10만 년도 채 되지 않아 측정 불가능한 수준으로 붕괴되어야 한다.²⁵⁸

물로 넘쳐나 멸망했던 세상에서, 새롭게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리며 예배드리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살펴보십시오: **“그때의 세상은 물로 넘쳐나 멸망하였느니라”**(베드로후서 3:6).

사실: 지구상에는 약 1,200종의 광물이 존재합니다. 이들 중 대다수의 양과 축적 속도는 오늘날의 바다에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속적 연대인 30억 년이라는 기간에 비해 바다가 너무나도 젊음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매년 전 세계 바다에는 강물의 유출과 육지에서 침출된 나트륨으로 인해 약 3억 7,500만 톤의 소금이 유입됩니다. 이 속도가 일정했다면, 바다는 담수에서 현재의 염수로 변하는 데 약 4,000만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²⁵⁹ 그러나 대부분의 광물은 전 지구적 대홍수 동안 바다에 퇴적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고, 다시는 그런 대홍수로 죄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리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리라. 내가 구름을 땅 위에 덮을 때, 그 구름 속에서 무지개가 보일 것이니, 내가 나와 너희, 그리고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 있는 생물 사이에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물이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대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9:13-15).

오늘날의 지구본을 마음속에 그려 보십시오. 갈라진 대륙과 솟아오른 산맥, 하얀 극지방의 빙하,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죄에 대해 내리신 심판을 떠올려 보십시오.

미래 세대들은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성경과 모든 지층, 석탄 덩어리, 화석, 석유 한 쿼트,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하나가 모두 “하나님께서 다가올 전 세계적인 죄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으로 이끄는 유일한 곧은 문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마련해 주셨으며, 그 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으니라.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험박하니라...”** (마태복음 7:13-14).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특징은 그 예측이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관찰에 기반한 과학은 창세기와 대홍수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뒷받침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마디 한 마디,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청소년 및 성인 주일학교 반에서 귀하의 동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흥미롭고 유익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성경적 창조론을 믿어왔지만, 귀하의 메시지는 제가 이 정보를 다른 사람들에게 게 더 적극적으로 전하도록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시간주 댄 목사



19

인류원리(Anthropic Principle)와 인

간 종족

...하나님께서 친히 땅을 지으사...사람이 거하게 하셨으며(이사야 45:18), 그분께서...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남자와 여자로... (창세기 1:27).

실증 과학은 신자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인류원리(Anthropic Principle)**는 우주가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특정 물리 법칙과 속성을 갖추어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스어 ‘안트로포스 (anthropos)’는 ‘사람’을 의미하므로, 인류원리는 우리 우주가 인류의 존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설명합니다.²⁶⁰ 수백 가지 예시 중에서 우리 태양계 내의 몇 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태양은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조성된 독특한 별입니다. 대부분의 별은 격렬하게 맥동하며, 인근 천체의 생명체를 멸종시킬 만큼 막대한 양의 유해한 감마선, 자외선 및 기타 우주선을 방출합니다. 그러나 태양은 우리 행성에서 생명이 번성할 수 있도록 매우 균일하게 작동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 태양은 식물이 번성하기에 딱 알맞은 크기입니다. 만약 태양이 훨씬 더 작았다면, 방출되는 자외선만으로는

광합성이 일어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훨씬 더 컸다면, 방출되는 복사선이 지구상의 생명체를 파괴했을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의도적인 설계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지구는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태양으로부터 딱 알맞은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별 내부 수백만 도에서 우주 공간의 영하로 떨어지는 심해에 이르기까지 우주 전역에 걸쳐 존재하는 광범위한 온도 범위 중에서,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고작 180도의 좁은 범위뿐입니다. 만약 지구가 태양에 4% 더 가까웠다면, 모든 물이 증발하여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지구가 태양에서 4% 더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모든 물이 얼어붙어 기존의 생명체들이 번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마치 의도적인 설계가 반영된 것처럼 보입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 또한 지구상의 생명을 수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설계의 흔적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지구의 조수는 달의 중력에 의해 발생합니다. 달이 너무 가까웠다면, 조수로 인해 하루에 두 번씩 전 세계가 침수되었을 것입니다. 달이 너무 멀었다면, 조수의 힘이 너무 약해 바다를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한 해양 생물의 대재앙은 우리가 숨 쉬는 공기의 산소가 대부분 해양 식물에 의해 보충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에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는 인류원리를 뒷받침합니다.

지구의 중력 또한 생명체의 존재에 딱 알맞습니다. 우리 행성은 적도에서 시속 약 1,000마일의 속도로 회전하는 동시에, 시속 66,000마일 이상(총알보다 약 30배 빠른 속도)으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성의 중력은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어, 지구상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저는 인류원리에 대해 걸맞기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각 양성자에는 3개의 쿼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쿼크들은 반쿼크와 양전자로 붕괴된

다는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전자로 붕괴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붕괴 속도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완벽합니다. 만약 속도가 더 빠르다면, 붕괴하는 양성자가 치명적인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여 모든 생명을 끝장낼 것입니다. 속도가 더 느리다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충분한 물질이 없을 것입니다. 이는 의도적인 설계를 뒷받침합니다.

우리 태양계의 거대한 가스 행성들이 빛나간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것부터 양성자의 안정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구체적인 특성들은 인류원리를 뒷받침하며, 이는 우리의 지적인 성경적 설계자가 인류가 거주할 수 있도록 지구를 창조하셨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세속적 관점은 우주가 무한히 많다고 주장하므로, 우리 행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수학적으로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생명을 지탱하는데 필요한 정교한 조건들은 우주에서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주의 먼 곳에서 거주 가능한 행성이 발견되었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장 중 그 어떤 것도 정직한 과학적 검증을 조금이라도 견뎌낸 적은 없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도록... 지구를 지으셨고**(이사야 45:18),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창세기 1:27)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비롯되었다면, 다양한 인종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성경에 근거한 제 답변을 이해하려면 그 배경을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생물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과 네 아들의 아내들을 데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생물을 데리고 나오라... 그들이 땅에서 번성하여, 생육하고 땅 위에서 번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8:16-17). 이는 지구의 빙하기 초기였습니다(6장 참조).

우리는 빙하기가 혹독하게 추웠던 시기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당시 지구 대부분은 열대 기후를 누리고 있었다. 심해의 온천에서 솟아난 뜨거운 온천수 덕분에 바다는 따뜻해졌고, 이로 인해 대규모 증발이 일어나 구름이 형성되었으며, 이 구름은 지구 중앙 지역에는 비를, 극지방에는 눈을 내리게 했다. 극지방에 얼음과 눈의 형태로 존재하는 물의 양이 많았기 때문에,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약 395피트 낮았다. 세속적인 교과서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2만 년 전... 해수면은 오늘날보다 120m(395피트) 낮았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했다...”*²⁶¹ 해수면이 낮아짐에 따라 오늘날보다 더 많은 대륙붕이 드러났고,²⁶² 이로 인해 동물들이 지구 전역으로 퍼져 나갈 수 있었다.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생물들은 각 종에 속하는 완전한 유전자 풀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광범위한 유전적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동물들이 퍼져나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함에 따라(유전자 고갈로 인해: 10장 참조) 급속한 종 분화가 일어났다.

그러나 사람들은 반역하여 바벨이라는 한곳에 모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펠렉 시대에 사람들을 나누셨습니다.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었으니, 그의 시대에 땅이 나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0:25). ‘펠렉’이라는 이름은 ‘나뉘다’ 또는 ‘갈라지다’라는 뜻입니다. 확실히, 전 지구적인 대홍수는 대륙을 분할하고, 산맥을 솟아오르게 하며, 화산 활동이 지각을 마치 미완성된 직소 퍼즐처럼 조각내게 했습니다. 그러나 펠렉의 약 239년 생애 동안 언어들이 혼란스러워져 인류는 지구 곳곳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고, 여호와께서 그곳에서부터
그들을 온 땅의 면면으로 흩으셨기 때문이다**(창세기 11:9).

그렇다면, **서로 다른 인종들은 어디에서 왔을까?** 성경에 언급된 유일한 인종은 ‘인류’이다(말라기 2:10, 사도행전 17:26). 더 적절한 질문은 ‘**외모가 서로 다른 민족들은 어디에서 왔는가?**’일 것입니다. 그 답은 대홍수 이후 500년에서 700년이 지난 시기로, 이때 세계의 바다가 식고 증발이 느려지며 빙하기가 끝났습니다. 특히 저위도 지역에서 빙하가 녹기 시작하면서 바다가 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있던 섬이나 대륙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약 3,200년 동안 사람들은 각자의 집단 내 유전자 풀에서 후손을 낳았습니다. 각 집단의 DNA에는 미세한 유전적 변이가 축적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특정 민족 집단과 연관된 형질들이 형성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 창조주의 형상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오늘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유전 정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조인 아담과 이브에게 창조하신 유전 데이터에서 비롯(유래)된 것입니다. 이 유전 정보는 나중에 노아의 방주에 탑승한 네 쌍의 부부의 계놈으로 집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인간 계놈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네 가지 뚜렷한 유전자 풀 중 하나에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²⁶³ 멋지네요!

1995년에 남성의 Y 염색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모든 인류는 ‘**Y 염색체 아담**’으로 알려진 한 남자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모든 인류가 ‘**아프리카 이브**’ 또는 ‘**미토콘드리아 이브**’로 알려진 한 여성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돌연변이 발생률에 대한 추가 연구 결과, 이브는 약 6,000년

전쯤에 살았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²⁶⁴ 아담이나 이브의 피부색이 어땠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백인 부부와 흑인 부부의 자녀 두 명이 결혼한다면, 그들의 자녀는 전 세계 사람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피부색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은 우리가 외모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수혈이나 신장 이식 등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이는 우리가 다윈이 그의 잘못된, 세계관을 뒤바꾼 저서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에서 암시한 것처럼 서로 다른 수준으로 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쁜 것은, 그의 끔찍한 후속작 **『인간의 기원』**에서 드러난 **내용입니다**. 세속주의자들은 다윈의 첫 번째 책의 전체 제목을 숨기고, 그의 두 번째 책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행세합니다.²⁶⁵ 그러므로, 거시적 변화를 주장하는 사악한 철학이 인간을 포함한 동물들이 서로 다른 수준으로 진화했으며, 가장 진화한 종이 생존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위험하게 선전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참으로 끔찍한 일입니다!

인구 통계 연구에 따르면, 약 4,500년 전 전 지구적 대홍수에서 네 쌍의 부부가 살아남았고, 그 이후로 부부당 평균 2.2명의 자녀를 낳았다면, 오늘날 지구상에는 8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있어야 한다. 인구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행성에는 80억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다.²⁶⁶

역사적 기록 또한 성경에 기록된 대홍수의 시기를 뒷받침하는데, 신뢰할 수 있는 역사 기록은

~5,000년 전까지만 거슬러 올라갑니다.²⁶⁷ 중국 기록에는 홍수에서 배를 타고 살아남은 여덟 사람이 이후 세상을 다시 채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들은 노아의 가족에서 비롯되었으며, 그의 아들 중 한 명이 아시아로 전해왔습니다.

세속적 관점에 따르면, 고대인들은 달의 위상을 기록하고, 거대한 석조(거석) 구조물을 세우며,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만들며, 종교 의식을 거행했

지만

존재한 첫 180만 년 동안의 역사는 기록하지 못했다고 본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의 진리에 대한 흥미로운 증거는, 읽기에는 가장 지루해 보이는 부분인 족보 기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 따르면 인류 역사는 대홍수 약 1,656년 전 아담과 이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된 연대기가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기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홍수 이전 세상의 대략적인 기간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에 나오는 어근 단어들의 히브리어 번역에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아담(Adam)은 ‘사람’, 세트(Seth)는 ‘지정된 자’, 에노스(Enosh)는 ‘필멸자’, 케난(Kenan)은 ‘슬픔’, 마할랄엘(Mahalalel)은 ‘복되신 하나님’, 야렛(Jared)은 ‘내려오실 분’, 에녹(Enoch)은 ‘가르침’, 메투셀라(Methuselah)는 ‘그의 죽음이 가져올 것’, 라멕(Lamech)은 ‘절망하는 자’, 노아(Noah)는 ‘위로’를 의미합니다. 이것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읽힙니다. **“사람은 필멸의 슬픔으로 정해졌으나(그러나) 복되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가르칠 것이다. 그의 죽음은 절망하는 자에게 위로를 가져올 것이다”**²⁶⁸ 복음의 메시지가 성경의 맨 첫 번째 책에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인간의 생명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우리 태양계의 특정한 특성들은, 유전학과 역사적 기록과 더불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창세기 1:1a),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며...남자와 여자를...**

(창세기 1:27). **오감의 면도날.**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 일요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 중 하나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제가 품고 있던 수많은 의문점들에 답해 주셨고, 모든 것을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오리건주(OR)의 폴



20

지적 설계(Intelligent Design)와 성경적 설계()

뉴욕타임스는 지능적 설계 운동이 “...과학 자체의
*과학의 정의 자체를 바꿔, 과학이 자연 현상의 연구에만 국한되
지 않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²⁶⁹

위의 설명문은 과학이 편향된 자연주의적 세계관에 국한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캔자스 주립 대학교의 스콧 토드는 “*비록 모든 데이터가 지적인 설계자를 가리키더라도, 그러한 가설은 자연주의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과학에서 배제된다*”고 말했습니다.²⁹⁴ 그러나 자연주의는 과학적 이론이 아니라, 세속적 세계관의 토대가 되는 종교적 철학입니다.

자연주의는 생명 그 자체, 유전 정보, RNA/DNA 체계,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동식물에서 발견되는 그 밖의 믿기 힘들 정도로 복잡한 설계들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과정과 그들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여기는 긴 시간의 흐름이 결합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제9장에서 나는 *생명의 기원* 법칙과 생명이 스스로 생겨날 수 없을 만큼 너무 복잡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제, 바위 덩어리와 점토 조각들이 어떻게 그 복잡한 설계 뒤에 지적인 근원이 존재해야 함을 드러내는지 생각해 보자.

사우스다코타주에 있는 러시모어 산은 1927년부터 1941년까지 거츠온과 링컨 보글럼이 화강암 언덕을 깎아 만들어낸 조각상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조지 워싱턴, 토마스 제퍼슨, 에이브러햄 링컨, 시어도어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들의 60피트 높이의 흉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공원 관리인이 그 형상들이 수백만 년에 걸친 비와 바람의 침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 관리인이 미쳤다고 결론지을 것입니다. 이는 그 디자인의 복잡성이 자연적 과정으로는 발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정교하기 때문이다. 즉, 조각된 바위조차도 그 뒤에 지적인 창조자가 있었음을 요구한다.²⁷⁰

성경적 관점은, 조각된 화강암에서 보이는 디자인조차도 지적인 조각가가 존재했음을 증명하며, 땅에서 싹트고, 바다에서 헤엄치고, 하늘을 날거나 땅위를 기어 다니는 생명체들에서 발견되는 경이로운 디자인은 조각된 바위보다 수조 배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지적인 성경적 설계자의 증거라는 것이다.

지적 설계의 예들은 자연주의를 숭배하는 무리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 비록 많은 기독교인, 뉴에이지 신봉자, 힌두교도, 불교도, 불가지론자 등이 참여하는 비기독교적 지적 설계(ID) 운동²⁷¹이 존재하지만, 나는 IBD(지적 성경적 설계)를 선호한다.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영광을 마땅히 돌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지음 받은 것 중에 그 없이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기본적인 천체, 물, 대기, 토양을 준비하신 후,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에 식량과 산소의 원천이 될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창세기 1:11a).”**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는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놀라운 정도로 복잡한 과정인 **광합성**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해를 만드셨습니다. 이 과정은 녹색 식물과 조류에서 일어나며, 그들이 흡수한 햇빛, 물, 탄소를 산소와 당으로 변환시킵니다. 산소는 대기로 방출되고, 포도당은 식물 내에 저장되어 식물 itself, 초식 동물, 그리고 타락 이후의 육식 동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놀라운 IBD입니다!

하나님께서 식물의 수분을 돕기 위해 벌을 만드셨습니다. 벌과 일부 식물 사이의 정교한 상호작용은 IBD의 흔적을 드러냅니다.

‘**양동이 난초**’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²⁷² 이 꽃의 꽃잎 표면은 미끈미끈하여, 꽃의 꿀 향기에 이끌린 **꿀벌**이 미끄러져 난초의 ‘양동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양동이 안에는 액체가 고여 있는데, 꿀벌이 이 액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발판 위로 기어 올라가는 것뿐이며, 그곳에서 터널을 통해 꽃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꿀벌이 터널을 기어가는 동안 꽃의 벽이 수축하여 곤충을 붙잡아 두는 동시에, 난초는 두 개의 꽃가루 주머니를 꿀벌의 등에 접착제로 붙입니다. 접착제가 마르기를 기다린 후, 난초는 꿀벌을 풀어주어 날아갈 수 있게 하고, 만약 꿀벌이 다른 버킷 난초에 내려앉으면 이 모든 과정이 반복됩니다. 벌은 미끄러져 물웅덩이에 빠졌다가 계단을 기어 올라가 터널로 들어가고, 그곳에서 꽃의 벽이 다시 벌을 붙잡습니다. 불쌍한 작은 벌은 아마도 “*데자뷰! 나 전에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꽃에서 두 개의 갈고리가 나와 꽃가루 주머니를 떼어내며 수분 과정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은 다시 풀려납니다! 와! IBD를 위한 눈부신 지원이네요!

버킷 난초와 마찬가지로, 육식성인 **피처 플랜트(Pitcher Plant)**도 꿀을 이용하여 곤충을 유인하고, 미끄러운 표면과 액체가 고인 웅덩이를 이용해 곤충을 잡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피쳐 플랜트의 잎은 물주전자를 닮은 원통 모양을 이룹니다. 주전자의 가장자리는 미끄러워서 곤충이 그 위에 앉으면 미끄러져 주전자 안으로 떨어지며, 액체가 고인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데자뷰*를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 웅덩이는 곤충을 분해하여 식물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 해주는 소화 효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식물들 사이의 유사성은 IBD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이 생명이 있는 움직이는 생물을 풍성히 내라...” (창세기 1:20a). 창조의 다섯째 날, 하나님은 바다를 생물들로 채우셨는데, 그중에는 IBD를 외치는 **돌고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수생 포유류들은 시속 25마일까지 헤엄칠 수 있는데, 이론적으로는 근육 구조상 시속 약 10마일 정도밖에 헤엄칠 수 없어야 합니다. 이들이 물속을 그토록 빠르게 미끄러지듯 헤엄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돌고래의 외피를 물에 흠뻑 젖은 상태가 되어 돌고래가 하는 어떤 움직임에도 자동으로 적응하는 물질로 설계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시스템은 물과 돌고래 피부 사이의 마찰을 최대 60%까지 줄여주어, 이 동물이 근육만으로 낼 수 있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공학 분야의 성공은 종종 우리의 ‘지적인 성경적 설계자(IBD)’가 창조하신 세계에서 발견된 것을 모방한 데서 비롯됩니다. 해군 측은 언젠가 돌고래 피부에서 발견된 IBD를 모방하여 이를 선박과 잠수함의 선체에 적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고래와 물에서 풍성히 낳은 모든 움직이는 생물을 지으셨으니... (창세기 1:21a).

다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파리를 만드셨습니다. 이 생물들은 약 98%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뇌, 심장, 눈, 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서 매우 성공적인 포식자입니다.

거의 투명하게 설계된 덕분에, 어디를 가든 주변과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 이 무척추동물 중 일부는 특수하게 설계된 근육이 속이 빈 **종 모양의** 몸체에서 물을 밀어내어 이동하는 추진 시스템을 이용해 헤엄칩니다. 다른 개체들은 다시마와 같은 물질에 붙어 해류에 따라 떠다닙니다. 해파리는 정교하게 설계된 신경 세포에 의존하는데, 이 신경 세포는 접촉이나 움직임에 반응하여 포식자가 먹이(물고기와 다른 해파리를 포함한 작은 해양 생물)에게 독이 묻은 작은 작살을 쏘게 합니다. 그런 다음 촉수를 사용하여 먹이를 끌어당깁니다. 북극 사자갈기해파리는 가장 큰 해파리로, 일부는 무게가 500파운드에 달하고 몸 지름이 8피트에 이릅니다. 약 190피트 길이의 촉수를 지닌 이 해파리는 손을 뻗어 당신을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넓은 공창 아래 땅 위를 날아다니는 새들(창세기 1:20b).

날아다니는 생물들은 성경에 기록된 지적인 설계자의 증거이며, 하나님께서는 새, 곤충, 포유류, 파충류(멸종된 깃털 없는 익룡)의 네 종류를 만드셨습니다. 이들 각각은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공중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뇌, 중추 신경계, 깃털, 근육, 시력, 날개 등 다양한 부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통합된 기능적 시스템으로 존재해야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중 하나라도 부족했다면 이들은 날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땅에 기어다니는 존재가 되었을 것이며, 어떤 부위도 혼자서는 날 수 없기 때문에 포식자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해발 34,000피트 상공의 비행기에 타고 있을 때, 나는 무엇이 비행기를 공중에 떠 있게 하는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비행기의 어떤 부품을 손에 쥐고 놓아버리면 땅으로 떨어질 테니까. 사실, 모든 부품은 지적인 엔지니어들이 설계한 대로 통합된 시스템으로서 함께 작동해야만 하며, 그렇지 않다면 비행기는

결코 이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날아다니는 곤충, 포유류, 파충류, 새들은 모두 IBD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지으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세기 1:21b).

모든 새들, 심지어 다윈의 핀치들조차 IBD를 증명합니다. 딱따구리를 예로 들어 봅시다. 이 놀라운 새는 기관총이 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쪼아댈 수 있으며, 부리가 나무에 부딪힐 때 발생하는 갑작스러운 충격은 중력의 약 1,000배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딱따구리가 처음 나무를 쪼았을 때 머리가 터지지 않게 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부리와 뇌는 충격을 흡수하는 조직으로 두개골과 분리되어 있으며, 충돌 직전에 특수한 근육이 새의 뇌를 부리에서 멀리 끌어당깁니다. 이러한 통합된 설계는 IBD를 가리킵니다.

새의 뼈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 속이 비어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강도를 제공하는 내부 가로대(cross-members)가 없었다면 이 뼈들은 쉽게 부러졌을 것입니다.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은 가로대가 엄청난 지지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를 인공 구조물에 적용합니다.

새의 깃털은 깃대(shaft)에서 갈라져 나오는 가닥(barbs), 서로 겹쳐지는 옆가지(side branches), 그리고 각 부위를 제자리에 고정하는 벨크로(Velcro)와 같은 갈고리 등 수만 개의 부품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에 따르면, 새의 깃털은 **“동물에서 발견되는 가장 복잡한 표피 부착기”**라고 합니다.

273

새의 날갯짓은 날개를 아래로 밀어내는 강력한 가슴 근육과 날개를 위로 들어 올리는 정교하게 설계된 도르래 시스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날갯짓은 공기를 뒤로 밀어내며, 공기역학적으로 설계된 날개 위로 공기가 흐르게 하여 날개 위에 빈 공간을 만들어 새를 들어 올려,

비행을 가능하게 한다. 날개와 꼬리 깃털을 움직이는 근육들은 비행자의 항공 전자 컴퓨터인 새의 뇌에 의해 제어되며, 중추 신경계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작동한다. 놀랍다! 그러니 ‘새 뇌’라고 불리는 것도 결국 그리 나쁜 말은 아닌 것 같다.

박쥐가 5일째에 만들어졌는지 6일째에 만들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주가 내린 이 세상에서 먹이를 사냥하는 데 있어 곤충을 잡아먹는 **박쥐**(어떤 종은 시간당 최대 500마리의 모기를 잡기도 합니다)는 IBD를 외치고 있습니다!

박쥐는 ‘**박쥐 소나**’로 알려진 독창적으로 설계된 반향 위치 파악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밤에도 곤충을 사냥할 수 있습니다. 박쥐는 30,000~100,000 헤르츠(초당 진동 수)의 고주파 소리, 즉 소나 펄스를 방출합니다. (다행히도 인간의 청각 상한선은 20,000 헤르츠이므로, 박쥐의 소리가 우리를 미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 다음 박쥐는 물체에서 반사되어 돌아오는 메아리를 듣고 식별하는데, 그 간격이 2백만 분의 1초에 불과하더라도 이를 통해 장애물을 피하고 먹이를 잡을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IBD입니다!

‘전 지구적 대홍수’를 부정하는 이들이 가장 오래된 것으로 간주하는 하부 암석층에서 발견된 화석 박쥐들은 오늘날의 박쥐만큼이나 복잡하며, “... **박쥐와 곤충을 먹는 동물 사이에는 알려진 중간 단계가 없다**”는 점에서 IBD를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²⁷⁴ 진정한 과학은 신자의 진정한 친구입니다.

..보라, 거기에는 벌 떼와 꿀이 있었다.. (사사기 14:8). 이제 다시 벌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꿀벌은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서 발견되는 IBD의 또 다른 놀라운 예이기 때문이다. 꿀벌은 잘 설계된 벌집을 짓는 팀워크가 뛰어난 곤충입니다. 이를 위해 꿀벌들은 한 마리의 여왕벌과 약 75,000마리의 암컷 일벌 및 수벌로 구성된 군집을 이루며, 각 개체는 특정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여왕벌은 최대 8년까지 살 수 있는 반면, 수벌의 삶의 목적은 여왕벌과 짝짓

기를 하는 것입니다. 수벌은 임무를 완수한 후 죽습니다.

암컷 일벌은 약 20일 정도 살며, 각자는 벌집 짓기, 벌집 구조물 건설, 꿀 만
들기, 또는 적으로부터 동지를 지키는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린 일
벌들은 날개를 퍼덕여 벌집 안을 식히거나 서로 뭉쳐 벌집을 따뜻하게 함으
로써 벌집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꿀
벌은 꽃에서 꽃으로 꽃가루를 옮기며 버킷 오키드와 같은 식물의 수분 과정
을 완성합니다.

꿀벌의 놀라운 설계적 특징 중 하나는 ‘**꿀벌 춤**’으로 알려진 상호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정찰벌**의 움직임은 다른 벌들에게 새로운 먹이원의 거리와 방
향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 먹이원이 벌집에서 100야드 이내라면 일벌은
약 3/4인치 정도를 춤춘 원형 동작으로 앞뒤로 회전합니다. 먹이가 더 멀
리 있다면, 일벌은 원형 패턴을 그린 다음 원을 가로질러 이동하며, 태양을
기준으로 벌집에서 먹이가 어느 방향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정말 놀라운 의
사소통 시스템입니다! 이 정교한 움직임은 IBD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나비 역시 확실히 IBD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생물들은 처음에는 기
어 다니는 애벌레로, 나중에는 번데기로, 마지막에는 날아다니는 나비로 발
달하도록 암호화된 유전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유전 정보는 매우 압축적
으로 저장되어 있어, 100억 마리의 나비를 만드는 조립 설명서를 티크택
(Tik-Tak) 크기의 용기에 담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애벌레는 잎을 씹을 수 있도록 튼튼한 턱을 가지고 설계되었으며, 소화계는
잎, 특히 특정 식물 한 종류의 잎만을 소화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애
벌레가 성장하면 잎에 실크 닻을 감아 고정하고 번데기 단계로 들어갑니다.
이 단계에서

머리도 다리도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중추 신경계를 제외한 애벌레의 장기들이 단일 세포로 분해되고, 그로부터 새롭고 다른 장기들이 발달하여 웅장한 나비가 탄생하는 기적적인 변화, 즉 변태가 일어납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나비는 날 수 있는 능력과 꽃꿀을 빨아먹기 위한 길고 접을 수 있는 빨판, 꽃송이에 매달릴 수 있는 긴 관절 다리, 복합 눈, 그리고 종종 애벌레 시절 먹었던 것과 같은 종류의 식물에 알을 낳기 위해 수천 마일을 이동할 수 있는 항법 능력을 갖추고 세상에 나옵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세 가지의 극히 다른 성장 단계 각각에서 생존하기 위한 본능을 포함하여, 나비의 매우 복잡한 유전 정보 속에 미리 프로그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적적인 생물들은 IBD를 외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서 다윗은 또한 “나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라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 오지, 소형 비행기나 배로만 접근할 수 있는 몇몇 교회에서 설교를 나누던 중, 한 분이 가족의 겨울용 무스 고기를 채취하러 함께 가자고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즐리 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후추 스프레이를 챙겨 가야 할지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제가 물어본 모든 사람이 “*당연하죠, 곰들은 매운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참으로 재치 넘치는 알래스카 사람들입니다!

다음 날 해가 뜨기 전, 우리는 16피트 길이의 알루미늄 보트에 올라타 강을 따라 17마일 상류로 향했고, 곰 발자국으로 뒤덮인 넓은 모래톱에 상륙했다. 거대한 곰 발자국이었다. 길이가 20인치, 폭이 14인치이며 자갈 속에 2인치나 파인 발자국을 말하는 것이다. 바로 음식을 매콤하게 먹는 걸 좋아하는 그런 곰들 말이다.

하루 종일 하이킹을 했지만 무스나 곰의 흔적조차 발견하지 못한 채 보트로 돌아왔더니,

엔진이 시동도 걸리지 않았다. 알래스카 출신 사냥꾼이 말했다. “오늘 밤은 이 모래톱에서 자야겠군.” 내가 말했다. “그럴 리가 없지!” 나는 근처 비버 댐에서 10피트 길이의 알더 나무 장대 두 개를 뽑아들고, 장대를 찢으며 강을 따라 내려가 자정 무렵 마을로 돌아왔다. 곰이 우글거리는 모래톱에서 자라고? 참, 건방진 알래스카 사람들!

곰과 비버는 모두 IBD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종류대로 살아 있는 생물과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창세기 1:24).

곰은 흑곰부터 그리즐리, 북극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이들은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두 마리의 곰에서 진화했으며, 적응과 돌연변이(유전자 고갈)를 통해 다양한 유전적 손실을 축적하여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곰의 종류가 되었습니다.

모래톱에 발자국을 남긴 거대한 갈색 곰들은 강력한 생물체들이다. 6인치 길이의 발톱은 땅을 파기에 안성맞춤이며, 강력한 턱은 식물성 먹이를 씹어 먹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저주받은 대홍수 이후의 세상에서 무스 뼈를 부수기에도 잘 설계되어 있다. 이들은 최대 400파운드의 지방을 저장할 수 있는데, 이는 알래스카의 긴 겨울 동안 굴에 틀어박혀 지내는 동안 식량 공급원 역할을 한다. 놀랍게도, 갈색곰의 몸은 지방 1그램을 태울 때마다 1.5그램의 물을 생성합니다. 이 물은 단백질로 전환되어 곰의 체력을 유지해 주고, 어미 곰이 새끼에게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합니다. 6개월 동안의 반동면 상태에서 지방을 활용하는 이들의 능력은, 노아의 방주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일 년을 보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알래스카에서 가장 큰 곰은 체중이 1,800파운드에 달하며 시속 약 33마일로 달릴 수 있는데, 이는 올림픽 단거리 선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입니다. 곰 사냥꾼과 그의 안내자에 관한 알래스카의 옛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사냥을 준비하던 중, 사냥꾼은 배고픈 곰으로부터 도망쳐야 할 경우를 대비해 무거운 방수 부츠를 신어야 할지, 아니면 가벼운 하이킹화를 신어야 할지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곰보다 빨리 달아날 수 없으니 무거운 방수 부츠를 신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런데 사냥꾼이 부츠 끈을 묶고 있을 때, 가이드가 가벼운 하이킹화를 신고 있는 것을 보고는 왜 무거운 방수 부츠를 신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화난 그리즐리 곰이 그들을 쫓아올 경우 빠르게 달아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기분이 상한 사냥꾼이 “사람은 곰보다 빨리 달릴 수 없다고 당신이 말했잖아요!”라고 말하자, 가이드는 “맞아요. 하지만 전 당신보다 빨리 달릴 수만 있으면 되니까요!”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아이고! 무거운 부츠를 신고 매운 음식을 먹다니.

비버는 털이 많은 포유류로, 댐을 짓는 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습니다(누군가 그들의 댐 건설 현장에서 말뚝을 뽑아내지 않는다면 말이죠). 비버는 놀라운 신체 구조 덕분에 물속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량의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저장할 수 있는 거대한 간과 폐, 물속에 잠겼을 때 느려지는 심장 박동, 눈을 보호하면서도 수중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달히는 투명한 눈꺼풀, 그리고 헤엄칠 때는 닫혔다가 수면 위로 올라오면 열리는 귀와 코의 특수하게 설계된 밸브 등이 포함됩니다. 여기에 헤엄치기 위한 물갈퀴가 달린 발, 방향을 조절하는 노 모양의 꼬리, 그리고 물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막아주는 자가 윤활 선 시스템까지 더하면, IBD(신체적 유사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창세기 1:26a).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가장 훌륭한 것, 특히 우리의 뇌와 마음, 지성, 그리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남겨두셨습니다. **말하기**는 인간에게만 있는 특성으로, 오직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설골이 필요합니다. 이 특별한 뼈는,

우리 뇌가 정보를 이해하고 생각을 만들어내는 뛰어난 능력과 결합되어, 뇌가 혀와 입술, 횡격막에 말하기 명령을 보낼 때 말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놀랍고 기묘하게 지어졌음이니이다. 주의 행하심이 기이하시니, 내 영혼이 이를 잘 아나이다”**(시편 139:14).

인간의 뇌는 약 3파운드의 회백질로 이루어진, 눈에 보이는 유기적 컴퓨터입니다. 생물학 시간에 인간의 뇌를 배우지만, 뇌는 그 안에 담긴 지능이 만들어 낸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우리 뇌는 피부에 닿는 자극을 해독하고, 코로 들어오는 냄새를 분석하며,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파장과 귀로 받아들여진 소리를 인식하여, 이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변환합니다. 우리 뇌는 중추 신경계를 통해 전신에 퍼져 있는 수십억 개의 신경 세포로 수십억 개의 전자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심장 박동부터 눈 깜빡임에 이르기까지, 우리 뇌와 뇌간은 모든 행동을 제어합니다. 뇌는 심지어

중요하지 않은 사항들을 걸러내기도 하며, 모래알 크기의 뇌 조직 하나에는 10만 개의 뉴런과 서로 소통하는 10억 개의 시냅스가 들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문장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만 있어도 뇌는

문장 전체를 문제없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뇌의 전두엽에 있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신경과학, 심리학, 철학을 통해 인간의 마음을 연구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각, 감정, 의식, 그리고 지능으로 구성됩니다. **지능**이란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칭 무신론자이자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스티븐 J. 굴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 진화의 장엄한 행렬은 (놀라운 정도로)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일련의**

“사건들... 인간 지능과 같은 것이 그 재현을 빛내 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안타깝게도 그는 여전히 그 극히 희박한 가능성을 믿기로 선택했다.

귀를 지으신 분이 들으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94:9a). **인간의 귀는**

20,000 헤르츠의 고음부터 20 헤르츠(초당 진동 수)의 저음까지 들을 수 있으며, 공기, 체액, 뼈를 이용해 음파를 전달합니다.

우리의 걸귀는 컵 모양으로 되어 있어 음파를 포착하여 외이도로 유도하고, 외이도는 이를 고막으로 전달합니다. 고막의 미세한 진동은 중이에 있는 작은 악기 같은 구조물로 전달되는데, 이 구조물은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세 개의 뼈인 이소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뼈들은 태어날 때부터 크기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난 첫날부터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소골은 진동을 압축하여 작은 달팽이 껍질 모양을 띠고 수많은 **털**로 이루어진 달팽이관으로 전달합니다.

초미세 기공들이 초당 최대 20,000회까지 열리고 닫히며, 전하를 띤 이온들이 이모세포에 도달하도록 하여 진동을 전기 신호로 변환하고, 이 신호는 뇌로 전달되어 뇌가 이를 해석합니다. 정말 놀라운 IBD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마태복음 13:9).

...너희 눈은 복이 있도다. 이는 보는 까닭이니... (마태복음 13:16a). 인간의 눈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설계된 단일 렌즈 기관으로, 1제곱인치 면적당 약 125만 개의 신경 연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눈물은 눈을 윤활해 주고, 항균 단백질인 리소자임은 외부 침입자로부터 눈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 뇌는 눈의 제어 센터로서, 눈과 함께 작동할 때 둘 다 원래 설계된 대로 자동으로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의 눈은 뇌와 소통하여 우리가 공을 잡거나, 일직선으로 걷거나,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페이지에 적힌 말씀입니다. **“눈을 지으신 분이 보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94:9b). 정말 놀라운 IBD입니다!

찰스 다윈은 자연적 과정만으로는 시력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당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 비해 시력에 수반되는 복잡성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다윈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다양한 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빛의 양을 조절하며, 구면 수차와 색수차를 보정하기 위한 흉내 낼 수 없는 모든 장치를 갖춘 눈이 자연 선택을 통해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솔직히 고백하건대, 지극히 터무니없는 일로 보입니다.”**²⁷⁵ 그리고 눈에는 인간, 유인원, 오징어, 척추동물, 삼엽충 등 다섯 가지 유형이 존재해 왔다. 이는 다윈의 진화론을 받아들이려면 눈이 단 한 번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다섯 번이나 진화했다고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다윈은 눈이 가장 터무니없는, 즉 다윈주의적 거대진화를 통해 생겨났다고 믿기로 선택했다.

삼엽충은 IBD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이들은 이중 렌즈 구조를 갖추고 최대 15,000개의 렌즈 표면을 가진,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복잡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와! 그런데도 이들은 가장 낮은 지층에서 발견됩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삼엽충의 눈이 가장 먼저 진화한 것 중 하나였음을 의미하는데, 이는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사이언스 뉴스**』는 삼엽충이 “**자연이 만들어 낸 가장 정교한 눈 렌즈...**”²⁷⁶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도했는데, 이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리니,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해졌고, 귀는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때문이라...**”(마태복음 13:13-15a)는 말씀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 림록(Rimrock) 위의 언덕을 하이킹하던 중, 나는 땅 위에 부서지기 쉬운 점토 조각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무릎을 꿇고 자세히 살펴보던 중, 정교하게 디자인된 그릇의 가장자리를 발견했다. 설계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 디자인의 복잡성은 이를 만든 지적인 설계자가 존재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게 했다. 마찬가지로, RNA/DNA 시스템, 광합성 과정, 삼엽충의 눈 등에 나타나는 디자인의 복잡성은 우리의 지적인 성경적 설계자를 가리키고 있다(로마서 1:20).

“...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하여 묻는 모든 사람에게 대답할 준비를 하라...”(베드로전서 3:15)는 말씀에 따라, 이 글이 어떤 이들에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데**(마태복음 13:15b) 도움이 되어, 그들이 우리의 지혜로우신 성경적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을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마지막 날에 사람들은 진리에서 떠나 허황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딤후 4:3-4). 저는 예전에 아이들에게 개구리가 공주의 키스라는 마법의 요소 덕분에 잘생긴 젊은 왕자로 변할 수 있다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오늘날 다윈주의자들은 이와 비슷한 동화를 가르칩니다. 바로 진핵생물이나 박테리아 세포가 ‘수십억 년이라는 시간’이라는 마법의 재료를 통해 인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이것이 단지 이야기일 뿐이지만,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많은 이들이 속아 넘어가 진리에서 떠나 허황된 이야기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하나님께서 이 글을 통해 사람들이 오도하는 동화에서 벗어나, 육신이 되신 그분의 말씀, 곧 우리의 주님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러스



21

하늘 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

네

**우리의 창조주이자 심판자, 구세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만드신 우주에 다 답을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창조물 곳곳에서 그분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
다.**

러스 밀러

세속적 관점은 우리 태양계가 수십억년이나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현대 천문학은 수십억 년이라는 사고방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재되어 있으나 관측되지 않은 편견에도 불구하고, 관측 가능한 증거는 누구에게도 세속적 관점을 통해 우주를 해석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천체물리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인 존 에디 박사는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태양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 (약 6,000년이라는) 수치를 받아들이 수도 있습니다. 천문학 분야에서 그와 상충되는 관측적 증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²⁷⁷

성경의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 하셨고**(창세기 1:1), 창조 주간의 넷째 날에 **하나님은 두 큰 빛을 만드셨는데, 큰 빛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빛은 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창세기 1:16a). 예를 들어, **낮을 다스릴 큰 빛을** 생각해 보자. 태

양은 확실히 큰 빛이다. 지구 96만 개가

나를 담을 수 있을 정도로 크니, 확실히 큰 빛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태양으로부터 9,300만 마일 떨어진 곳에 두셨으며, 현재의 빛의 속도인 초당 186,282마일로 계산할 때, 햇빛이 지구까지 도달하는 데 8분 17초가 걸립니다.

밤을 다스릴 작은 빛은 바로 우리의 달입니다. 『뉴 사이언티스트』에 따르면, 화산 활동의 흔적은 달이 *불과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음을 시사합니다.²⁷⁸ 그러나 화산 활동은 달이 불과 수천 년 전에 형성되었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달의 나이가 불과 수천 년에 불과하다는 추가적인 증거로는 수명이 짧은 달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앞서 방사성 연대 측정법이 방사성 원소의 붕괴 속도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토륨 230은 오늘날의 붕괴 속도로 볼 때 약 5만 년 후에 납으로 변해야 한다. 그러나 달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에서는 다른 반감기가 짧은 동위원소들과 마찬가지로 토륨 230이 발견된다. 이러한 관찰 가능한 사실들은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된 성경의 시간대를 뒷받침한다.²⁷⁹

달의 후퇴 현상 또한 태양계가 비교적 젊다는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우리 달은 매년 4~12인치의 속도로 지구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²⁸⁰ 이는 아담과 이브가 살던 시절에는 달이 오늘날보다 지구에 몇 마일 더 가까웠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달의 후퇴 현상은 ‘오래된 지구’ 설을 믿는 이들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현재의 멀어지는 속도를 고려할 때, 8천만 년 전, 즉 공룡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에 달은 지구와 매우 가까웠을 것이며, 그로 인해 달의 중력으로 인해 하루에 두 번씩 조수가 지구를 덮쳤을 것입니다. 달의 후퇴가 오래된 지구 설에 이야기하는 또 다른 문제는 로슈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르면, 달이 지구로부터 11,500마일 이내에 있다면 조석 마찰²⁸¹로 인해 달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 지구와 달이 수십억 년이나 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 16절에서 우리는 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셨음을** 배웁니다. 이 구절에서 ‘별’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별’이라고 부르는 것부터 혜성, 성운, 행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천체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성경적 창조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폭발한 별들, 혜성, 그리고 목성에서 얻은 증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초신성은 폭발한 별입니다. 폭발한 별의 잔해 수백 개가 관측되고 있습니다. 관측된 별의 죽음 발생 속도를 고려할 때, 우리가 보는 초신성들은 기껏해야 7,000년 분량에 불과합니다. 초신성의 부족은 우주가 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증거입니다.²⁸²

수명이 짧은 혜성들은 ‘긴 시간’ 이론에 대한 또 다른 도전 과제입니다. 이 혜성들은 우리 태양계를 가로지르며 이동하는 동안 물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물질을 잃는 속도로 볼 때, 이 혜성들은 약 10,000년이 지나면 존재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수명이 짧은 혜성이 많이 존재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오래된 우주론을 지지하는 천문학자들은 *오르트 구름*이 새로운 혜성을 생성하며, 이 혜성들이 명왕성 궤도 바로 바깥쪽의 카이퍼 벨트에 머무른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혜성 하나가 우리 태양계로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오르트 구름*은 관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학적 확률에도 어긋나므로, 이는 *수십억 년*을 믿는 이들에게 비과학적인 변명에 불과하다. 수명이 짧은 혜성들은 **성경적 관점**을 뒷받침한다.

목성은 거대한 행성입니다. 지구 약 1,300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성은 급속히 냉각되고 있다. 연구에 따르면 목성은 태양으로부터 열을 받는 속도보다 거의 두 배나 빠르게 열을 잃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열 손실에도 불구하고, 목성은 여전히 따뜻한 행성이다. 또한 목성에는 강력한 자기장을 가진 위성 가니메데가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많은 과학자들은 자기장이 천체 내부의 녹은 금속의 운동에 의해 생성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측 가능한 사실들은 최근 창조론을 뒷받침한다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만약 태양계가 *수십억 년이내* 되었다면, 목성과 가니메데는 오래전에 얼어붙은 공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²⁸³

일부 행성과 위성이 막대한 양의 열을 잃고 있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이들이 수축하고 있어 중력 에너지가 내부 열과 복사 에너지로 변환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²⁸⁴ 그러나 수축만으로는 천체들이 아직 얼어붙지 않은 이유를 설명할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없다. 다른 이들은 어떤 종류의 화학 반응이나, 목성의 핵에 충돌하는 헬륨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또 다른 이들은 일종의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²⁸⁵ 지금까지 *수십억 년이내*라는 시간을 설명할 만한 타당한 근거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속적 진영이 타당한 설명을 찾기 위해 애쓰는 동안, 관측 가능한 사실은 목성이 뜨거운 천체라는 점²⁸⁶과 가니메데가 견고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으로, 이는 이들이 *수십억 년*된 것이 아님을 시사한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JWST)은 2021년 크리스마스에 발사되었다.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세속적 토대인 ‘*수십억 년의 시간*’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성경의 기록을 반박하는 것이었다. 이는 1990년에 발사된 허블 우주 망원경²⁸⁷의 목표이기도 했다. 그러나 두 망원경 모두 성경 신자들에게 기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었다.

현재의 빅뱅 이론(8장 참조)은 우주가 *60억 년*에서 *200억 년* 전(현재 통설은 *136억 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한다.²⁸⁸ 만약 그렇다면, 관측된 속도로 볼 때 우주 공간의 물질은 10억 년도 채 되지 않아 고르게 분포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허블 망원경이 우주 공간의 아주 작은 일부를 향해 렌즈를 96시간 동안 노출시킨 후, 그 결과로 얻은 영상은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가시 우주 전역에 걸쳐 있는 별들이

가 성단 형태를 이루거나, 성단들 사이에 거대한 공허한 공간이 있는 성속하고 뻥뻥하게 감긴 나선 구조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었다.²⁸⁹

이는 별들이 흩어질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와인딩 업 딜레마’²⁹⁰로 알려져 있다. 즉, 별들이 너무 뻥뻥하게 얹혀 있어 *수십억 년이*나 된 것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은하수 은하의 내부 별들은 외부 별들보다 은하 중심을 훨씬 더 빠르게 공전하고 있어, 약 50만 년이 지나면 별들이 흩어져 특징 없는 원반이 되었을 것이다. ‘와인딩 업 딜레마’는 우주가 젊음을 드러내며, 최근 창조를 주장하는 성경적 세계관을 뒷받침한다.

관측된 사실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세속주의자들은 허블 망원경보다 6배 더 많은 빛을 포착하는 JWST가, 멀리 떨어진 은하에서 발산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는 그들의 역사적 서사를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러한 믿음에 근거하여, JWST가 포착한 이미지에는 빅뱅 직후의 갓 태어난 우주, 초기 별과 은하의 형성, 가까운 별 무리보다 더 어둡고 더 넓게 퍼져 보이는 먼 은하들, 그리고 거주 가능한 행성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강력한 JWST의 관측 결과는 이러한 ‘오래된 우주’에 대한 기대들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과학적으로 관측 가능한 이미지들은 완전히 성숙한 은하들, 새로운 별이나 은하의 형성 없음, 먼 은하들의 크기와 밝기가 가까운 은하들과 비슷한 수준임, 그리고 거주 가능한 행성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²⁹¹ 이러한 관측 결과들은 하나하나가 성경에 근거한 창조론을 뒷받침합니다. 그러니,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라함에게 별들에 관한 예언적인 비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 기슭의 모래처럼... (창세기 22:17). 따라서 맨눈으로 약 1,500개의 별밖에 볼 수 없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 수를 바다 기슭의 모래알에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허블과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관측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과학은 수십억 개의 은하가 존재하며, 각 은하마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별의 수는 우리 행성의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수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운영 과학은 하늘을 **떠신** 우리 창조주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문은 그분의 창조물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각 별이 서로 다르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에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에는 달의 영광이 있으며, 별에는 별의 영광이 있으니, 별마다 그 영광이 서로 다릅니다.”** 다시 한번, 천문학적 과학은 별들이 크기, 열 방출량, 색상 및 기타 요인에 따라 다양하여 각 별이 고유한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증합니다.

이사야 51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으신 여호와, 곧 하늘을 떠신 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하늘을 떠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의 광대함과 하늘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엄청난 숫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백만이라는 숫자는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10억 단위가 되면 개념이 모호해지기 시작하고, 1조 단위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숫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비교를 제시해 보겠습니다. 백만 초는 약 11일에 해당하고, 10억 초는 약 32년, 1조 초는 약 32,000년에 해당합니다! 네, 이 숫자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광년’이라는 단위를 통해 하나님의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이해하려고 합니다. 빛이 현재의 속도로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는 약 6조 마일이기 때문에, 광년은 시간이 아니라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 6조 마일을 초로 환산한다면, 광년은 약 192,000년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펴신 하늘의 광대함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별들도 만드셨다(창세기 1:16). 우리 태양을 제외하면, **폴룩스**는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중 하나다. 불과 34광년 떨어져 있다. 이 별의 지름이 우리 태양의 9배나 되니, 꽤나 먼 거리다! **아크투루스**는 하나님께서 시속 40만 마일의 속도로 우리 은하계를 가로지르도록 만드신 별입니다. 지구에서 37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텔게우스**를 우리로부터 427광년 떨어진 곳에 두셨습니다. 이 거대한 별의 지름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의 지름보다 두 배나 큼니다! 사실, 베텔게우스는 너무나 커서 지구 262조 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베텔게우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별인 **VY 카니스 마요리스**에 비하면 아주 작습니다. 이 별은 너무나 커서 빛이 한 바퀴 도는 데 8시간이 걸리며, 지구 7경 개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이 무엇인지 아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초를 예로 들면, 1경 초는 3,200만 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VY 카니스 마요리스를 우리로부터 5,000광년 떨어진 곳에 두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하늘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을 드러내며 그분의 영광과 권능, 전능하심을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성품(성부, 성자, 성령)은 그분의 창조물 전반에 걸쳐 반영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시간)에 하나님이 하늘(공간)과 땅(물질)을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시간, 공간, 물질은 각각

삼위일체의 특성.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공간은 높이, 너비, 깊이를 가지며,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로 나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배웁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분명히 보여지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의 복잡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성품에 이르기까지, 창조물은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하늘은 참으로 우리의 영광스러운 창조주이자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께서 분이 만드신 우주에 담기에는 너무나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높은 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별들의 높이를 보라, 얼마나 높은지.** (욥기 22:12).

“저는 13살 된 딸을 억지로 데리고 교회에 가야만 했습니다. 교회에 가면 딸은 팔짱을 끼고 마음을 닫은 채 앉아만 있었죠. 그러다 제가 선생님의 동영상 몇 편을 구해 딸과 함께 보게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은 선생님이 전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개월 전 일인데, 오늘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유타주(UT)의 실비아



22

창조에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세속적인 세상은 삶의 물질적인 측면을 숭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하나로 결합하셔서, 우리가 창조주이시며 심판자이시며, 구속자이시며, 다시 오실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러스 밀러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알려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으니...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그리고 14절에서는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또한 자신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요한복음 6:35).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누가복음 4:4). 우리가 구원을 받는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

이 창조하시되...”라고 기록된 첫 다섯 단어부터 시작되는, 타협 없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창세기 1:1a).

우리 자신에게 솔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습니다(로마서 3:23). 우리의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로마서 6:23): 영적 죽음에 이어 육체적 죽음이 따릅니다. 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우리는 끝장난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신 우리 창조주이신 독생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예언된 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습니다(고린도후서 5:21). 그 후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고린도전서 15장), 영원토록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입니다**(고린도후서 15:1-4; 요한일서 2:2).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머지않은 미래에 다시 오셔서, 그분을 믿는 자들을 데려가 더 이상 죽음도, 고통도, 슬픔도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실 것입니다(요한계시록 21장, 이사야 25:6-9).

제 기도는 『대가를 *생각하라*(CONSIDER THE **COST**)』가 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절대적인 진리를 다시 깨닫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러스.*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에게 마을 밖의 거대한 바위를 밀어내는 데 평생을 바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곧 며칠이 몇 달로, 몇 달이 몇 년으로 흘러갔습니다. 바위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남자는 부지런히 바위를 밀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위를 움직이지 못한 좌절감에 그는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바위를 밀지 않고 울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남자는 “주님, 수년 동안 바위를 밀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아, 내가 너에게 바위를 옮기라고 한 적이 없다. 단지 밀어보라고만 했을 뿐인데, 너는 잘 해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십니다. 저는 ‘다원주의로 이어지는 수십억 년’이라는 바위를 계속 밀어내며 이 격언을 자주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든, 계속 힘내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십시오. 러스



부록 1 – ‘ , 관련 참고문헌

1. 1996년 ‘워싱턴 무신론 행진’ 연설 발췌문.
2. Wald, G., “생명의 기원”, SCIENTIFIC AMERICAN 191(2):44-53, 1954년 8월.
3. en.wikipedia.org/wiki/Geologic_time_scale.
4. Glenco Biology; 상대적 및 절대적 연대 측정법; 1994; 306-307쪽. 부록 1 부록 1 284, 285.
5. Nationalgeographic.com/science/phenomena/2015/02/02/scienc-espeak-lazarustaxon.
6. Evolution exposed Earth Science, R.Patterson, 1-11, answersingene-sis.org/geology/geologic-time-scale.
7. Discoveryworld.us/the-wonders-of-Creation/mount-saint-helens-little-grandcanyon.
8. 『기원에 관한 교육 질문들』 ; 『인류의 기원』 ; 창조연구학회; 1986년 3월; 185쪽.
9. 오스틴, S. A. 1986. 세인트 헬렌스 산과 대재앙설. Acts & Facts. 15: 7쪽.
10. CreationEvolutionHeadlines,rev.info/2007/12/geology_sinks_in_the_mud.
11. 파커, G., answersingenesis.org/fossils/how-are-fossils-formed/how-fast-fossilsrock-layers.
12. 노아의 방주와 공룡; R 밀러; CISM: Creation Ministries.Org; 2019; 8쪽.
13. Wald, G., “생명의 기원”, SCIENTIFIC AMERICAN 191(2):44-53, 1954년 8월
1954년 8월 (48쪽 인용).
14. 보스턴 글로브; 건강 과학; 작은 물고기가 과학계의 거인을 도전하다; F. Heeren, 글로브 특파원, 2000년 5월 30일
15. E. Mayr, Science 1972년 6월 2일: 제 176권, 제 4038호, 981-989쪽, 『다윈 혁명의 본질』 .
16. nuclear.ca/all-things-nuclear/radiation/radioactive-decay를 가르치다.
17. 포브스, 2015년 2월 6일: 과학이 틀릴 때; 폴 로저스.
18. J.E.O'Rourke, 『층서학에서의 실용주의 대 유물론』 , 제276권 1-76; 54쪽.
19. 환경 지질학: 지구 시스템 과학적 접근; D. 메리츠, A. 드웬트, K. 멘킹; WH 프리먼 앤 컴퍼니; 1998년, 86쪽.
20.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호모 하빌리스, G. P. 라이트마이어, 참조 번호 866170.
21. Riddle, M., “탄소-14 연대 측정은 성경을 반증하지 않는가?”; 2007년 9월 20일; answersingenesis.org.
22. 나무 나이테 시계열 간의 상호 상관관계 해석. 야마구치, D., 《Tree Ring Bulletin》 46: 47-54쪽, 1986.
23. 화석화된 유기 물질에서 측정 가능한 14-C; J. 바움가드너 박사, 제5회 국제 창조론 회의; 제 2권; 2003; 창조과학펠로우십; 펜실베이니아; 127-142쪽.
24. 탄소 연대 측정은 진화론의 긴 시대를 반박한다; J. 바움가드너 박사, Ph.D. www.icr.org/articles/view/117/262.
25. 층리의 의의: 몇 가지 추론, 『Journal of Sedimentary Petrology』 , 제36권, 제4호, 880-887쪽.
26. 고린도전서 3:19. KJV.
27. SCIENCE; ON CAMPUS; 2004년 8월 27일, 제305권, 제5688호, 1237쪽
28. 지구의 자기장이 10배 더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다, CBS 뉴스, 켈리 디커슨, 2014년 7월 9일, Livescience.com.

29. J. D. 모리스 박사, 『젊은 지구』 (아칸소주 그린 포레스트: 마스터 박스, 2000), 74-85 쪽.
30. 30년 후, 세인트 헬렌스 산에서 얻은 교훈, B. 토마스 박사, icr.org, 2010년 5월 20일.
31. CreationEvolution Headlines, rev.info/2007/12/geology_sinks_in_the_mud.
32. 윌리엄스, A. “가장 오래된 호미니드 발자국은 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1993년 9월 1일; answeringgenesis.org/articles/cm/v15/n4/hominid-no-evolution.
33. 화석화된 유기물에서 측정 가능한 14C: 바움가드너(Baumgardner), J. 박사, 제5회 국제 창조론 회의; 제2권; CS 펠로우십; 2003; 127-142쪽.
34. 오스틴, S. A. 1986. 세인트 헬렌스 산과 대재앙설. Acts & Facts. 15: 7쪽.
35. 화석 묘지, <https://www.genesispark.com/exhibits/fos-sils/graveyards>.
36. 창세기 7:24-8:5.
37. 브린슨 브루스, H., 실험: 급속 형성된 화석; 2011년 9월 20일; <http://www.answersingenesis.org/articles/am/v6/n4/fast-formed-fossils>.
38. 모리스, 존, 박사. 1995. 다층 화석이란 무엇인가?. Acts & Facts. 24 (9).
39. 모리스, J. 박사, 2009년 10월 1일, Acts & Facts, “전형적인 다층 화석”. S
40. 오스틴, S. A. 2009. GSA 회의에서 영향력을 발휘한 기독교 지질학자들. Acts & Facts.
41. 오스틴, S. A. 1996. 세인트 헬렌스 산 화산의 새로운 다사이트 용암 돔에서 채취된 광물 농축물 내의 과잉 아르곤. 『Creation Ex Nihilo Technical Journal』. 10 (3): pp. 335-343.
42. 반 앤데, 쇼어; 『해양 지질학 및 캘리포니아 만』; 미국 석유 지질학자 협회; 1964; 350쪽.
43. 『위쪽으로 흐르는 강』, grandcanyonguide.net/?q=content/river-thatflowed-uphill.
44. 국립공원관리청: nps.gov/grca/learn/nature/fossils.htm.
45. 그랜드 캐년의 암석들은 ‘깊은 시간’을 보여주지 않는가? icr.org/article/dont-grandcanyon-rocks-showcase.
46. 그랜드 캐년의 대불일치면, lpi.usra.edu/science/treiman/greatdesert/workshop.
47. 그랜드 캐년의 ‘대불일치층’, lpi.usra.edu/science/treiman/greatdesert/workshop.
48. 그랜드 캐년의 형성에 대한 재고, grandcanyontreks.org/geology2.htm.
49. 그랜드 캐년 가이드; 2008; Oard, M., Bokovoy, D., Her-genrather, J.; 156쪽.
50. 진정한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brycecanyoncountry.com/the-grand-stair-case-firstthree-steps.
51. 그랜드 캐니언 형성의 대안 이론, 2011년 6월 14일, khouse.org/enews_article/2011/1789/print.
52. 내셔널 지오그래픽 키즈; 5쪽; 2005년 3월.
53. 판 구조론, nationalgeographic.org/media/plate-tectonics.
54. 대륙 이동설, nationalgeographic.org/encyclopedia/continental-drift.
55. 안데스 산맥 고지대에서 발견된 고래 화석은 산이 바다에서 솟아올랐음을 보여준다, WM Brown, NY Times, 1987년 3월 12일.

56. 접힌 지층의 지형적 표현, [geo.hunter.cuny.edu/~fbuon/GEOL_231/Lectures/Fold-Fault Land-forms](http://geo.hunter.cuny.edu/~fbuon/GEOL_231/Lectures/Fold-Fault-Land-forms).
57. 기후 변화: 과거와 미래, 빙하기.
earthguide.ucsd.edu/virtualmuseum/climatechange2/01_1.shtml.
58. 『설계된 공룡』 ; D. 기쉬 박사; 23쪽; 1992.
59. 과학의 오용: 창조론에 대한 반론, 필립 키처; 1998년, 121쪽.
60. 『설계된 공룡』 ; D. 기쉬 박사; 23쪽; 1992.
61. 리처드 오웬 경; 《공룡을 발명한 남자》 ; T. 멀렌; BBC; 2015년 2월 26일; 31623397.
62. 미국 자연사 박물관 amnh.org/exhibitions/mythic-creatures/dragons/natural-history-of-dragons.
63. 『지구의 탄생과 우주의 나이』 ; D. G. 린지; 1993; 18-20쪽.
64. 티라노사우루스의 연조직 혈관 및 세포 보존; 슈바이처, 호너, 《Science》 207:1952-1955; 2005년 3월 25일.
65. 노아의 방주와 공룡; R. 밀러; CISM: Creation Ministries.Org; 2012; 15쪽.
66. 호일, 프레드, 1950, 영국 방송 공사(BBC), 라디오 시리즈. 『우주의 본질』 .
67. 스티븐 호킹, “빅뱅 이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안다”고 말하다, Live Science; 브랜든 스펙터, 2018년 3월 2일.
68. Britannica.com/science/thermodynamics/The-first-law-of-thermodynamics.
69. 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second-law-of-thermodynamics.
70. Britannica.com/topic/laws-of-thought.
71. 뉴 사이언티스트; 2004년 5월 22일.
72. F. 호일 경; C. 위크라마싱헤; 『우주에서 온 진화』 ; 1981; 135쪽.
73. LA Times; 2015년 2월 4일; 아미나 칸; <https://phys.org/news/2015-02-cosmic-inflationbicep2-results.html>.
74. 포브스, 2015년 2월 6일; 과학이 틀릴 때; 폴 로저스.
75. First Things; firstthings.com/article/2016/05/scientific-regress 과학적 퇴보, 2016년 5월, W.A. 월슨.
76. 버그만 박사, J., 『과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점』 ; 1994년 9월.
77. Thefreedictionary.com/uniformitarianism.
78. 오래된 지구인가, 아니면 전 지구적 대홍수인가, CISM; CreationMinistries.Org; 발표; 2019.
79. 뉴욕 타임즈, 2000년 5월 30일, 빛은 그 자체의 한계를 뛰어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80. 뉴욕 타임즈, 2001년 1월 18일, “과학자들이 빛을 완전히 멈추게 하고, 잠시 멈춘 뒤 다시 보낸다.”
81. J. 버그만 박사, 『과학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관점』 ; 1994년 9월호.
82. 마틴 링스, 『비교 종교 연구』 , 연감, 1970.
83. merriam-webster.com/dictionary/hypothesis.
84. 진화론 대 창조론;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E.C. 스콧; 2009; 26쪽.
85. Merriam-webster.com/dictionary/symbiotic.
86. 생명 발생의 법칙—정의, biology-online.org/dictionary/Law_of_biogenesis.
87. J. 버그만 박사; 『생명의 자연 발생은 불가능하다』 ; 1999; 『창조 연구 학회 분기별지』 ; 제36권; 제4호.
88. 진화론 대 창조론; 캘리포니아 대학교 출판부; E.C. 스콧; 2009; 26쪽.
89. 다원주의의 망상, 밀러, R., 도브킨스, J., 2010; 90-91쪽.

90. 왜 무생물 발생은 불가능한가; J. 버그만 박사; 창조 연구 학회 분기별지; 제36권; 제4호.
91. 우리가 아는 생명체가 실험실에서 거의 재현되다; 로버트 R. 브릿; 라이브 사이언스; 2009년 1월 11일.
92. 『다윈의 블랙박스: 진화에 대한 생화학적 도전』, M. 베헤, 1996, 38-43쪽.
93. BBC; 앤토니 플루: 생각을 바꾼 무신론자; 윌리엄 크롤리; 영국; 2010년 4월 16일.
94. 판스페르미아: 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panspermia.
95. 리토판스페르미아: astrobio.net/news-exclusive/life-could-have-hitched-a-ride-to-the-moons-of-jupiter.
96. 어니스트 마이어, 진화 생물학자, 하버드 대학교, 『현대 사상에 미친 다윈의 영향』, 2009, 사이언티픽 아메리칸.
97. 『다윈주의의 망상』; 밀러, R., 도브킨스, J., 2010; 88-89쪽.
98. C. 다윈;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 1859; 170쪽.
99. 나비; 1998; 글렌코 생물학; 325쪽.
100.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barna.com/research/six-reasons-youngchristians-leave-church.
101. Hodge, M. J. S. 1992. 자연 선택: 역사적 관점. *진화 생물학의 핵심 용어*.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 대학교 출판부, 212-219쪽.
102. 자연 선택은 유전자형에 작용하는가, 아니면 표현형에 작용하는가? 리처드 고건; 2017년 4월 25일; Sciencing.com. 부록 1 부록 1 286 287
103. 게놈이란 무엇인가, yourgenome.org/facts/what-is-a-genome.
104. 신다윈주의 (진화론), chemistrylearning.com/neo-darwinismtheory-of-evolution.
105. TIME; Gloomy Nobleman, 1946년 11월 11일; GNT-5.
106. Acts & Facts; Impact; 『생물의 진화(Evolution of Living Organisms)』 서평 - 피에르-폴 그라스(Pierre-Paul Grasse) 저; 윌리엄 바우(William Baue); 1979년 10월 1일.
107. 유전적 엔트로피란 무엇인가, geneticentropy.org/whats-genetic-entropy.
108. Chemical and Engineering News, 존 로스 박사; 1980년 7월 27일, 40쪽.
109. DNA 결실 및 중복과 관련 유전 질환; 네이처 에듀케이션(Nature Education)의 Scitable; S. 클랜시 박사; 2017년 4월 25일; Sciencing.com.
110. 유전학 홈 레퍼런스: 홈오박스 유전자, ghr.nlm.nih.gov/primer/genefamily/homeoboxes.
111. Negoro, S., 나일론 올리고머의 생분해 [리뷰], *Appl. Microbiol. Biotechnol.* 54(4):461-466, 2000| doi: 10.1007/s002530000434.
112. 프레임시프트 돌연변이, biologydictionary.net/frameshift-mutation.
113. 점 돌연변이, biologydictionary.net/frameshift-mutation.
114. 『새로운 답변 책 2』; 돌연변이는 진화의 “엔진”의 일부인가? B. Hodge, 2010년 2월 18일.
115. 피드백, 조지아 퍼덤 박사; 유익한 돌연변이가 있는가? 2008년 4월 25일 <https://answersingenesis.org/genetics/mutations/are-there-beneficial-mutations/>
116. I.L. 코헨, 『다윈은 틀렸다: 확률에 관한 연구』, 1984년, 4쪽, NR Publications.
117. 돌연변이의 집단 유전학: 유익한 것, 해로운 것, 중립적인 것. ncbi.nlm.nih.gov/pmc/articles/PMC2871823.
118. 교과서에 실린 다윈주의에 반박하는 50가지 사실; CESM 발표; 2024; 시각 자료 #55.
119. 교과서에 실린 다윈주의에 반박하는 50가지 사실; CESM 발표; 2024; 시각 자료 #38-43.
120. 디모데전서 6:20-21. KJV.
121. 글렌코 생물학; 1998; 323쪽.
122. 글렌코 생물학; 1998; 324쪽.

123. 지구의 진화; D. Prothero; R.Dot; McGraw Hill; NY; 제7판; 2004; 46쪽.
124. 네이처 463, 536-539; 2010년 1월 28일.
125. 우리는 바나나와 유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 www.getscience.com, 편집부; 2017년 6월 29일.
126. 계통수 및 계통도; R. 앳킨슨; 2014년 3월 5일; Prezi.com.
127. 수렴 진화, biology-online.org/dictionary/Convergent_evo-lution.
128. C. 다윈; 『종의 기원』; 제6판, 1872; 런던; J. Murray; 1902; 413쪽.
129. C. 다윈;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 1859년, 211쪽.
130. 캄브리아기 대폭발, 고생물학, T. 프리트요프 플래너리, britan-nica.com/topic/Cambrian-explosion.
131. J. 비에가스; 디스커버리 뉴스; 『인류의 가계도』; discovery.com; 2010년 11월.
132. J. 굴드, 『진화의 현재: 다윈 이후 1세기』, 존 메이너드 스미스, 뉴욕: 맥밀런 출판사, 1982.
133. 『신화 속의 말 시리즈』; J. 모리스 박사; 창조 연구소; 『Acts & Facts』; 2008년 9월 1일.
134. 『노아의 방주와 공룡』; R. 밀러; CESM: Creation Ministries.Org; 2019; 15쪽.
135. 『사이언스』, 존 N. 윌포드, 2006년 4월 5일; 과학자들이 물고기 화석을 ‘누락된 고리’라고 부른다.
136. 『지구의 진화』; D. 프로테로, R. 도트; 맥그로힐, 뉴욕; 제7판; 2004; 46쪽.
137. 슈빈, N. 데슬러, E., 켄킨스, F., “티크탈릭 로제아(Tiktaalik roseae)의 가슴지느러미와 사지동물의 사지 기원”; 《네이처》 440; 764-771, 10.1038/nature04637; 2006년 4월 6일.
138. C. 패터슨, 루터 선더랜드에게 보낸 편지, 1979년 4월 10일, 『다윈의 수수께끼』 (Darwin’s Enigma); 그린 포실, 아칸소주: 마스터 북스, 제4판; 1988; 89쪽.
139. Juby, I. Ian의 ‘Science Notes’; http://ianjuby.org/scinote_sept_2008.html.
140. “실재하지 않았던 ‘미상 링크’” (Tim Friend 저); USA TODAY, 2000년 2월 3일.
141. 아르케오프테릭스; 《네이처》 322호; 1986년 8월 21일; 《사이언스》 253호; 1991년 7월 5일.
142. 네이처(Nature) 322호; 1986년 8월 21일; 사이언스(Science) 253호; 1991년 7월 5일.
143. Juby I., “공룡에서 새로”; 2010년 11월 12일, Ian Juby 및 CORE Ottawa와 함께하는 CrEvoNews; <http://ianjuby.org/newsletter/?p=417#2>.
144. 스미소니언 자연사 박물관, humanorigins.si.edu/evidence/humanfossils/species/homo-neanderthalensis.
145. “루사”는 “잃어버린 고리”가 아니다!; Creation Magazine; 1990년 6월 1일. <http://www.answersingenesis.org/articles/cm/v12/n3/lucy>.
146. 화석,
147. 치아와 성: 인간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찰스 옥스나드,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 시애틀 및 런던; 1987; 227쪽.
148. 『다윈주의의 망상』; 밀러, R., 도브킨스, J., 2010; 98-99쪽.
149. 『다윈주의의 망상』; 밀러, R., 도브킨스, J., 2010; 103-104쪽.
150. 『생물학』; K. R. 밀러, J. 레빈; 프렌티스 홀; 2006; 838쪽.
151. 『사이언스 뉴스』; 2002년 10월; 제162권 제16호; 253쪽.
152. 네이처 66; 2002년 10월.
153. 생물학; K.R. 밀러; J. 레빈; 프렌티스 홀; 2006; 838쪽.
154. Watts, A., “과학자들이 진화의 ‘누락된 고리’를 밝혀내다”; Sky News; 2009년 5월 20일.
155. 다윈의 망상; 밀러, R., 도브킨스, J., 2010; 102쪽.

156. 대규모 유전자 조사로 밝혀진 진화의 새로운 측면; 2018년 5월 28일; 말로우 후드; <https://phys.org/news/2018-05-gene-survey-reveals-facets-evolution.html>.
157. 농약 내성의 진화적 기원; 《Biological Review》; 호킨스; 배스; 딕슨; 네브; 2018년 7월 3일.
158. 스페이스 데일리; 공룡에서 조류에 이르는 생식계의 진화; 케빈 홀든, 중국 베이징 (SPX) 2014년 6월 3일
159. 농약 내성의 진화적 기원; Biological Review; 호킨스; 배스; 딕슨; 네브; 2018년 7월 3일
160. 다윈의 망상; 밀러, R., 도브킨스, J., 2010; 129쪽.
161. 교사 가이드북; 국립과학원; 1998; 16-17쪽.
162. 밀러, R., 도브킨스, J., 『다윈주의의 망상』; 2010; 125쪽.
163. Nugent, W., 『유전적 엔트로피: DNA 돌연변이율이 다윈주의 진화를 무너뜨린다』, 2017년 5월 15일. medium.com/@b1e1nugent/genetic-en-tropy.
164. 거대진화와 소진화의 차이는 무엇인가?; J.D. 모리스 박사; 창조연구협회; Acts & Facts 25 (10); 1996년 10월 1일.
165. 다윈주의의 망상; 밀러, R., 도브킨스, J., 2010; 76-77쪽.
166. 제2번 염색체 융합 모델. J. 버그만 박사, 『Journal Creation』, 제25권; 제2호; 2011년 가을.
167. 제2번 염색체 융합 모델. J. 버그만 박사, 『Journal Creation』, 제25권; 제2호; 2011년 가을.
168. 조작된 배아 삽화가 어떻게 끝없는 거짓말로 이어졌는가; 『뉴 사이언티스트』; 매튜 콕; 2015년 1월 14일.
169. The Times; 영국 런던; 1997년 8월 11일; 14면.
170. 『지구의 진화』; D. 프로테로, R. 도트 주니어; 맥그로힐 출판사, 뉴욕; 제7판; 48쪽; 2004년.
171. 아가미 슬릿에 대한 수상한 점; T. 미첼 박사, E. 미첼 박사, 2007년 3월 14일; Answersingenesis.org.
172. ‘50가지 사실 대 성경의 기록’; CESM 발표; 2012년; 시각 자료 #46-49.
173. 왜 대부분의 발표된 연구 결과가 거짓인가; PLOs: Medicine; 2005년 8월.
174. 윤리적 잔소리; 캐롤린 토마스, 2009년 11월.
175. 철회된 과학 연구: 늘어나는 목록; 뉴욕 타임스; 2015년 5월 28일; 마이클 로스턴.
176. <https://www.collective-evolution.com/2015/05/16/editor-in-chief-of-worlds-bestknown-medical-journal-half-of-all-the-literature-is-false/>.
177. Evolution News; 앤 가우거, 2017년 12월 7일; <https://evolutionnews.org/2017/12/retractions-show-scientists-blinded-by-belief>.
178. First Things; firstthings.com/article/2016/05/scientific-regress 과학의 퇴보, 2016년 5월, W.A. 윌슨.
179. 논문 철회의 문제점, 네이처, 1022호, 리처드 반 노르덴; nature.com/news/2011/111005.
180. The College Fix; 예일대 저명한 컴퓨터 과학 교수, 다윈의 이론을 더 이상 믿지 않기로. 2019년 7월 30일, 제니퍼 카바니(Jennifer Kabbany), 편집자. <https://www.thecollegefix.com/famed-yale-computer-science-professor-quits-believing-darwins-theories/>
181. 예일대 켈러너터: 다윈주의에 도전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다. 데이비드 클링호퍼, 디 스커버리 인스티튜트: 과학 및 문화 센터. 2019년 8월 5일.
182. 수십억, 수백억의 악마들; 『뉴욕 리뷰』; 1997년 1월 9일; 31쪽.

183. 다윈, C., 『자연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 1859; 및 『나의 생애와 서한』; 제1권.
184. 파스칼 강연, 워털루 대학교; 캐나다 온타리오주.
185. 자연주의, vocabulary.com/dictionary/naturalism.
186. 세속 인본주의; 신의 배제, secular-humanism.com.
187. NYT, Abroad At Home, A. Lewis, 2001년 12월 15일, ny-times.com/2001/12/15/opinion/abroadat-home.
188. F. Galton, 《유전적 재능과 성격》; MacMillan; 12:157-166 및 316-328, 1865년 6월-8월.
189. 클레이와 M. 리프먼, 『우월한 인종: 나치 독일의 레벤스보른 실험』, 부록 1 288-289, 호더 앤 스톤; 영국; 181쪽; 1995.
190. Gasman, D., 『국가사회주의의 과학적 기원』; American Elsevier, 뉴욕; 1971; 73, 88쪽.
191. 『Creation』: 제18권; 제1호; 9쪽.
192. 교육에 관한 강의 및 연례 보고서, 호레이스 맨, 1867.
193. 생명: 생물학의 과학; 시나우어 어소시에이츠; 2001; 13쪽.
194. 신이교주의의 급속한 확산; 드레이퍼, E., 2008년 6월 26일; 덴버 포스트; www.denverpost.com/commented/ci_969,5062?source=commented.
195. 알린스키, S.,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 1971; 서문 헌사.
196. 해리 트루먼 대통령; 법무장관 회의 연설; 1950년 2월 25일.
197. 『킬러 엔젤』; G. 그랜트; 리포머 프레스; 65, 73, 105쪽. 『여성의 몸, 여성의 권리』; L. 고든; 팅컨 프레스; 뉴욕, 332쪽.
198. 『킬러 엔젤』; 조지 그랜트; 리포머 프레스; 104쪽.
199. 와일드 어스; 여름호; 1991년.
200. 1799년 4월 25일, 선거 설교, 매사추세츠주 찰스턴. 《미국의 영광》; P. 마셜, D. 마누엘 (가보그스 하트 앤 홈, 1991).
201. A.A. 호지, 『복음주의 신학』,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배너 오브 트루스, 1976), 245쪽.
202. 카를 마르크스, “해결 법철학 비판” (1844).
203. 호튼 미플린 하코트(Houghton Mifflin Harcourt)의 『사회 연구』, 교사용 판, 1994.
204. Discover Heritage, 교사용 판 (보스턴: 호튼 미플린), 1997.
205. 연표: 제1차 대각성 운동이란 무엇이었던가? Christian-ity.com/church/churchhistory/timeline.
206. 사도행전 17:3. KJV.
207. 정치, 문학 및 도덕 주제에 관한 논문 모음; 뉴욕: 웹스터 & 클라크, 1843, 291쪽.
208. 1836년 10월 25일, 『정치, 문학 및 도덕 주제에 관한 논문 모음집』, 291쪽.
209. 러시(Rush) 박사, B., 『교과서로서의 성경 사용 옹호』, 1798.
210. 독립선언서 서명자들, 2007년 10월 27일, churchvstate.blogspot.com/2007/10/signers-of-declaration.html.
211. 벤자민 모리스의 『미국의 시민 제도 속 기독교적 삶과 인격』.
212. 미국 의회 도서관, 헨콕, J., 『주 의회』, 콩코드, 1775년 4월 15일.
213. 메탁사스, E. 2016년 4월 26일, cnsnews.com/commentary/eric-metaxas/ban-ning-mostdangerous-book-world.
214. RG 페리스, 『헌법 서명자들』: 미국 내무부, NPS: WA D.C. (1976년 개정판), 135-145쪽.

215. Washingtonpost.com/news/acts -of-faith/wp/2017/06/28/how-benja-minfranklin-a-deist-became-the-founding-father-of-a-unique-kind-of-americanfaith.
216. 알렉산더 해밀턴, 『leaderu.com/orgs/cdf/onug/hamilton.html』 .
217. T. 제퍼슨에게 보낸 편지, 1813년 6월 28일, founders.archives.gov/documents/Jefferson/03-06-02-0208.
218. 제2차 대각성, u-s-history.com/pages/h1091.html.
219. 1837년 7월 4일 독립기념일 연설, J.Q. 아담스, teachingameri-canhistory.org.
220. 『윌리엄 H. 수어드의 생애와 그의 저서 선집』 (1855년판).
221. 『공화국의 전투 찬가』, 루이스, J., 2017년 9월 19일, thoughtco.com/battle-hymnof-the-republic-words.
222. A. 링컨, 대통령 도서관 박물관, illinois.gov/alplm/museum/About/news/Pages/Lincoln's-Bible.
223. Wallbuilders.com/message -of-president-grant-to-the-children-and-youth-of-the-u-s.
224. 성경에 대한 호소, D. 브루어, 1904년 9월 10일, 1904년 10월 16일 청년 기독교인 협회 연설.
225. Goodreads.com/author/show/187347. 윌리엄 맥킨리의 발언.
226. A. 링컨, 대통령 도서관 박물관, illinois.gov/alplm/museum/About/news/Pages/Lincoln's-Bible.
227. 캘빈 쿨리지, azquotes.com/author/3231-Calvin_Coolidge.
228. 해리 트루먼, 연설 발췌문, 연방 교회 협의회 회의, 1946년 3월 6일.
229. 1952년, 조라크 대 클라우슨 사건, 더글러스 대법관의 저술, selfgovernment.us/news/william-o-douglas.
230. ACLU 자체 문서를 통해 밝혀진 사실들, 다이앤 듀, di-anedew.com/aclu.htm.
231. Mwilliams.info/archive/2008/02/the -full-title-of-darwins-on-the-origin-of-species.php.
232. 저스티아 미국 법률/미국 판례, law.justia.com/cases.
233. 과학과 종교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 NYT; 2006년 11월 21일.
234.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barna.com/research/six-reasons-young-christians-leave-church.
235. 발췌문: 1984년 8월 24일 텍사스에서 열린 에큐메니컬 기도 조찬 모임에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연설.
236. 연설 발췌문, 1996년, '워싱턴 무신론자 행진'.
237. G. 리처드 보자스; 『진화의 의미』; 『아메리칸 애시스트』, 30쪽; 1979년 9월 20일.
238. 『과학과 히브리 전통』; D. 애플턴 앤 컴퍼니; 뉴욕; 1897년; 235-236쪽.
239. 캘빈 대학의 아담과 이브 논란: J. 후글랜드; 『그랜드 래피즈 프레스』; 2011년 8월 9일.
240. 마태복음 13:24-30. KJV.
241. 바나 리서치; 대다수의 성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진다고 느끼지만, 성경적 세계관이 부족하다; 2005년 8월 9일.
242. 톰 라이너, 『브리지 세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세대, 그들이 믿는 것,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
243. J. 바르, 『히브리어 성경의 다양한 철자법』, 92쪽.
244. 출애굽기 20:11. KJV.
245. C. S. 루이스, “신학은 시인가?” 『영광의 무게: 그리고 다른 연설들』 (뉴욕: 하퍼콜린스, 1949/2001), 140쪽.
246. 《우리 행성에 상처를 남긴 371일》; 밀러, R., 도브킨스, J., 2009; 12-17쪽.

247. 창세기 7:19. KJV.
248. 창세기 1:6-8. KJV.
249. 대홍수 기간 동안 지구 자기장의 반전을 일으킨 물리적 메커니즘
; 험프리스, R., 제2회 창조론 국제 학술대회 논문집; 제2권; 129-142쪽.
250. 지구 자기장이 10배 더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 CBS 뉴스, 켈리 디커슨, 2014년 7월 9일,
Livescience.com.
251. 참고 문헌: J. D. 모리스 박사, 『젊은 지구』 (아칸소주 그린 포레스트: 마스터 박스, 2000),
74-85쪽.
252. 윌리엄스, A.; ‘가장 오래된 호미니드 발자국은 진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1993년 9월 1일;
answersingenesis.org/articles/cm/v15/n4/hominid-no-evo-lution.
253. 화석화된 유기물에서 측정 가능한 14C: 젊은 지구 창조-대홍수 모델을 입증함; 바움가드너
(Baumgardner), J. 박사, 제5회 국제 창조론 회의; 제2권; 창조과학펠로우십; 2003; 127-137
쪽.
254. 화석 묘지, <https://www.genesispark.com/exhibits/fos-sils/graveyards>.
255. 창세기 7:24-8:5.
256. 화석화된 유기물에서 측정 가능한 14C: 젊은 지구 창조-대홍수 모델을 입증함; J. 바움가드
너 박사, 제5회 국제 창조론 회의; 제2권; 창조과학펠로우십; 2003; 137-142쪽.
257. 바다에서 사라진 소금; 진화론자들에게 주어진 딜레마; Austin, S., R. Humphreys; 제2회 국
제 창조론 회의; 제2권; 창조과학펠로우십; 1991; 17-33쪽.
258. 화석과 다이아몬드 속의 탄소-14, 진화론의 딜레마, 《Answers Magazine》, 2011년 1월
1일.
259. 해양으로의 퇴적물 유출에 대한 지형학적/지질학적 제어; 밀리만, 시비츠키; 《지질학 저널
》; 1992; 제100권; 525-544쪽.
260. 인류원리란 무엇인가? christian-apologetics-resources-and-
education.com/Anthropic-Principle.html.
261. 창조: Creation Ex Nihilo; 1999년 12월; 8쪽.
262. 환경 지질학: 지구 시스템 과학적 접근; 1998; 33쪽.
263. 내셔널 지오그래픽, 2002, 제노그래픽 프로젝트, S. 웰스, 『인류의 여정: 유전학적 오디세이
』.
264. Science News; #279; 1998년 1월 2일.
265.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 또는 유리한 종의 보존. 생명의 투쟁에서.
266. 미국 및 세계 인구 시계; 미국 인구조사국; www.census.gov.
267. 인류의 가장 초기 기원: 진화 연대기의 불일치; J. 드리트. 창조론에 관한 국제 회의; 제2권;
1991; 73-78쪽.
268. 창세기에 담긴 복음: 숨겨진 메시지, C. 미슬러, 1996년 2월 1일,
khouse.org/articles/1996/44.
269. 뉴욕 타임스; 철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캔자스 주 교육위원회가 과학의 정의를 재정의
하다; 2005년 11월 15일.
270. 은하와 성간 물질의 물리학; H. 헤플러, H. 엘사서, 스프링거-베를라그; 1987; 베를린; 352-
353쪽 및 401-413쪽.
271. 지적 설계 운동은 기독교적인가? 퍼덤 박사; 『새로운 답변 책 2』; 2010년 5월 6일.
272. 참조: 『Creation Ex Nihilo』; 1999년 12월; 8쪽.
273. Prum, R.O. 및 Williamson, S., 깃털 모양의 성장과 진화에 관한 이론, 《Experimental
Zoology, Molecular, Developmental, Evolution》. 291: 30-57, 2001.

274. Hickman, Larson & Roberts; *척추동물의 진화*; 333쪽; 2001.
275. 『종의 기원』, J.M. Dent & Sons Ltd, 런던, 1971, 167쪽.
276. 사이언스 뉴스; 1974년 2월 2일; 72쪽.
277. Eddy, J., 1978년 9월, Geotimes, W. Jackson 저, Christian Courier 웹사이트.
278. 뉴 사이언티스트; 2001년 6월 9일; 13쪽.
279. 『진화 핸드북』; Vance Ferrell; 2001; 133쪽.
280. 달의 후퇴; 이것이 젊은 우주를 뒷받침하는가? Wright, D., 2006년 8월 11일, Answersingenesis.org.
281. Chapman, C. R. “목성을 향해 날아가는 혜성”. Nature. 363 (6429): 492–493). 1993년 6월.
282. 은하 내 초신성 잔해의 분포; K. 데이비스, 1994; 175-184쪽.
283. 덴버 포스트; 1996년 12월 13일, 목성 탐사선; K.C. 콜.
284. W. J. 넬리스, M. 로스, N. C. 홀즈; 《사이언스》 269; 1995; 1,249.
285. 천체물리학 저널; R. Ouyed, W. Dundamenski, G. Crips 및 P. Sutherland; 501; 1995;
367. 부록 1 부록 1 290 291
286. G. D. Bouw, Ph.D., “목성의 과잉 에너지는 행성이 젊음을 시사하는가?” www.geocentricity.com
287. 허블 우주 망원경, nasa.gov/mission_pages/hubble/story/index.html.
288. 화석, 치아, 그리고 성: 인간 진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 찰스 옥스나드, 워싱턴 대학교 출판부, 시애틀 및 런던; 1987; 227쪽.
289. COSMOS; 스원번 천문학 온라인 천문학 백과사전.
290. 나선 은하들은 왜 그 형태를 유지할까? 아니면 그렇지 않을까? Science-frontiers.com/sf055/sf055p07.htm.
291. JWST의 새로운 관측 결과가 빅뱅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다. J. 리스 박사, 《천문학》, 2024년 8월 2일.
292. 『더 위켄드 오스트레일리안』, 1983년 5월 7-8일, 매거진 섹션, 3쪽.
293. 허프포스트, 2011년 7월 11일. 루스, M., FSU. 진화는 종교다.
294. 네이처, 401, 423 (1999년 9월 30일): 토드, S., 진화론 논쟁에 대한 캔자스의 관점.
295. 진화는 종교다, 허프포스트: 루스, 마이클, 2011년 7월 11일.
296. 『태초에: 창조와 대홍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 제9판, 2025년, W. 브라운 박사, 224-258쪽 (creation-science.com에서 열람 가능)



부록 2 - 용어집

변증학(Apologetics): ‘변호’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apologia’에서 유래했다. 기독교 변증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호하기 위한 답변을 제공한다.

무신론: 물질만이 존재한다는 믿음으로, 흔히 무신론적 유물론이라고도 불린다. 무신론자들은 인간의 영과 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염색체: 생물체의 유전 정보(유전자 및 뉴클레오티드 분자)를 담고 있는 구조물.

COST: 성경적 기초를 나타내는 약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물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타락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켰고**(이로 인해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창조주와 다시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 - **t**.

다윈주의: 수십억 년에 걸친 죽음의 과정을 통해 생명체들이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얻었으며, 자연 선택에 의해 종 내에서 적응력이 낮은 개체는 제거되고 더 강한 변이체만이 번식하여 유전자 풀을 장악함으로써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했다는 믿음.

진핵생물(Eukarya): 현재 생명의 세 도메인 중 하나로 간주되며(나머지는 박테리아, 고세균), 막으로 둘러싸인 핵을 가진 유기체들로 구성된다. 많은 다윈주의자들은 인간이 진핵생물에서 진화했다고 믿는다.

거짓 과학: (러스(Russ)에 따르면): 입증된 과학적 사실로 가르쳐지는, 관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편향된 이야기. ‘역사적 과학’을 참조하라.

유전자: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생물학적 단위. 유전자는 DNA 사다리의 가로대를 구성하는 분자(A, T, C, G)로 이루어져 있다.

유전자 고갈: 돌연변이, 적응 및 변이가 부모의 유전 정보의 선별(재조합) 또는 상실에 의해 발생한다는 생물학적 원리.

게놈: 한 유기체의 완전한 유전적 내용물. 대부분의 게놈은 여러 개의 염색체로 구성된다.

하나님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 생존 가능한 유전적 손실의 양을 제한함으로써 해당 종의 유전 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나님이 각 생물의 DNA에 심어 놓으신 과정.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약 130,000 입방 마일의 퇴적물을 제거한 대규모 침식 현상으로 인해 형성된, 애리조나 북부와 유타 남부에 위치한 일련의 절벽. 주요 구간으로는 버밀리언 클리프, 자이언, 브라이스 캐년이 있다.

역사 과학: 인류가 현재의 과정을 관찰할 수 없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에 적용하려는 시도(‘균일설’ 참조). 해석자의 편견은 종종 그들의 서술을 왜곡한다.

인본주의: 인류는 본질적으로 선하다는 철학. 인간의 이성, 윤리, 정의를 바탕으로 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도덕과 규칙을 거부한다. 참고: 이 용어의 사용에는 세속주의가 포함된다.

지적인 성경적 설계(IBD): 생명체와 많은 무생물에서 발견되는 극도의 복잡성은, 이를 설계한 극도의 지성, 즉 성경의 하나님이 필요했다는 이론이다.

지적 설계(ID): 생명체와 많은 무생물에서 발견되는 극도의 복잡성은

물체에서 발견되는 극도의 복잡성은, 그것들이 극도의 지성적 근원(반드시 성경의 하나님일 필요는 없음)에 의해 설계되었음을 드러낸다는 이론.

중(성경적): 하나님이 최초의 조상에서 창조하신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탄생(유래)한 생물들의 집단. 참고: 이러한 집단 내의 변이는 원래 유전 정보의 재조합 또는 상실(유전자 고갈)로 인해 발생한다.

거대진화: 다윈주의 참조.

미시진화: 미적응 또는 미세변이라고도 한다. 이는 식물이나 동물의 동일한 종류(과) 내에서, 각 종류가 ‘그 종류대로’ 번식함에 따라 발생한다. 이는 초기 유전 정보의 분류나 상실(유전자 고갈)에서 비롯된다.

돌연변이: 부모의 유전자 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생물체의 유전 정보 변화. 돌연변이는 기능적인 유전 정보의 상실을 초래하며, 결실, 중복, 역전, 점 돌연변이, 치환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자연주의: 물질만이 존재하며, 자연 우주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은 자연적으로 생겨났다는 믿음. 자연주의자들은 인류의 영과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다.

자연선택: 하나님의 지성을 지성이 없고 실재하지 않는 ‘자연선택자’에게 *잘* 못 귀속시키는 용어. ‘하나님의 품질 보증 프로그램’을 참조하라.

신다윈주의: 수십억 년에 걸친 시간 동안, 유전자 풀에 새롭고 유익한 유전 정보를 추가하는 유전적 돌연변이로 인해 모든 생명체가 진화했으며, 그 후 보이지 않는 ‘자연 선택자’가 돌연변이가 일어나지 않은 개체를 제거하고, 개선된 돌연변이 개체가 진화하는 종을 이어가게 했다는 믿음. 참고: 신다윈주의는 우리가 사용하는 ‘다윈주의’라는 용어에 포함됩니다.

오캄의 면도날: 가장 단순한 해답, 즉 가정을 가장 적게 전제하는 해답이 대개 더 복잡한 설명보다 낫다는 원칙.

실증 과학(경험적): 반복 가능한 실험과 기존 증거에 대한 관찰을 통해 도출된 지식.

팬스퍼미아(리토판스퍼미아): 지구상의 생명체가 우주 다른 곳에서 기원하여 혜성, 운석, 외계인 또는 기타 알려지지 않은 출처를 통해 지구로 운반되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에 생명체가 유입되어 거시진화 과정이 시작되었다는 가설.

진정한 과학(러스(Russ)의 용어): ‘운영 과학’ 참조.

균일성(균일론): 현재가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오늘날 관찰되는 과정들은 지구가 시작된 이래로 기본적으로 동일(균일)하다는 믿음. 이는 오래된 지구론과 세속 지질학의 기초가 되는 신념이다.



~6,000년 전

성경 속 그리스도 - 오래된 지
구론적 그리스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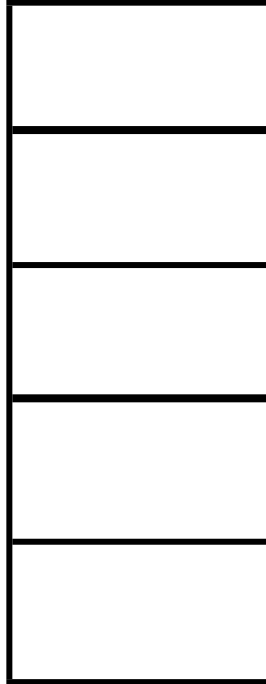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
다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셨
으며
약 2,000년 전

전 지구적 대홍수로
전 지구적 대홍수로 심판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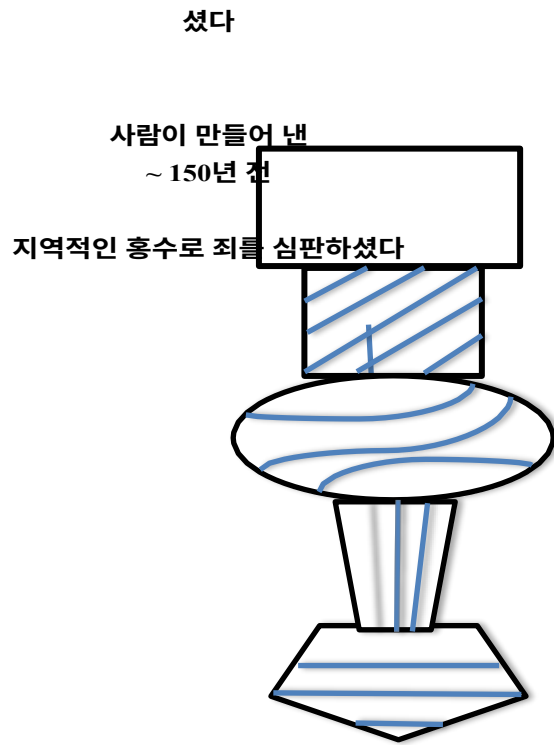
아담의 첫 번째 죄로 인
해 죽음이 들어왔고, 우
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
았다

6일 만에 창조되었으며,



부록 3 - 성경의 그리스도와 ‘오래된 지구’의 그
리스도를 비교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



죽음의 긴 세월
인류를 탄생시켰다

수십억 년에 걸쳐 우
리를 빔어내셨다

목차

- 무생물 발생 - 81
- 낙태 - 77, 139, 142, 143, 145
- 적응 - 4, 87, 89, 90, 93, 101, 113, 215, 244
- 아프리카 이브 - 203
- 알린스키, 사울 - 144, 145
- 암블로케투스 - 111
- 아미노산 - 64, 82, 83, 124
- 양서류 - 108, 109, 111, 112, 190, 193
- 조상 - 89, 105, 107, 112, 117, 120, 123, 128, 129, 242
- 고대 강 이론 - 44 인류원리 - 185, 199, 200, 201
- 항생제 - 126
- 유인원 - 84, 106, 120-123, 128, 129
- 아크투루스 - 226
- 아르디피테쿠스 - 122
- 무신론 - 62, 75-77, 79, 83, 137, 242
- 원자 - 32
- 박테리아 - 83, 97, 99, 126
- 유익한 -
- 베텔게우스 - 226, 227
- 빅뱅 - 68-71, 79-81, 105, 224, 225
- 권리장전 - 154-156 생유전법 -
- 130 이족 보행 - 117
- 새 - 109, 111, 116-119, 102, 210
- 브라이스 - 50, 51, 243
- 캠브리아기 대폭발 - 109
- 협곡 - 23, 35, 40, 42, 43, 45, 52, 196
- 탄소 연대 측정 - 32-35, 석탄
- 기 - 38 판례법 - 164
- 시더 마운틴 - 49, 50
- 침팬지 - 106, 123
- 석탄 - 34, 35, 37-39, 42, 196
- 콜로라도 강 - 43, 45
- 혜성 - 222, 245 지역 사회 조직가 - 144, 145
- 복잡성 - 83, 94, 130, 207, 219, 220, 227, 243
- 대륙 이동설 - 55-58 수렴 진화 - 108 다윈, 찰스 - 79, 89, 108, 122, 138, 141, 219
- 일-시대 - 169
- 디자이너 - 106, 117, 201, 207, 209, 211, 220
- 듀이, 존 - 141, 142
- 다이아몬드 - 34, 196, 197
- 분할 - 74, 197, 202
- 용 - 64-67
- 중복 - 98, 244
- 지진 - 30, 190 엘드리지, 나일스 - 110 배아 - 130
- 엔트로피 - 69, 71, 96, 97, 138
- 분출 - 23, 36, 39-41
- ERV - 128
- 우생학 - 139, 145
- 진행생물 - 88, 242
- 깃털 - 117-119, 210, 211
- 대퇴골 - 121
- 제1법칙 - 69, 71
- 편모 - 83
- 납작한 얼굴을 가진 남자 - 121, 123
- 화석화된 - 39, 57, 64, 111, 191, 193, 212
- 프레임 시프트 - 99, 100
- 기능적 - 99, 244
- 갈라파고스 - 89
- 은하 - 225, 226 갤럭시, 프랑스 - 139 가니메데 - 223, 224
- 갭 이론 - 42, 169, 170, 177
- 유전자 고갈 - 100-102, 106, 113, 114, 127, 190, 202, 215, 243
- 계놈 - 94, 106, 203, 243
- 지질학적 압축 - 52, 57, 58, 195
- 지질 연대표 - 19, 21-23, 25, 26, 30, 31, 34, 46, 63
- 아가미 주머니 - 130
- 빙하 - 41, 59, 60
- 그랜드 스테어케이스 - 43, 50-54, 185, 243, 249
- 대각성 - 150-51, 157
- 에른스트 헤켈 - 129, 130, 140
- 헨콕, 존 - 153

역사 과학 - 4, 16, 17,
 243
 히틀러 - 140, 142 호지, A. A.
 - 147
 호메오박스 - 98 호미니드 - 115,
 120-122 호모 사피엔스 - 146 상동
 성 - 104
 희망의 괴물 - 109, 110,
 112
 말 계통 - 110
 호일, 프레드 - 68, 70
 허블 - 224-226
 인간 2번 염색체 - 128-
 129
 인본주의 선언 - 141
 헉슬리, T. - 177
 IBD - 207-217, 219, 243
 빙하기 - 40, 55, 59-61, 185,
 202, 203
 이다 - 122, 123
 불확실한 내용 - 19, 81, 82, 95, 101,
 102, 112
 삽입 - 99, 100
 지능 설계 - 132, 201,
 206, 207, 220, 243
 환원 불가능성 - 83, 211 용
 거스 W. - 123 정크 DNA -
 125, 128
 목성 - 223, 224
 줌라기 - 46
 카이밥 - 44, 46, 48-52
 종 - 87, 88, 90, 114, 127, 131,
 190, 202, 214, 243, 244
 키처, P. - 63
 라바 - 24, 25, 30, 41, 42
 라자루스 분류군 - 21, 22, 141
 루이스, C.S. - 138, 186
 석회암 - 47, 49, 50
 링컨, 에이브러햄 - 155, 157-
 160, 166, 207
 살아있는 화석 - 111 루시퍼 -
 144, 177
 루시 - 103, 115, 121-123
 달 - 204, 222
 매디슨, 제임스 - 155, 156
 자기 - 33, 187, 192, 223,
 224
 만, 호레이스 - 141 맨텔,
 메리 - 63 마오 - 141
 마이어, 에른스트 - 27, 86
 윤석 - 35, 83, 84
 은하수 - 224, 226
 미토콘드리아 - 123, 203
 도덕적 상대주의 - 77, 143 러시아어
 산 - 206 산 - 24, 48, 52, 55-57,
 195
 이암 - 23, 24, 37 말콤 머거리지 - 134 내셔널
 지오그래픽 - 53, 122,
 203
 자연법 - 71, 74, 244
 자연 선택 - 92, 93, 102,
 131, 164, 204, 219, 242, 244
 자연주의 - 11, 15, 21, 51, 79,
 137, 138, 206, 244
 나치즘 - 140
 네안데르탈인 - 120, 121, 123
 신다윈주의 - 94-96, 98-
 102, 127, 244
 뉴 사이언티스트 - 70, 222
 노아의 방주 - 12, 65, 67, 78, 202,
 203, 215
 뉴클레오티드 - 82, 242
 나일론 - 99
 바다 - 52, 55, 56, 59-61, 79,
 105, 179, 196, 197, 200, 202, 203,
 209, 210, 222
 기름 - 17, 20, 23, 33, 35, 196-198
 개체발생 - 130
 개방 시스템 - 96, 97 ORFan 유전
 자 - 106 기원 - 16, 77, 84, 90,
 102,
 134, 135, 140, 173
 오웬, 리처드 - 64 패터슨, 콜린 -
 112 이탄 - 37, 38
 문 - 109
 계통 발생 - 130
 필트다운인 - 123 가족 계획 -
 145 플라스미드 전이 - 97 판 구
 조론 - 55, 56, 58
 점 돌연변이 - 99, 100
 폴룩스 - 226
 마르코 폴로 - 64
 폴로늄 후광 - 46, 47
 다층 퇴적층 - 39, 40
 대홍수 이후 - 40, 41, 61, 215

영장류 - 116, 120, 122-124,
 127-129
 점진적 창조론 - 169, 171, 174
 예언 - 36, 72, 80, 168
 단백질 - 82, 83, 94, 99, 101,
 127, 215, 218, 124,
 양성자 - 74, 200, 201
 공립학교 - 77, 141, 142,
 162, 164-167, 180
 단속적 평형 - 109, 112, 113, 136
 재현설 - 129, 140
 레드 버트 - 49, 50
 저항 - 103, 115, 126 미국 독립 전쟁 -
 151-154 로슈 한계 - 222 루즈벨트, 프
 랭클린 - 161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
 칙』 - 144 샌저, 마가렛 - 145 『사이
 언스』 매거진 - 70 『사이언스 뉴스
 』 - 121, 219
 바다 - 40, 192, 196-198, 202,
 203, 207
 제2법칙 - 69-71, 96, 97
 세속주의 - 76, 243
 뱀 - 64, 66, 173
 세스 - 205
 성혁명 - 143 단순 세포 - 82
 싱어, 피터 - 143 노예제 -
 156-158, 161
 자발적 - 80, 81
 별빛 - 68, 72, 73
 유동 포획 - 44, 45
 침강 - 48, 57, 58
 초신성 - 223
 대법원 - 155, 160-162,
 164
 공생 - 79
 지각 운동 - 41, 55, 56, 58, 59, 196
 텔로미어 - 128, 129
 십계명 - 71, 144,
 150-154, 159, 161, 164, 166, 183-
 유신론적 진화론 - 146, 167,
 169-171, 174, 183
 티크탈릭 - 103, 111, 112, 115
 시간의 공백 - 46, 47
 토메이인 - 121-123 과도기 화석 - 107-109,
 112, 124, 135
 생명의 나무 - 107
 트라이아스기 - 46
 균일설 - 243, 245
 균일성 - 16-20, 30, 33, 43,
 44, 56-59, 61, 73, 79, 245
 업워프 - 44, 45, 48, 52, 53
 변주 - 4, 87, 88, 90, 101,
 113, 114, 130, 190, 203, 242-244
 버밀리언 클리프 - 50, 51, 243
 척추동물 - 12, 176, 190, 209,
 219
 바이러스 - 101, 126, 108
 화산 - 23, 39-41, 50, 55, 60,
 196, 202, 222
 조지 워싱턴 - 155, 158,
 159, 206
 노아 웨스터 - 152 고래 시리즈 -
 111 조지 화이트필드 - 152
 마무리 딜레마 - 225
 마법 - 143
 Y 염색체 - 106, 203
 청소년 - 10, 142, 152, 159, 198,
 222
 시온 - 50, 51, 243





『』 저자 소개

과학, 수학, 경제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174학점을 이수하고, 일반 경영학 및 인사 관리학 학위를 취득한 러스 밀러는 1980년에 학교를 그만두고 18년 동안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 냈습니다(그는 부업으로 맞춤형 주택 건축 자금도 조달했습니다). 2000년에 러스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창조, 진화 및 과학 사역(Creation, Evolution & Science Ministries)’을 시작했습니다. . 한때 유신진화론자였으나 회심한 러스 밀러는 이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모두에게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성경적 창조론의 관점에서 러스 씨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랜드 캐니언 림(Rim), 림 앤 래프트(Rim & Raft), 그랜드 스테어케이스(Grand Staircase) 투어를 선도해 왔습니다. 2004년부터 2024년까지 그는 다른 모든 창조론 단체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랜드 캐니언으로 인도했습니다!

러스의 현장 및 영상 강의는 CESM의 강점입니다. 러스는 전국의 교회와 컨퍼런스에서 켄 햄, 조쉬 맥도웰, 데이비드 리브스, 프랭크 페레티, 척 미슬러, 데이브 레이건, 제이슨 라일, 앤디 우드, 헬멧 웰케, 알렉스 뉴먼, 패트릭 우드 등 경건한 사역자들과 함께 강연해 왔습니다.

러스의 저서와 동영상(그는 사람들이 이를 복사하여 무료로 나눠주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기타 자료들은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CreationMinistries.Org

“우리의 사명은 성경적 진리를 확증하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찾으도록 돕는 것입니다.” 러스